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ASONAL FEAST MINISTRIES ON THE  
CHURCH GROWTH: THE CASE OF SEOUL SHINDO CHURCH**

특정적 절기 사역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신도교회를 중심으로

A Thesis 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In Hwan Kim (김 인 환)**

Lynchburg, Virginia

May 2018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THESIS PROJECT APPROVAL SHEET**

---

MENTOR

Dr. Sungtaek Kim  
Director, Korean Ministries  
Assistan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

READER

Dr. Justin Yoojung Lee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 ABSTRACT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ASONAL FEAST MINISTRIES ON THE CHURCH GROWTH: THE CASE OF SEOUL SHINDO CHURCH

In Hwan Kim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8

Mentor: Dr. Sungtaek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method for church growth based on the seasonal feast ministry. The Korean church experienced a quantitative revival unprecedented in the world. Recently, however, the reality is that many Korean churches lost their lively dynamics as they failed to strive to meet, and consequently their members gradually decreased.

In this context, the research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east ministries as an alternative method for church growth, based on the idea that feasts found in the Bible were days that gathered people. For this, the researcher will investigate feasts found in the Bible and in the history of church and look into the results of church growth achieved by feast ministries within the Korean church. Further, the results of growth will be investigated, using data from a questionnaire survey of lay people and pastors about feast ministries carried out by the researcher in person.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a feast ministry-based alternative method for restoring church growth and creating healthy churches among churches experiencing growth slowdown.

Abstract length: 177 words

## ABSTRACT

초록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ASONAL FEAST MINISTRIES ON THE CHURCH GROWTH: THE CASE OF SEOUL SHINDO CHURCH

특정적 절기 사역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신도교회를 중심으로

In Hwan Kim (김인환)

Liberty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 2018

Mentor: Dr. Sungtaek Kim

이 연구의 목적은 절기 사역을 통해 교회의 성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양적 부흥을 맛보았다. 그러나 근래의 현실을 보면 많은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음으로 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활발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성경에 나타난 절기가 모이게 하는 날이라는 것으로 착안하여 교회 성장에 대한 대안으로 절기 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역사 속에서 나타난 교회사적인 한국 내 교회의 절기 사역을 통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성장의 결과를 살펴본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였던 절기 사역에 대해 평신도와 목회자의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성장의 결과를 살펴본다. 이 논문을 통해 성장이 둔화된 교회마다 절기 사역을 통하여 교회의 성장을 다시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대안을 제시한다.

초록 길이: 117 words

## ACKNOWLEDGEMENTS

### 감사의 글

먼저 그동안 연구자가 본 논문을 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환경까지도 조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고, 애쓰며 지도해주신 김성택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과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이유정 교수님과 정태우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필요한 행정적인 부분을 열정적으로 지원해주신 김형규 목사님과 이은규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부족한 아들을 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부모 되신 김동혁 집사님과 박경혜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도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늘 곁에서 남편의 학업을 위해 뒷바라지하고, 기도로 내조하며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준 아내 정은주 사모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원해준 믿음직한 첫째 기홍이와 늘 웃음을 주는 둘째 기윤이와 아빠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막내 슬기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설문에도 열심으로 응하여 주신 사랑하는 신도교회 교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김태우 목사님과 정필도 목사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분 은사 목사님의 가르침과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는 배려가 없었다면 이 논문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분께서 보여주신 사역의 모습을 절기사역을 통해 다시금 활짝 꽃피우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글을 전합니다.

**CONTENTS**  
목차

ABSTRACT .....	iv
초록	
ACKNOWLEDGEMENTS .....	vi
감사의글	
TABLES .....	xiv
표	
PICTURES .....	xv
그림	
SUMMARY .....	xvii
요약	
CHAPTER 1: Introduction .....	1
제 1 장: 서론	
1. Purpose of the Study and Statement of the Problem .....	1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2. Scope and Limitations .....	5
범위와 한계	
3. Theoretical Basis .....	5
이론적 근거	
4. Method of the Study .....	8
연구방법론	
5. Review of Literature .....	9
문헌 검토	
CHAPTER 2: The Rationale for Feast Ministries .....	16
제 2 장: 절기사역의 이론적 근거	
1. Understanding of Feasts .....	16
절기에 대한 이해	
1) Definition of Feast .....	16
절기에 대한 정의	

2) Feasts in the Bible .....	19
성경에 나타난 절기	
3) Feasts in the Church Year .....	38
교회력에 나타난 절기	
2. Understanding of Church Growth.....	42
교회성장에 대한 이해	
1) Definition of Church Growth.....	42
교회성장의 정의	
2) Principles of Church Growth Found in the Bible .....	44
성경에 나타난 교회성장의 원리	
3. Sub-conclus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easts and Church Growth ...	47
절기와 교회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소결론	
<b>CHAPTER 3: Case Study Research on Feast Ministry-based Church Growth .....</b>	<b>49</b>
제 3 장: 절기사역을 통해 성장한 교회 사례 연구	
1. Life-Sharing Feast Ministry: Seoul Light/Salt Church.....	51
생명 나눔 절기사역: 서울광염교회	
1) Introduction of the Church .....	51
교회소개	
2) Pastoral Philosophy .....	51
목회철학	
3) Church Vision.....	52
교회비전	
4) Examples of Life Sharing Feast Ministry.....	53
생명 나눔 절기사역의 예	
5) Results of the Ministry .....	57
사역의 결과	
2. Life-Delivery Feast Ministry: Sooyoungro Presbyterian Church .....	58
생명 전달 절기사역: 수영로교회	
1) Introduction of the Church .....	58
교회소개	

2) Pastoral Philosophy .....	59
목회철학	
3) Church Vision.....	60
교회비전	
4) Examples of Life Delivery Feast Ministry .....	61
생명 전달 절기사역의 예	
5) Results of the Ministry .....	67
사역의 결과	
3. Church Built on Church Feast Ministry: Seoul Shindo Church .....	68
교회절기사역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 서울신도교회	
1) Introduction of the Church .....	68
교회소개	
2) Pastoral Philosophy .....	69
목회철학	
3) Church Vision.....	69
교회비전	
4) Examples of Feast Ministry.....	70
절기사역의 예	
5) Results of the Ministry .....	73
사역의 결과	
4. Sub-conclusion.....	73
소결론	
CHAPTER 4: Questionnaire Survey Research for Church Feast Ministries .....	75
제 4 장: 교회절기사역을 위한 설문 연구	
1. Purpose and Procedure of Questionnaire Survey.....	75
설문조사의 목적과 절차	
1) Purpose of Questionnaire.....	75
설문의 목적	
2) Participants .....	75
참가자	

3) Procedure and Method for Questionnaire Survey .....	75
설문절차 및 방법	
4) Structure and Contents of Questionnaire .....	75
설문의 구성 및 내용	
2. Questionnaire Findings (Analysis of Findings on Frequency) .....	76
설문결과(빈도결과에 대한 분석)	
3. Analysis of Questionnaire Findings .....	94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	
1) Positive Factors .....	94
긍정적 요소	
2) Direction of Improvement .....	95
개선방향	
3) Sub-Conclusion .....	96
소결론	
CHAPTER 5: Methods for the Operation of Feast Ministry .....	97
제 5 장: 절기사역 운영방안	
1. SaeMatTeukSae (New Year's Special Early-Morning Prayer Service) .....	97
새맞특새(새해맞이 특별새벽기도회)	
1) Overview .....	97
개요	
2) Title and Goal .....	98
명칭과 목표	
3) Subject .....	98
주제	
4) Bible Verse .....	98
성구	
5) Program .....	99
프로그램	
6) Detailed Plan .....	100
세부계획	

2. Easter Life Festival .....	102
부활절 생명축제	
1) Overview .....	102
개요	
2) Title and Goal .....	103
명칭과 목표	
3) Subject .....	103
주제	
4) Bible Verse.....	103
성구	
5) Program .....	104
프로그램	
6) Improvements .....	109
개선점	
3. Happy Concert .....	110
행복콘서트	
1) Overview .....	110
개요	
2) Title and Goal .....	110
명칭과 목표	
3) Subject .....	111
주제	
4) Bible Verse.....	111
성구	
5) Detailed Plan .....	111
세부계획	
6) Improvements .....	122
개선점	
4. YeGam (Thank You, Jesus) Festival .....	123
예감축제(예수님 감사해요)	

1) Overview .....	123
개요	
2) Title and Goal .....	123
명칭과 목표	
3) Subject .....	124
주제	
4) Bible Verse.....	124
성구	
5) Program .....	124
프로그램	
6) Improvements .....	127
개선점	
5. Awaited Christmas .....	127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1) Overview .....	127
개요	
2) Title and Goal .....	128
명칭과 목표	
3) Subject .....	129
주제	
4) Bible Verse.....	129
성구	
5) Detailed Plan .....	129
세부계획	
6. Sub-conclusion.....	131
소결론	
CHAPTER 6: Conclusion.....	133
제 6 장: 결론	
Appendix A .....	135
부록 A	

Appendix B.....	139
부록 B	
Bibliography.....	140
참고자료	
IRB Approval.....	147
IRB 승인	

**TABLES**  
**표**

표 1. 서울신도교회 새가족 초청 및 등록 현황.....	71
표 2. 새맞특새 실행 프로그램 .....	99
표 3. 황금알을 찾아라 실행 프로그램 .....	104
표 4. 부활절 축제예배 실행 프로그램 .....	105
표 5. 외침전도 및 계란나누기 실행 프로그램 .....	108
표 6. 행복콘서트 실행 프로그램 .....	111
표 7. 발대식 실행 프로그램 .....	112
표 8. 행복콘서트 축제예배 실행 프로그램 (I) 당일행사 .....	120
표 9. 행복콘서트 축제예배 실행 프로그램 (II) 준비사항 .....	121
표 10. 예감 축제예배 실행 프로그램 (I) 당일행사.....	124
표 11. 예감 축제예배 실행 프로그램 (II) 준비사항.....	125
표 12. 크리스마스 전야 예배 실행 프로그램 .....	129
표 13. 크리스마스 축제예배 실행 프로그램.....	131

## PICTURES

### 그림

그림 1. 러브부산 진행 프로그램 .....	66
그림 2. 성별.....	76
그림 3. 나이.....	77
그림 4. 서울신도교회 출석 기간 .....	78
그림 5. 교회내에서의 위치 .....	78
그림 6. 교회에서 진행되는 절기사역 진행 인지 여부 .....	79
그림 7. 절기사역 세부내용 파악 여부.....	79
그림 8. 출석교회에서 진행되는 절기사역 인지 여부 .....	80
그림 9. 절기사역 참여율 .....	81
그림 10. 교회절기사역의 숫자적 영향 .....	81
그림 11. 교회절기사역의 새신자 증가 영향.....	82
그림 12. 영향을 주었던 교회절기사역 .....	83
그림 13. 부활절생명축제가 미친 긍정적 영향 .....	84
그림 14. 부활절생명축제가 미친 부정적 영향 .....	85
그림 15. 부활절생명축제가 영향력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 .....	86
그림 16. 사랑방전도축제가 미친 긍정적 영향 .....	87
그림 17. 사랑방전도축제가 미친 부정적 영향.....	88
그림 18. 사랑방전도축제가 영향력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 .....	89
그림 19. 예감축제가 미친 긍정적 영향.....	90
그림 20. 예감축제가 미친 부정적 영향.....	90
그림 21. 예감축제가 영향력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	91

그림 22. 교회절기사역의 필요 유무.....	92
그림 23. 필요에 대한 이유.....	92
그림 24. 교회절기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	93
그림 25. 서울신도교회가 발전시키기 원하는 사역.....	94
그림 26. 부활절 축제예배 성찬식 진행도표.....	107
그림 27. 효과적인 전도 대상자 찾는 법.....	116

## **SUMMARY**

### **CHAPTER 1**

#### **INTRODUCTION**

Church growth means more than mere growth in quantity. It implies that Christians should influence and change the world for Jesus Christ. Korean churches in their early days experienced spiritual urgency against the darkness of the times under Japan's colonial rule. They were strong even under indescribable persecution. The Korean War did not annihilate Korean churches. Rather, the churches experienced unprecedented growth in the latter part of the twentieth century. Moving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however, Korean churches lost dynamic spiritual growth.

To overcome the challeng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researcher attempts to bring back the dynamic growth to churches by discovering the biblical meanings of feasts. He purposes to infuse and recover the original intent of biblical feasts in existing events such as New Year's Eve, Easter, Thanksgiving Day for Barley Harvest, Thanksgiving Day, and Christmas.

For this thesis, biblical and theological grounds for feast ministries will be analyzed in addition to the impl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assover, the Feast of Weeks (Pentecost), and the Feast of Tabernacles in the Old Testament. In addition, their connection to the New Testament, the significance of the church year, and examples of their meaningful application within modern churches will be explored. To this end, Seoul Shindo Church will serve as the study case for this thesis.

## CHAPTER 2

### RATIONALE FOR FEAST MINISTRIES

*Feast* is a word indicating the event designated for the specific time and place for God's people to meet Him. The meeting was an opportunity for them to confirm their identity again. At the feast was held a sacred ceremony that had the character of worship and where people could offer sacrifices to God. All Israelites attended the feast as the national event, and this is where the Word of God was declared. Among the appointed feasts found in Leviticus 23, the Passover, the Feast of Weeks, and the Feast of Tabernacles are the so-called three major feasts of the Israelites.

The Passover is related to the Exodus of the Israelites and is also associated with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nd the month of Abib. The Passover in the Gospel of John reveals some important meanings relevant to Jesus' ministry. First, John 6, at the time of the Passover, people perceived Jesus as the Prophet prophesied in the Old Testament, and Jesus is declare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Second, in chapter 12 of John, Mary anoints Jesus with perfume, and Jesus raises Lazarus from the dead. These two incidents act as a device that suggests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The Feast of Weeks is the feast that signifies the start of the harvest and includes a call for the day when a new grain is offered to the Lord. Also known as Pentecost, this feast comes after the Feast of the First Fruits. Exodus 19 describes the making of a covenant that occurred in the Feast of Weeks; thus, this feast reveals that the identity of God's people is formed within the relationship of the covenant with God. In the New Testament, the church was born when the Holy Spirit, promised by Jesus, descended on the day of Pentecost.

The Feast of Tabernacles is an autumnal feast characterized by remembering and expecting. It came to indicate covenant renewal and possessed an eschatological meaning after the Babylonian captivity. This feast also called the Feast of Ingathering; it is a feast dedicated to the Lord representing the virtue of God's people who hoped for the guidance of God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working of God who gathers the exiles. Redeeming the Old Testament idea of the Tabernacles in John 7, Jesus describes himself as the source of living water, or an alternative temple. Notably, the Israelites who returned from Babylon realized their sins and wept as they listened to the words of God during the Feast of Tabernacles. Then they ate, drank, and celebrated with joy after they clearly understood the message spoken through the Word of God. Amidst the great joy, the regulation of the Feast of Tabernacles was restored.

The church established after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on the Pentecost was a unique community of people from diverse religious backgrounds, races, and thoughts. As found in Acts 2:43-47, this community experienced great changes in their lifestyle after they had received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Many other people joined their faith thanks to the visible changes in their lives. This cycle of visible change after salvation leading to more people joining the church maintained the growth of the church, and churches gradually came to use the church year in order to maintain vibrancy in their daily lives. Even today, the church year allows members to offer their lives as a form of worship to God by aligning rhythms of their faith life with the flow of time. As long as the church remains healthy, internal growth will be realized as a natural outcome of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 CHAPTER 3

### CASE STUDY RESEARCH ON FEAST MINISTRY-BASED CHURCH GROWTH

In chapter 3,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feast ministrie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Korean churches and presents examples of churches that grew due to healthy feast ministries. Seoul Light/Salt Church is established on Pastor Cho Hyun-sam's pastoral philosophy of "Principle of Piped Happiness," and Sooyoungro Presbyterian Church is built on Pastor Joung Pil-do's pastoral philosophy of "Soul Salvation."

Seoul Light/Salt Church has established its identity and grown through a variety of almsgiving ministries. Cho Hyun-sam says that the church should be a pipe for transferring all good things given by God to the world. Hence, the vision of Seoul Light/Salt Church, planted by Cho himself, is also to share life and the gospel, which is evidenced in the ten visions and basic fiscal principle of the church. All offerings collected from every feast worship service are spent for almsgiving; they benefit the charity house ministry, which provides housing to church members in need, and the mission house ministry, which provides living spaces to foreign workers. The offerings also help out the ministry of charity fruits and New Year's dress sharing with the church members' poor neighbors every year. Through the feast ministries, Seoul Light/Salt Church maintains well the life and energy of the church while experiencing church growth driven by the dynamics.

Additionally, Sooyoungro Presbyterian Church in Busan is an exemplary case where the church has grown based on the Life-Delivery feast ministry with soul salvation as its core value. The church holds the Sarangbang Evangelism Festival, with its core focus on Life-Delivery, twice a year on Easter and Thanksgiving, and on Christmas promotes the

Love Busan Movement ministry. The value of soul salvation has been crystallized in the four visions of the church, and is also fully reflected in nurturing training programs implemented by the church. The Sarangbang Evangelism Festival is a small, relationship-centered community ministry. It is a month-long sequence of events, starting with selecting the targets of evangelism, praying for them, and holding an invitation event. The Love Busan Movement is a ministry to deliver tens of thousands of love boxes filled with daily necessities to neighbors in need. The feast ministry of Life-Delivery is connected to the movement of putting charity into practice. It brings changes to the life of its church members and restores church dynamics. Then, the church experiences the sustained revival and growth.

The researcher introduces the feast ministry of Seoul Shindo Church where he serves as the senior pastor. The feast ministry has positive effects on the church's growth. In Seoul Shindo Church, "happiness" is the core value; feasts in the church year that derive from the Old Testament are applied to the ministry of the church. The feast ministry has pushed growth by promoting changes in its church members' lives and by causing such changes to be manifested in the form of spreading the gospel.

The feast ministry can help with recovering and maintaining church dynamics through changing church members' daily lives in effective ways. It can powerfully contribute to church growth. It creates the vibrancy of faith in the church just as the Israelites remembered God's salvation and reproduced its meaning in their cyclic life by observing feasts every year. The proper application of church feast ministry will prove to be a method for renewing, reviving, and growing the church.

## CHAPTER 4

### RESEARCH SURVEY FOR CHURCH FEAST MINISTRIES

This questionnaire survey aims to grasp the actual situation of participants in the feast ministry with a view toward developing methods for feast ministry operation in Korean churches. Among the forty participants in the survey, 47 % were male and 53% were female. The ratio between male and female is similar to that of the whole Seoul Shindo Church. It took less than fifteen minutes for them to answer 24 questions.

The major group among the respondents was members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who had attended Seoul Shindo Church for more than ten years. Deputy deacons and youth participated in the survey more actively than elders, ordained deacons, and senior deaconesses. A total of 95% of all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fact that the feast ministry was provided by the church, and 87% had better than average understanding about the details of the feast ministry. Their participation level in each of the feast ministries was calculated to be 87.5% in the Easter Life Festival, 67.5% in Sarangbang Evangelism Festival, and 62.5% in YeGam Festival.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feast ministrie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church, particularly on the increase of new members. They did not opine that the feast ministries had great effects on the return of long-term absentees to the church.

In total, 72.5%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Easter Life Festival had good effects on themselves; 57.5%, Sarangbang Evangelism Festival; and 55%, YeGam Festival. The data indicate that ministries based on traditional feasts such as Easter, Pentecost, and Thanksgiving Day had strong impact on the participants. While acknowledging the

necessity of feast ministries, 47% of the respondents particularly viewed that feast ministries were necessary for church growth and 33% of the participants posited that feast ministries met the needs of the church. The data show that feast ministries positively met the internal needs of the church, allowing people to turn their attention toward external needs outside of the church.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human element more than just the scrupulous plann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feast ministry.

This questionnaire survey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ed well both the effectiveness and limits of the feast ministry for the past 6 years, since 2011. It may be estimated that the feast ministry has been essential for church growth and has had positive effects on quantitative growth. The ministry brought the increase of new membership, resulted in improved fellowship among church members, and raised the level of the awareness on evangelism and missionary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some factors are lacking in that ministry: church members may not fully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ministry; they do not necessarily experience significant changes in their lives; and members may feel pressure from the evaluation and competition rising out of feast ministries, thus causing the original intent of the feast ministry might get tarnished.

## CHAPTER 5

### METHODS FOR THE OPERATION OF FEAST MINISTRIES

This chapter summarizes years of feast ministries of the researcher's church.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premise introduced in chapter 4 that the church feast ministry creates strength in the church and has direct effects on a church's revival and growth.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re two: to develop operational methods that will modify and supplement the feast ministry administered so far, and to suggest a model that will help the pastors to launch a feast ministry with aspirations for church growth. A year-round model of feast ministry will be proposed.

The first of the feast ministries is SaeMatTeukSae (New Year's Special Early-Morning Prayer Service). The idea of this feast ministry came from the Feast of Trumpets and the Day of Atonement in Leviticus 23 and Deuteronomy 29. This feast was designed for the restoration of holiness, and church members pursue a holy life by praying early in the morning for three weeks for a new heart, new grace, and new revival.

The second is the Easter Life Festival. The idea for this feast ministry found its source in Passover, which is connected to today's Easter. The purpose of the ministry is to assist people in living a joyful life with the hope of resurrection. Inside the church, an event called "Find the Golden Egg" and an Easter Festival Service are held; outside the church, the Shouting Evangelism and Egg Sharing events are held.

The third is a Happy Concert. The idea of this feast ministry came from the Feast of Weeks, the event in the Old Testament in which the giving of the Law on Mount Sinai was celebrated, and in the New Testament, where the Word was revealed through the advent of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Similarly,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is to reap spiritual crops. Starting with the opening ceremony, it progresses in the order of targeting to praying to serving to inviting participants to church.

The fourth is the YeGam (i.e. Thank you, Jesus) Festival. The idea of this feast ministry came from the Feast of Tabernacles. Its primary goal is to reap spiritual crops by preaching Jesus Christ who came as the Word of life, beyond giving thanks for protection for the past year and for the crops. The secondary aim is to share love with alienated and weak people on this earth in obedience to God's commandment, so that the kingdom of God may come to this world. Its programs include a Festival Worship Service inside the church and Sharing Charity Rice or Sharing Charity Fruits outside the church.

The fifth is Awaited Christmas. The idea of this feast ministry came from Christmas. Its purpose is to help Christians to hope that what Jesus did on earth would be accomplished through them while eagerly waiting for the coming of Jesus who came as I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The ministry motivates Christians to live with the desire to bring true peace on earth through the practice of love first shown by Jesus. Its programs include a Christmas Eve Service and a Christmas Festival Service. The Christmas Eve Service celebrates the birth of baby Jesus, and invitations are extended to unbelieving parents in particular so that they may have an opportunity to hear the gospel of Jesus. The Christmas Festival restores the proper meaning of Christmas and encourages people to practice the humble love of Jesus in life.

The feast ministry programs proposed allow people to view the whole year at a glance according to biblical feasts; the manual for feast ministries is well-arranged. Furthermore, the feast ministry programs are biblical in restoring the vigor of churches.

## CHAPTER 6

### CONCLUSION

This thesis has presented the overall review of the researcher's church feast ministries for years. Programs of the feast ministry were investigated on the premise that church feast ministry restores the dynamics of faith, thereby creating church growth and revival. The feast ministry used to be focused on effective ministry. This study, however, shifted its attention to the fundamental factors of revival and growth and investigated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meanings of feast ministry. The feast ministry begins with gathering, and its most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is sharing.

Keeping the feast calendar in the Old Testament is God's command directly given to the Israelites and means that they should live life as pilgrims, breaking away from a stable life. It implies essentially a God-centered life in God's people. The feasts in the Old Testament are carried over to the church year in the New Testament era in meaning and spirit. They penetrate members' lives and restore the vigor of the church, causing revival and growth.

If the feast ministry is based on the Bible and can be carried out repeatedly every year, the dynamic energy will be created in the same way that it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early church, and the modern church should experience similar revival and growth. The researcher hopes that the church feast ministry proposed in this thesis may prove to be a good alternative for the Korean church.

## 제 1 장

### 서론

#### 1. 연구목적과 문제제기

한국교회의 성장은 세계의 선교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고 역동적으로 이뤄졌다. 이만열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의 복음 전도는 일찍이 복음을 들고 입국한 한 선교사가 “씨를 뿌리러 왔으나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고백한 것과 같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또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그래서 한국 선교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유례없는 성장’이라고 지적해 왔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세계 선교사상 이렇게 괄목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선교사들은 이를 학술적으로 정리하려고 시도한 바가 있다.<sup>1</sup>

이것은 한국교회의 선교 초창기에 교회가 강력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교회의 역동성은 단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적 성장으로 설명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어떠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사회 안에서 가시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sup>2</sup> 이에 대해 톰 S. 레이너(Thom S. Rainer)는 “교회성장이란 용어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아무런 개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교제를 가지도록 해주며, 책임 있는 교인이 되도록 만드는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중생을 위한 구원화, 양육을 위한 제자화, 선교를 위한 사회화가 바로 교회성장이다.”고 하였다.<sup>3</sup> 또한 교회성장이란 단어는 도널드 A.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서는 교회가

---

1) 이만열, “교회사로 풀어 본 교회성장 이야기”, 「3인 3색 교회성장 진단과 전망」, 권성수, 양참상, 이만열 공저(서울: 처음, 1997), 189.

2) 역동성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질’을 뜻하며, 경제학및사회학에서는 ‘성장’을 ‘역동성’의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성장과 역동성 사이의 관계를 경제, 사회학적 정의를 차용하여, 교회의 역동성을 ‘교회 성장의 동력’으로 정의한다. 교회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물이지만, 성장과 그 근저에 있는 역동성이 어떤 양태로 가시화되었는지를 ‘절기’라는 것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교회 성장을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려는 본 논문의 목적을 드러내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Thom S. Rainer. 「교회성장교과서」,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5), 20.

성장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에게 충실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교회성장이란, 예수 안에 거듭난 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개인과 교회, 지역, 사회, 국가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등한시한 채로 교회성장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제치하에서의 한국교회의 성장은 당시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역동성의 두 가지 요인을 모두 보여주는 역사적 실례이다. 먼저 일제에 의해 국권이 강탈되던 시기인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대 부흥 운동’과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일어났다. 당시의 민족적 위기를 두고 부흥집회에 참석한 한 지방관리가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달리 아무 도리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말한 것을 선교사 C. E. Sharp가 증언했듯이, 한국 민족의 절망적인 상태가 이러한 교회성장의 새로운 계기로 만들어졌던 것이다.<sup>4</sup>

둘째로 1919년에 일어났던 3·1만세 운동에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복음 전파에 새로운 통로를 제시하였다. 그 때 기독교인들은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을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곳곳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황순환은 “한국교회는 일제치하에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교회는 계속 부흥할 수 있었다. 1919년 3.1운동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기독교가 주체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기독교는 민족구원의 종교로 인식되었다. 기독교가 사회참여에 중심축을 형성함으로써 한국교회는 사회적 공신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사회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sup>5</sup> 또한 선교사들은 비록 정치적 중립이 요청되었지만 비무장 시위 군중과 수감자들에 대한 일제의 대처방식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3·1 운동에서 보여준 기독교계의 이 같은 활동상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자세를 갖게 하였고, 만세 운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투옥된 감옥 안에서부터 이미 복음 전파가 일어났으며

4) 장희근, 「한국장로교회사」(서울: 아성 출판사, 1970), 101.

5) 황순환, “한국교회의 성장과 정체에 대한 연구”, 「선교신학제 28집」(2011, 11), 300.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후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질 신속한 교회성장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회의 성장은 심각한 정체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고, 한국 사회에 나타난 인구 절벽의 문제와 맞물려 이제는 정체를 지나 부흥하는 교회에서 쇠퇴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윤식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미 대세적 성장이 멈추었다. 2013년 분석만 보더라도,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은 재적 교인이 299만 4,873명에서 285만 7,065명으로 감소했고, 예장통합도 281만 531명에서 280만 8,912명으로 감소했으며, 기장은 29만 7,752명에서 28만 9,854명으로 감소했다. 교육부서의 감소는 전체 감소율을 웃돈다. 예장통합은 유치부가 5만 8,293명으로 전년보다 3,958명(6.8%)이 줄어들었고, 중고등부는 15만 7,409명으로 전년보다 1만 4,251명(9.1%)이 줄어들었다. 예장합신도 유치부, 유초등부가 3.6% 감소했고, 중고등부는 4.1% 줄어들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매년 비슷한 추세로 재적 교인이 감소하고 있다.<sup>6</sup>

현재 한국교회는 영적 침체, 세속화, 재적 교인의 감소, 주일학교 붕괴, 시대 역행적 발상, 몇몇 대형교회의 도덕적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sup>7</sup> 이만열은 한국교회 성장 둔화의 요인을 사회 일반적인 요인과 교회 내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사회 일반적인 요인으로는 1) 경제성장에 따른 긴장감의 해이, 2) 종교의 기능적 대행물의 출현, 3) 인구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말한다. 교회 내적인 요인으로는 1) 거품교인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 2) 교회의 자기 정체성 약화, 3) 목회자의 영성 상실, 4) 서열화된 교회 직분 구조와 리더십의 부재, 5) 미래와 후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교회, 6) 교단분열 및 개교회의 불화, 7) 사회를 향해 섬김과 나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 8) 사이버 종파로 인한 종교에 대한 불신을 들었다.<sup>8</sup> 이를 통해 한국교회 성장의 정체 또는 퇴보의 근본적인 요인을 교회 밖에서 찾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6)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38.

7) Ibid., 39.

8) 이만열, “교회사로 풀어 본 교회성장 이야기”, 「3인 3색 교회성장 진단과 전망」, 권성수, 양참상, 이만열 공저(서울: 처음, 1997), 219-34.

다가온다. 이진우는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눈이 차갑다.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30%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런 등식의 말이 우리의 컷전을 울린다. 기독교인 즉 애국자란 등식이 우리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 교회의 독선, 배타성, 귀족성 등에 대한 성토의 소리가 높아만 간다.<sup>9</sup>

위와 같은 시각은 한국 교회가 선교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역동성을 크게 상실하였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역동성의 상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도의 어려움, 복음이 가진 근본적 가치로 인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문제로 인해 겪는 사회에서의 배척, 그로 인해 선교 초기 한국 역사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회 지도적 위치의 상실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동성의 회복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동성의 회복을 위해 본 연구자는 ‘성경적 절기의 의미 회복’을 해결의 방법으로 삼고자 한다. 이것은 본 연구자가 담임하고 있는 신도교회의 모델을 통해 제시하려 한다. 신도교회는 본 연구자가 부임할 당시 100여 명의 출석 성도였으나, 여러 절기 행사를 통해 400명이 넘는 출석 교회로 성장하였고, 단기 선교의 활성화,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 지급, 전도 모임의 활성화와 같은 역동성을 지닌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구체적 사례를 근거로 하여, 역동성의 회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며, 모이는 일을 일으키기 위한 시작점으로서의 ‘절기 사역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 교회의 정체 및 감소 현상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겠지만, 본 연구는 그 중 한 가지인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것’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의 절기 사역의 이해와 적용에 중점을 둘 것이다. 한국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성경적 원리를 교회 내에서 목회적으로 적용하여 절기를 이용한 절기중심사역이 활성화될 때 교회 성장의

9) 이진우,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 크리스찬 신문사, 2002), 24.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국 교회의 절기인 ‘송구영신예배,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어느 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며, 이 날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역들이 교회 성장의 정체 및 감소 현상을 극복하게 하는 원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 신도교회는 교회 성장의 정체 및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모이기에 힘쓰는 절기중심사역을 행하여 왔고, 그 사역을 통해 교회 성장을 가져왔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 및 감소 현상을 극복하고 사역의 선순환을 통해 교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인 ‘절기중심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각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2. 범위와 한계

본 연구의 범위는 신도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절기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성경에 나타난 절기가 ‘모이게 하는 날’이라는 것으로 착안하여 교회 성장에 대한 대안으로, 세계와 한국교회사에서 나타난 절기중심사역의 각종 서적, 정기 간행물과 연구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교회의 성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절기중심사역의 모델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서울 신도교회의 절기중심사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서울 신도교회의 성장을 위해 절기중심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교회에서 절기중심사역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과정과 절기중심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각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절기중심사역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본 논문이 정하는 한계다.

## 3. 이론적 근거

절기중심사역을 통한 부흥 성장이 아무리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면 그 부흥과 성장의 열매는 분명 오래가지 못하고 변질되고 말 것이다. 또한 목회 현장에서 성경이 해석, 적용되는 양상은 반드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신학적 근거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중심사역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성경적,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경적 근거를 다룰 때, 먼저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간략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함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약의 많은 본문에서 이 절기들의 기원과 규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켰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특별히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각 주제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문을 다룰 것이다.

첫째로, 절기의 정의와 관련하여 레위기 23:2의 ‘모에드’(מועד), 출애굽기 23:14의 ‘카가그’(קָגָג), 34:23의 ‘라아’(לֵאָא)의 의미를 각각 비교할 것이다. 또한 절기의 성격과 관련하여 레위기 23:2의 ‘성회’(미크라에 코테쉬 קָוֶשֶׁת־מִקְרָאֵי)의 의미를 밝히고, 이를 통해 구약 시대의 절기가 가진 의미를 밝힐 것이다.

둘째로, 유월절과 관련해서는 출애굽기 12장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절기의 기원을 다루고, 출애굽기 12장과 신명기 16장에 등장하는 유월절의 명칭 세 가지, 즉 유월절, 무교절, 아빕월의 의미를 분석한 뒤, 레위기 23장에 나타난 규례들을 주해함으로써 유월절의 의미를 도출할 것이다.

셋째로, 칠칠절과 관련해서는 먼저 칠칠절의 명칭으로 사용된 ‘샤브오트’(שַׁבּוּעוֹת)(출 34:22), ‘욘 하비쿠림’(יּוֹם הַבְּכוּרִים)(민 28:26), 그리고 ‘하그 하카치르’(חַג הַקָּצִיר)(출 23:16)의 용례를 먼저 분석한 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칠칠절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신약 시대에 나타난 칠칠절과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 절기의 의미를 논증할 것이다.

넷째로, 초막절과 관련해서는 먼저 초막절의 명칭으로 사용된 ‘하그 하숙퀴트’(חַג הַסֻּכּוֹת), ‘하그 하아십’(חַג הָאֶשֶׁר), ‘세트 핫샤나’(צֵאת הַשָּׁנָה) 그리고 ‘테쿠파트 핫샤나’(תְּקופַת הַשָּׁנָה)의 용례를 살펴본 뒤, 구약 시대에 초막절이 지닌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그 실례를 분석할 것이다.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적으로 절기를 따로 지킬 것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예수께서 지키신

절기나 그 후 초기 교회가 지킨 절기는 모두가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이다.<sup>10</sup> 신약에서 절기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갈 4:10)라 말하며 갈라디아 교인들 일부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구원을 유대인들의 안식일 절기준수와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책망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골 2:16)의 명령을 통해 형식적 절기 준수가 더 이상 구원의 필요조건이 되지 않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절기는 구원받는 전제조건이 아니며,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유지시키는 유익한 제도이다.<sup>11</sup>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절기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모이는 것’이 신약의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집중하려고 한다.

사도행전 2:43~47를 통해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양상 중 ‘매일 모이기에 힘씀’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으로 선순환되는 ‘선순환의 원리’를 도출해보고,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모이는 것’이 가지는 역할을 부여할 것이다. 이에 대해 권혁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p>12</sup>

신앙 안에서의 삶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신앙’을 ‘생활’과 연계시키는 것은 신앙이 일반생활과 별도로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것이 평생 동안 지속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생활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감’을 뜻한다. 곧 신앙이란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일상적 삶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신앙을 삶의 주기와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이다.

연구자는 상술한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 근거를 통해 절기사역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10) 권혁승, “이스라엘 절기로 보는 교회력 이해,” 『교육교회』, 3권 (2014): 16.

11) Ibid., 19-20.

12) Ibid., 14.

영향을 연구할 것이다. 절기 사역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를 고찰함에 있어, 이성훈은 “기독교 교회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및 죽으심과 부활, 성령강림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해마다 새롭게 다짐하고 그 뜻을 전하려는 데서 기원이 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원이 유대인의 절기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점은 이스라엘 절기와 교회력과의 공통점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근거한 절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은혜를 되새기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sup>13</sup>

그러므로 연구자는 구약 절기의 현재적 전승이라 할 수 있는 교회력을 바탕으로 한 교회 사역들의 나아갈 방향들을 연구할 것이며,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교회 성장학에 대한 여러 사례를 통해 교회 성장과 역동성과의 상관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절기사역 중심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함을 밝히려고 한다. 교회 성장의 여러 부정적 사례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의 여러 측면들이 개인과 교회, 지역 공동체를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부분들도 교회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한다. 교회의 역동성을 단순히 숫자상의 증가로써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교회 성장의 역동성이 지역과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친 사례들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밝힘으로서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 4. 연구방법론

본 연구를 위해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지금까지 절기 사역을 실천해 온 교회들의 실제 사례들을 분석한 후, 연구자가 실행하였던 서울 신도교회 절기사역에 참여한 자들을 대상으로 절기중심사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검토한 뒤에 이를 보다 발전시킨 절기 사역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 범위와 한계,

13) 이성훈, “이스라엘의 절기는 기독교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말씀」, 2007년 12월, 171.

성경적/신학적 근거,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서술한다. 2장에서는 절기중심사역이 성경에 근거한 사역임을 입증할 것이다. 먼저 일반적인 절기에 대한 정의를 통해 절기의 개념을 살펴보고, 절기의 성경적 기초와 성경에서 절기의 근거와 절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신학적으로 교회 절기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교회력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교회의 절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성경적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교회의 절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절기중심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부흥과 성장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절기중심사역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서울 신도교회 절기중심사역의 사례를 통계학적 분석하여, 성장과 부흥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이것이 교회 부흥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한다. 5장에서는 4장의 설문 통계를 근거로 신도교회 절기중심사역을 통한 실천 가능한 전략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6장에서는 결론으로 절기중심사역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 5. 문헌 검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업화 과정과 함께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해왔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 점차 정체 및 감소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역사신학 교수인 오덕교는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교회는 진정 교회다울 때 성장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하고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며 지탄을 받게 된다.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가 침체일로를 걸으며 사회의 비난을 받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sup>14</sup>

교회 성장의 주체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지요, 정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14) 오덕교, “한국교회는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신학정론 22(2)』 (2004. 11), 291-3.

인정한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 모색할 때 우리는 다시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연구를 위한 문헌을 3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절기 사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문헌들과 교회 성장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문헌들이고, 두 번째는 절기중심사역을 통해 성장한 교회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한 문헌들이며,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동기를 제공해준, 한국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한 문헌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세 가지 분류에 맞게 구분하여 각 서적들을 소개하고 또한 그 자료들이 본 연구와 어떻게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분류는 본 논문의 성경적, 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문헌들로 절기와 절기 사역의 의미, 교회력의 의미와 역사, 또한 절기 사역의 지향점인 교회 성장에 대한 문헌들이다. 첫 번째 저서는 권혁승의 「구약 절기에 대한 유대교의 해석과 절기 준수」로서 구약의 절기의 의미, 현재까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 절기 준수를 통해 구현하려는 성도의 삶의 의미 등에 대한 논문이다. 이 책은 구약의 절기가 성경 문헌 안에서 사장된 풍습이 아닌, 현재 유대인들 안에서와 또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지켜지고, 지켜져야 하는 풍습인지를 드러내어 절기에 대한 실제적인 지평을 열어주는 책이라 하겠다.<sup>15</sup> 본서를 통해 연구자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에 대한 의미들을 확인하고, 절기가 현대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연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저서는 「NIV 적용주석」으로, 영어성경 중 NIV역본을 본문으로 하여 주해한 주석서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편에서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절기의 의미를 고찰하고 사도행전 편에서는 신약의 교회 설립의 양상과 의미를 절기의 의미와 연결시키고 있다. 본 연구자는 본서를 통해 성경적 절기사역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받았다.

---

15) 권혁승, “구약 절기에 대한 유대교의 해석과 절기 준수,” (서울: 두란노서원), 2012년 1월, 5-72.

세 번째 저서는 피터 와그너(C. Peter Wagner)의 「교회성장원리」이다. 본서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와 성장하는 이유를 성경적이며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 들면서 교회 건강을 위한 7가지 지침을 제시한다.<sup>16</sup> 특히 2장에서는 ‘교회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성장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었다. 본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성장의 원리를 통해 연구자는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발견하고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네 번째 저서는 엘머 타운즈(Elmer L. Towns) 외 4인 공저인 「교회성장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본서는 교회성장학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와 역동성을 가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를 키워내길 원하는 모든 목회자와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 특별히 5장 갱신주의적 관점을 쓴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교회성장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역동적 공동체로서 교회를 회복하라는 성경의 비전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7</sup> 본서는 연구자가 21세기 교회성장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된 귀한 자료이다.

이외에도 절기와 관련된 성경적, 신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고든 웬햄(Gordon J. Wenham)의 「NICOT 레위기」, 조석민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구약 절기와 요한의 신학」, 미치 글라스터(Mitch Glasev)의 「레위기의 3대 절기」 등의 문헌을 참조하였다. 교회력과 관련하여는 정장복의 「교회력과 성서일과」, 정일웅의 「기독교 예배학 개론」, 에드워드 혼(Edward T. Horn)의 「교회력」 등의 문헌을 참조하였다. 교회 성장의 이론적 근거를 위해서는 알렌 티펫(Alan R. Tippett)의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 폴 포웰(Paul W. Powell)의 「교회성장의 실제와 사례」, 톰 S. 레이너(Thom S. Rainer)의 「교회성장교과서」 등의 문헌이 도움을 주었다.

16) George W. Peters, 「교회성장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8), 70.

17) Elmer L. Towns 외 4인, 「교회성장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김석원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1987), 275.

두 번째 분류를 소개하면 절기중심사역을 통해 성장한 교회들의 사례에 대한 책들로, 첫 번째 저서는 양병무의 「감자탕교회이야기」이다. 본서는 절기헌금 전액을 구제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광염교회의 사역을 소개한다. 광염교회의 조현삼 목사는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던 중 절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구절에 등장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라는 말씀에서 ‘함께’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었다. 불우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나서 곧 바로 실천에 옮긴 것이다.<sup>18</sup>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절기헌금을 구제비로 집행한다”고 선포하며 구제를 제도화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집 세우기다. 이 일은 절기가 되면 정성껏 모아진 헌금으로 매년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 즉흥적인 행사가 아니라 절기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만든 것이다. 물론 이 원칙을 집행하는 방법 역시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징적 절기사역을 통해서 개척교회로 시작하여 지금은 1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은혜를 맛보고 있다. 연구자는 본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경적 절기사역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저서는 정필도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이다. 본서는 수영로교회의 생명 전달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알려준다. 본서는 수영로교회의 1대 목사인 정필도 목사의 목회철학인 ‘영혼구원’이 개척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 목회철학인 ‘영혼구원’이 발전하여 생명 전달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연구자는 본서를 통해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바뀔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저서는 이상만의 「충동원 집중전도(오이코스 절기축제로 살린다)」이다. 본서는 교회 절기사역을 기독교 최고의 축제인 ‘3대 절기’와 지상 최고의 명령인 ‘전도 명령’과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을 서로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다. 저자는 디즈니랜드를 예로 교회 절기사역을 테마 축제로 잘 연결해 내면서, “테마 축제는

18) 양병무, 「감자탕교회이야기」 (서울: 김영사, 2003), 90.

사회에 침투하여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테마 축제는 교회의 생명과 순결함(거룩함)위에 교회의 즐거움도 선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며, 교회가 건강해야 세상이 행복하고, 교회는 이런 ‘질 높은 행복’을 세상에서 선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9</sup> 그래서 각각의 교회의 4대 명절(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를 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절기사역으로 연결하여 진행할수 있는 알려주는 잘 알려준다. 위에서 언급한 저서들 외에도, 지구촌교회가 만들어낸 「지구촌교회 사역메뉴얼」, 정기 간행물, 사진, 논문집 등이 활용될 것이다.

마지막 분류는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 관한 책들로, 첫 번째 저서는 권성수, 양참상, 이만열 공저의 「3인 3색 교회성장 진단과 전망」이다. 본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3인의 석학들의 한국교회를 향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한국교회의 현실을 신학적, 사회학적, 교회사적으로 재점검하고,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저서는 최윤식의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이다. 본서는 아시아와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의 저술로서 10년 후 한국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였다. 저자는 ‘한국 교회, 잔치는 끝났다’며 다가올 10년 한국 교회가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시대가 몰려올 것을 기술하면서 벼랑 끝에 선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sup>20</sup> 또한 교회와 교인의 미래를 둘러싼 거시적 힘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지나면서 기업과 국가의 운명도 바뀔 것임을 예측하는 반면, 교회와 교인들의 미래도 위태로울 것을 말한다.<sup>21</sup> 저자는 구체적인 도표와 데이터로 근거를 밝히면서 이러한 미래 환경 속에서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본서를 통해 한국교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이러한 한국교회의 미래에 어떤

19) 이상만, 「총동원 집중전도, 오이코스 절기 축제로 살린다」(서울: 기독교신문사, 2002), 26.

20)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39-47.

21) Ibid., 115-65.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하려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구약에서 절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본문 중 레위기 23장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레위기 23장은 안식일과 더불어 이른바 ‘3대 절기’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다. 레 23:2에서는 이 절기들을 ‘여호와와 절기’(מִצְוַת יְהוָה)로 언급함으로써 이 절기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생활 양식 안에서의 축제 문화를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만나는 장인 동시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방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절기’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절기’(모에드 מצות)라는 단어의 기본적 의미를 창세기 1:14를 통해 설명하였고, 출애굽기 33:7, 민수기 12:4, 신명기 31:14를 통해 그 의미를 보다 확장하였다. 또한 절기를 지키는 양상과 관련하여는 출애굽기 23:14와 34:23을 비교하였으며, 절기에 일어나는 행사를 설명하기 위해 출애굽기 12:16, 느헤미야 8:8과 이사야 1:13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 분석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관련된 성구를 간략히 소개한다. 먼저 유월절에 대해 출애굽기 12장의 본문을 분석하고, 특별히 절기의 명칭과 관련하여 신명기 16장의 내용을 언급할 것이다. 또한 절기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시켜 드러내는 본문으로써 요한복음을 선택하여 요한복음 6:4, 14, 48~58, 12:1~8, 19:14, 29을 분석할 것이다.

칠칠절에 대해서는 레위기 23:15~22, 민수기 28:26~31, 신명기 16:9~12를 통해 절기에 대한 개관 및 명칭에 관해 설명하고, 절기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출애굽기 19장과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비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레위기 23:34~43, 출애굽기 23:16, 34:22, 사사기 21:19, 신명기 31:10~11, 느헤미야 8:18을 통해 절기에 대한 개관 및 명칭, 그리고 절기가 지켜진 양상에 관해 설명하고, 예수님의 사역과의 연관성 설명을 위해 요한복음 7장의 본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약에서는 절기 사역의 중요한 역할인 ‘역동성 회복’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행전 2:43~47의 분석을 통해 ‘선순환의 원리’를 도출할 것이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를 신약 시대에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게 되면서, 절기 사역은 절기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현대적으로 살려내어 교회 성장을 위한 사역의 성경적, 신학적 기반으로 삼는 것에 그 중요성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의 분석은 ‘선순환의 원리’의 요소 중 ‘모이는 것’이 차지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절기를 이용한 절기사역이 현재 침체되어가는 한국교회의 성장방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교회의 특징적 절기사역을 통하여 교회의 역동성이 회복되어짐으로 부흥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한국 교회에서 모이게 하는 특징적 절기사역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을 연구하여 특징적 절기사역이 곧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밝힐 것이다. 또한 연구자가 그 동안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신도교회의 모이기에 힘쓰는 절기사역을 분석하여 오늘날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각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절기중심사역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장

### 절기 사역의 이론적 근거

#### 1. 절기에 대한 이해

한국교회는 역동성의 상실로 인해 침체 일로에 있다. 이러한 침체된 한국교회에 역동성을 통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성경적인 절기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지켜오는 절기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생활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장 좋은 생활방법을 정한 기간들이다. 때문에, 절기에는 삶의 본질적인 뜻이 담겨있다.<sup>22</sup> 그러므로 연구자는 구약시대로부터 이어져온 절기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절기사역을 통해 교회성장의 정체 및 감소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 1) 절기에 대한 정의

‘절기’란 종교상의 축제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해진 날을 말한다.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것이었다. 레위기 23장의 서론 부분인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모에드 מועד)에 대한 주제를 소개한다. ‘절기’라는 뜻의 히브리어 ‘모에드’(מועד)는 일차적으로는 ‘정해진 시간(appointed time)’이라는 뜻으로서, ‘정하다’ 또는 ‘고정시키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야아드’(יָאָד)에서 유래되었다.<sup>23</sup> ‘모에드’는 창세기 1:14에 처음 등장하는데, 특히 여기서의 의미는 ‘신성한 계절’(sacred season)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광명체들’로 말씀하신 해와 달, 별들의 순환을 통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모든 시간과 계절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22) 김진홍, 「여호와의 절기」(서울: 두레마을, 1996), 7.

23)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4150.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대백과사전」에서는 ‘모에드’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이스라엘의 국가적, 종교적 기념일들’로 이스라엘에서 공동적으로 기념되었던 모든 특별한 기간, 혹은 ‘지정된 축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up>24</sup>

‘모에드’라는 명사에서 주목할만한 또 하나의 의미는 출애굽기 33:7, 민수기 12:4, 신명기 31:14 등에서 사용된 ‘אֶהֱלֵ מוֹעֵד tent of meeting’의 용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어원이 되는 동사 야아드(יָאָד)의 니팔(Niph'al)형에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시는 ‘신성한 장소’로서의 뜻을 지닌다.<sup>25</sup>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의 사용을 통해 그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함께 지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 것에 관련하여 비교할 두 본문은 출애굽기 23:14와 34:23이다. 전자의 시간적 배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 첫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로서, ‘절기를 지키다’라는 동사 ‘하가그’(חָגַג)를 특별한 주어없이 Qal-2인칭 미완료 남성단수형(חָגַגְתָּ)으로 사용하여 그 행위 주체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단순화하였을 뿐 아니라 전체의 내용 또한 매우 간략하다(“너는 일 년에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חָגַגְתָּ לִּי שְׁלֹשָׁה מִלְּבָרָה). 여기에서 동사‘하가그’(חָגַג)는 ‘순례 여행을 하다’의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안정적인 자기 삶의 자리를 벗어나 순례자의 삶으로 되돌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다.<sup>26</sup> 따라서 구약 시대에서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나그네 된 자’, ‘하나님 나라에 분향을 둔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서로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범죄를 저지른 이후,

24) 「기독교 대백과사전」, 제13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4), 827.

25)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4150.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 접속.

26)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2287.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 접속.

하나님께는 모세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출 34:23)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행동 양식을 지정하신다. 먼저 주어는 “너희의 모든 남자”(כָּל־אֲנָשִׁיךָ)로 특정되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자쿠르’(זָכָר)라는 단어가 단순히 ‘남자’(male)라는 뜻만이 아닌 ‘남자인 어린이들’(men-children)이라는 의미의 집단명사로 사용된 용례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너희의 모든 남자’라는 표현은 당시 보편적으로 ‘남자’가 지칭하는 대상이었던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성’의 범주가 아닌, ‘어린이를 포함하는 모든 남자’로 해석할 수 있다.<sup>27</sup>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의 목적 중에 후세를 위한 ‘교육’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유추해낼 수 있다. 또한 동사는 ‘하가그’(הִגַּד)에서 ‘보다’라는 뜻의 ‘라이’(רָא)로 바뀌게 되는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Niph`al-3인칭 남성단수형으로 사용되어 ‘자신을 나타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sup>28</sup>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절기를 위한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신 것은 절기가 단순히 이방인들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내는 축제가 아닌,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목적을 지닌 행사임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장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절기에 일어나는 대표적 행사로는 2절에 언급된 ‘성회’(미크라에 코데쉬 מִקְרָאֵי קֹדֶשׁ)를 들 수 있다. ‘회’라는 단어(미크라 מִקְרָא)는 구약성경에서 23번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2:16에서 2회, 레위기 23장에서 11회, 민수기에서 7회, 그리고 느헤미야 8:8과 이사야 1:13, 4:5에 등장한다. 이 중 모세오경에서 사용된 의미는 모두 ‘제물을 드리는 제사(holy convocation)’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후 이사야 시대에서는 (특히 1:13에서 단독으로 쓰여) ‘회중에 대한 소집’(the calling of assemblies)의 의미로, 또한 느헤미야 시대에서는 정관사와 함께 쓰여 ‘낭독’(the reading)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sup>29</sup> 이를 통해, 구약시대 전반을 걸쳐 절기에 일어났던 성회는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동시에 이스라엘

27)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2138.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28)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7200.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29)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6944.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공동체 내에서 국지적, 지역적 모임이 아닌 이스라엘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후에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회중들에 의해 이해되도록 하는 말씀 선포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매년 일정한 기일에 절기들을 지키도록 되어있었다. 레위기 23장에 집약되어있는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갱신하시는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 즉 언약 백성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엄숙한 과정이 되기도 하였다.<sup>30</sup> 레위기 23장에 나타난 절기는 크게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눌 수 있으며 봄절기로는 유월절과 무교절(5~14절), 칠칠절(15~22절)이 있고 가을 절기로는 엄숙한 안식일과 속죄일(23~32절), 그리고 초막절(34~43절)이 있다.<sup>31</sup> 이 중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이른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불리는 것으로, 본 장에서 각각 이들의 의미를 본문 주해를 통해 밝힐 것이다.

## 2) 성경에 나타난 절기

### (1) 구약에 나타난 절기

#### i) 유월절(무교절, 아빏월)

성경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그 연원과 예식의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본문은 출애굽기 12~13장일 것이다. 레위기 23장에는 유월절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세히 언급되어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를 위해 신명기 16:1~8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시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출애굽기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첫 시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동시에 가나안 정복 이후에 어떻게 그 절기를 지킬 것인가를 상세히 풀어놓고 있다. 따라서 본문을 주해함과

30) 권혁승, “구약 절기에 대한 유대교의 해석과 절기 준수,” 「그말씀」, 2012년 1월, 29.

31) Gordon J. Wenham, 「NICOT 레위기」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4), 341.

더불어 그 역사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i) 절기의 기원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기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기를 거절하는 바로에 맞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으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멧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 것(출 11:5)이었다. 이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달을 그들의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고,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며, 그 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에 태워야 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다(출 12:2~11). 또한 바로 뒤이어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그 첫날에 누룩을 집에서 제하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며,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 것으로 무교절의 규례를 지켜야 했다(출 12:15~16).

(ii) 절기의 명칭

출애굽기 12장에 소개된 절기의 명칭은 다음 세 가지다. 이들 세 명칭은 각각 나름대로 유월절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준다.

첫째, 유월절이다.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פֶּסַח, 11절)인데 ‘넘어가다, 뛰어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과사흐’(קִסַּח)에서 유래하였다.<sup>32</sup> 이것은 이집트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과 관련된다. Englishman's Hebrew Concordance에 따르면 이 단어는 구약에서 총 49번 등장하는데, 46번은 ‘유월절’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특별히 대하 35:7~9에 걸쳐서는 세 번에 이르러 ‘유월절 제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Brown-Driver-Briggs사전에 의하면 후에 이 단어는 화목제의 의미를 지닌 - 신약에서의 ‘성찬’을 포함하는 - 유월절 제사로(출 12:27, 신 16:2, 대하 30:18), 특히 유월절에 드려지는 동물 제물로(출 12:21, 스 6:20, 대하 35:13), 또한 유월절 축제 자체를 나타내는 말(출 34:25, 레 23:5, 민 28:16, 수 5:11)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sup>33</sup>

둘째는 무교절이다. 이는 히브리어로 ‘맛싸우’(מַצֹּת)인데, ‘말리다, 제거하다’라는 뜻의 ‘마싸츠’(מָצַץ)라는 동사에서 유래한다.<sup>34</sup> 구약에서 53번 등장하는 이 단어는 모두 ‘누룩이 없는’ 혹은 ‘누룩을 제거한 떡’이라는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되며,<sup>35</sup> 따라서 후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나 과자를 먹지 않는 유월절 규례에서 이어지는 절기인 무교절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되었다. 특히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19:3을 보면 무교병은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으로 쓰였고, 신명기 16:3에서는 특별히 무교병을 가리켜 ‘급하게 먹는 고난의 떡’(לֶחֶם עֲנָוָה)으로 표현함으로써 ‘고난’과 ‘긴급함’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절기의 첫날인 14일 하루는 양이나 염소를 잡는 유월절로 지켰고, 나머지 7일간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켰다. 이것은 두 절기가 어느 계기에 하나로 결합되었음을 암시하지만, 이 두 명칭은 큰 불편이 없이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명절로 자리

32)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6452.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33)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6453.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34)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4711.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35)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4682.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잡게 되었다.<sup>36</sup> 신약성경에서는 이 두 명칭은 엄격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데, 마 26:17(“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막 14:1(“이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눅 22:1(“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등이 그 예이다.

셋째, 아빍월이다. 신명기 16장은 유월절을 아빍월과 밀접히 관련시킨다. 아빍월은 유대력의 첫 달로서 지금의 3~4월경이다. 히브리어 ‘아빍’의 어원적 의미는 ‘곡식의 어린 이삭’을 뜻하는 것으로서<sup>37</sup> 이런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봄’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런 점과 관련하여 유월절은 ‘하그-하 아빍’(חג־האביב), 곧 ‘아빍월의 절기’라고 불렸다. 이것은 유월절의 시기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는 봄철에 지켜지며, 그것은 또한 1년의 시작임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sup>38</sup>

### (iii) 절기의 의미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유월절을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 중요하게 묘사하고 있다. 요한복음에 유월절(파스카, *πάσχα*)라는 단어는 총 열 번 등장한다.<sup>39</sup>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요한복음 2:13에서는 유월절을 알지 못하는 요한복음의 독자들을 위해 유월절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2:23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었기에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 언급된 부분은 요한복음 6장인데, 이 본문에서 유월절은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표적 사건과 연결하여 언급된다. 이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베푸신

36) 권혁승, “구약 절기에 대한 유대교의 해석과 절기 준수,” 「그말씀」, 2012년 1월, 16-7.

37)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24.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 접속.

38) 권혁승, “구약 절기에 대한 유대교의 해석과 절기 준수,” 「그말씀」, 2012년 1월, 17.

39)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greek/3957.htm>, THAYER'S GREEK LEXICON,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2011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6일 접속.

예수님의 정체성과 유월절을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유월절’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곳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곳이 공관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요한복음 6:14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기록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18에서 언급된 “너와 같은 선지자”와 동일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반응 이후 요한복음 6:48~58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맞물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이라고 소개한 것을 상기시킨다. George R. Beasley-Murray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월절이 가까움에 대한 진술(4절), 예수와 오실 선지자와의 동일시(참조. 신 18:15), 또 그 강화 안에 있는 하늘에서 내리는 떡에 대한 토의(31~33절) 등은 급식 이적이 제2의 출애굽 소망의 성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결합된다. 이것은 그 사건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 잔치의 축하로써 간주하는 견해와 어울린다(사 25: 6~9). 따라서 그 표적의 종말론적 의미가 이중으로 강조되는데, 그 종말론적 의미는 그 표적과 주의 만찬과의 근본 관련 중의 일부이다. 즉 주의 만찬 역시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닌다(참조. 특히 눅 22: 16, 18, 20, 29-30: 본 강화 내에서는 39, 40절, 그리고 특별히 54절).<sup>40</sup>

또한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등장한다. 요한복음 12:1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라고 설명한다.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12:3),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가리켜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리아의 행위를 당신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신다. 요한은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40) George R. Beasley-Murray, *John 1~21, Word Biblical Commentary*, 이덕신 역 (서울: 솔로몬, 2012), 254.

행보를 유월절과 연계해서 해석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sup>41</sup>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함과 동시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언급함으로써 유월절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감하게 하는 문학적 장치도 동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42</sup>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시며 맞이하는 죽음은 유월절의 어린양 도살과 연결되며,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암시한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sup>43</sup>

## ii) 칠칠절(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레위기 23장은 칠칠절에 대한 설명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성경 본문이다. 출애굽기 23:16과 34:22에서는 ‘맥추의 초실절’로서 칠칠절이 간략하게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제사의 양식과 절기의 의미는 레위기 23:15~22에 종합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민수기 28:26~31에서는 제물의 종류와 규모를, 신명기 16:9~12에서는 절기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규범을 설명함으로써 레위기 본문에 대한 중요한 주석이 되고 있다.

## (i) 절기의 명칭

성경에 나오는 칠칠절의 명칭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칠칠절이다. 출애굽기 34:22에 처음 나타나는 ‘칠칠절’은 히브리어로 ‘샤브오트’(חַבּוֹט)인데 주로 (7일로 이뤄지는) ‘주’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 ‘샤부아’(שַׁבּוּא)의 복수형이다.<sup>44</sup> 레

41) 강병도 편, 「카리스 종합주석」(서울: 기독교회사, 2003), 393.

42) Ibid., 394.

43) 조석민, “요한복음에 나타난 구약 절기와 요한의 신학,” 「그말씀」, 2012년 1월, 57.

44)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7620.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6일접속.

23:15의 내용, 즉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의 내용과 연관시킨다면 출애굽기 본문에서의 ‘샤브오트’는 7주간으로 이해되는 것이 옳다. 이와 관련하여 신약에서는 ‘오순절’(펜테코스테, *πεντηκοστή* 행 2:1)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데, 유월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이라 하여 숫자 5를 의미하는 헬라이어 ‘펜테’(πέντε)에서 유래된 명사를 사용하고 있다.<sup>45</sup>

둘째는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날’(히, *יום הבכורים*)로서 민수기 28:26에 그 표현이 나타난다. 주목할 것은 레위기 23:16과 민수기 28:26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새 소제’(히, *מִנְחַת הַבְּכֹרִים*)라는 표현이다. 레위기 본문에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민수기 본문과의 연관성을 살펴본다면 ‘새 소제’는 ‘처음 익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의미로, 새로운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레위기 23:17에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을 드려야 한다는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칠칠절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추수는 밀의 추수일 것이다.

셋째, 맥추절이다. 한글 성경에서 ‘맥추절’(麥秋節)로 번역되어 일견 ‘보리를 거두는 절기’로 해석하기 쉬운 이 명칭은 출애굽기 23:16에 나오는 ‘하그 하카치르’(חַגְּ הַקָּצִיר)를 번역한 것이다. ‘카치르’(קָצִיר)는 ‘추수’라는 뜻으로 수확하는 작물의 종류와는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추수의) ‘과정’,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특별히 정관사와 함께 쓰인 ‘하 카치르’(חַגְּ הַקָּצִיר)는 구약 성경에 세 번 등장하는데 출애굽기와 예레미야 51:33에서는 ‘추수’로, 룻기 2:21에서는 ‘나의 추수’라는 의미로 사용된다.<sup>46</sup>

## (ii) 절기의 의미

칠칠절과 관련된 역사적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 산 도착 시기를 ‘제3월’(바호데스

45)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greek/4005.htm>, HELPS Word-studies. copyright © 1987, 2011 by Helps Ministries, Inc., 2017년 10월 16일접속.

46)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7105.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6일접속.

하셀뤼쉬 בְּחֹדֶשׁ הַשְּׁלִישִׁי, 출 19:1)이라고 언급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곧 유월절에서 시작되어 50일째가 되는 칠칠절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도착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권혁승은 칠칠절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런 점은 오경의 세부적 조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랍비들에게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로 부각되었다. 더구나 시내 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공식적인 언약 체결이 이루어진 곳이었으며, 그 언약은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오순절에 관련된 명칭인 ‘나탄 토라’(הַתּוֹרָה), 곧 ‘율법 수여’가 생겨났다.<sup>47</sup>

출애굽기 19장부터 나타난 사건은 위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칠칠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5~6절)는 언약이 선포된 시기이다. 이 언약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8절)라고 응답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정결케 할 것(10, 22절)과 경계를 정하여 넘어오지 않을 것(12, 21, 24절)을 명하신 후에 20장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구체적인 율법들을 부여하신다. 이 율법 부여의 첫 장면은 출애굽기 23장에서 끝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23장의 후반부(20~33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며, 그를 통해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갈 것인가와 관련된 언약들을 언급한다. 이를 통해 율법의 수여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 제시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사실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로 언급된 칠칠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과 이를 통한 신약 교회의 탄생이라는 사건을 통해 나타난다.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2:1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

47) 권혁승, “구약 절기에 대한 유대교의 해석과 절기 준수,” 「그말씀」, 2012년 1월, 22.

본문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 14:16)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 강림으로 실현되고,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력이 점점 커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 1:4)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분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오순절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륜의 때였음을 의미한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곧 신약 교회의 탄생으로 나타났는데,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심한 사람의 숫자가 삼천 명에 이르렀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포함되었다. 권혁승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이것은 신약 교회가 오순절의 역사적 의미인 시내산 계시와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 공동체 형성과 신학적으로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율법과 시내 산 계약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이라면, 성령 강림은 신약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 사건이었다. 또한 오순절의 명칭인 ‘맥추절’ 혹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의미하는 것처럼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의 결과로 이 땅에 태어난 영적 열매들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성령 강림이 있었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주일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내용이다. 결국 주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날이었다.<sup>48</sup>

### iii) 초막절(수장절,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이 봄 절기였다면, 초막절은 가을 절기이다. 레위기 23장 23~43에서는 가을 절기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나팔절이라고도 불리는 엄숙한 안식일과 속죄일, 초막절로 이뤄진 이 가을 절기들은 ‘일곱째 달’(호테스 하셔비 חֹדֶשׁ הַשְּׁבִיעִי)의 첫날부터 약 3주 간에 걸쳐 이어진다. 일곱째 달이 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건조하고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따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기를 고대하기 시작한다. 이스라엘에서 가을은 가뭄의 계절이었다. 봄 이후로는 풍족한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다른 상징 체계를 끌어들이었는데 그것은 곧 물을 위한 기도였다. 그것은 물을 통해

48) Ibid., 25-6.

농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비는 기도였다. 사실 초막절 기간동안 비가 내리는 것은 다음 해를 위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징표로 여겨졌다.<sup>49</sup> 따라서 일곱째 달은 일 년 농사가 끝나고 새 농사가 시작되는 달인 동시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시기였다.<sup>50</sup>

바벨론 포로 이후로 초막절은 언약 갱신이라는 성격과 더불어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sup>51</sup> 초막절 역시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풍습들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 중 물 붓기 의식은 제2성전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졌던 중요한 초막절 행사였다. 이것은 다가오는 새해에 많은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일종의 기우제였다. 이 의식은 초막절 기간 중 매일 제사장이 큰 금잔을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 물을 길어 제단 주변에 붓는 것으로 진행되었다.<sup>52</sup> 또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그동안 매일 거행되었던 물 붓기 의식이 종결되는 날이면서 탈무드 이후 시대부터 시행된 ‘심하 토라’ 의식이 있는 날이었다. ‘토라를 즐거워함’을 의미하는 ‘심하 토라’는 회당에서 매년 한 차례씩 완독되는 토라 읽기의 마지막 부분이 종결되면서 새로운 시작 부분이 읽히는 의식이다. 토라 읽기를 마친 다음 전체 회중은 회당에 보관된 오경 두루마리 사본을 꺼내 들고 회당 안과 밖에서 원형을 그리며 다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춘다. 이것은 토라를 완독한 것에 대한 자축과 더불어 토라를 사랑한다는 고백의 풍습이기도 하였다.<sup>53</sup>

민수기 29장에는 일곱째 달에 있는 모든 절기에 바치는 특별한 제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의 경우는 초막절 행사가 치러지는 8일에 걸쳐 매일 드려야 하는 제물의 종류와 양을 동일하게 반복되는 형식으로 기록해두었다(민 29:12~38). 이는 초막절에

49) Gary M. Burge, 「요한복음」, 「NIV적용주석」, 김병국 역 (서울: 솔로몬, 2010), 286.

50) Gordon J. Wenham, 「NICOT 레위기」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4), 345.

51) 권혁승, “구약 절기에 대한 유대교의 해석과 절기 준수,” 「그말씀」, 2012년 1월, 27.

52) Ibid., 28.

53) Ibid., 29.

대해 레위기 본문에 대한 중요한 주석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과 비교하여 드러지는 제물의 규모로 봤을 때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다 마친 후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절기임을 알 수 있다.

신명기 16장에는 칠칠절과 초막절의 특별한 성격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11절과 14절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로, 첫번째는 칠칠절과 초막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당시 경제력의 기반이었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던 경제적 약자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누리야 한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이 명령의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 안에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공동체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첫번째 사실은 절기 - 특히 칠칠절과 초막절 - 의 행사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두번째 사실은 구약의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흐름을 아우르는 확장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i) 절기의 명칭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의 명칭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초막절이다. 레위기 23:34에 처음 나타나는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하그 핫수퀴트’(חַג הַסֻּכּוֹת), 즉 ‘초막의 절기’인데, 여기서 ‘초막’(tabernacles)으로 번역되는 ‘쑤카’(סֻכָּה)는 ‘덤불’이라는 뜻과 함께 ‘임시 거처’라는 의미를 지닌다.<sup>54</sup> 유대인 경전 미쉬나에 의하면 초막은 집안이나 나무 밑 같은 그늘진 곳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열린 장소에 지어야 했다. 특히 지붕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레 23:40)이나 짚 등으로 덮어 밤에 하늘의 별이나 달이 보여야 하며, 비가 올 경우 그 비가 새어 들어오도록 허술해야 했다.<sup>55</sup> 이러한 초막의 구조는 초막절의 규례가 가지는

54)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5521.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9일접속.

55) 권혁승, “구약 절기에 대한 유대교의 해석과 절기 준수,” 「그말씀」, 2012년 1월, 28.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다.

둘째는 ‘수장절’(히, 하그 하썩  $\text{הַגְּדוּלָה}$ ), 즉 ‘거뒀 모아 들이는 날’로서 출애굽기 23:16과 34:22에 그 표현이 나타난다. 특히 이 명칭이 나타나고 있는 출애굽기 본문은 초막절이 있는 일곱째 달을 ‘한 해의 끝’(세트 핫샤나  $\text{אַחַר הַשָּׁנָה}$ , 출 23:16) 또는 ‘그 해의 바뀔’(테쿠파트 핫샤나  $\text{אַחֲרֵי תְּקִיפַת הַשָּׁנָה}$ , 출 34:22)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의미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여호와의 절기이다. 레위기 23장은 본문에 소개된 모든 절기를 가리켜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고 있으나, 특별히 사사기 21:19에는 초막절을 특정하여 ‘여호와의 절기’(학야웨  $\text{הַיְהוָה־הַזֶּה}$ )라 부르고 있다. 이는 후대로 갈수록 초막절이 다른 두 절기에 비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모세 시대에도 초막절에 여호와의 율법이 낭독되었고(신 31:10~11), 포로기 이후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초막절에 동일한 행사를 실시하였다(느 8:18). 이것은 칠칠절이 ‘언약 부여’의 의미를 지닌 것과 대비되어 초막절이 ‘언약 갱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ii) 절기의 의미

레위기 23장 33~43절은 일반 백성과 관련하여 초막절의 중요한 특징을 다시 강조한다. 백성들은 한 주 동안 나뭇가지들로 만든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통해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초막에서 살아야 했는지를 다시 떠올리고, 지금 살고 있는 좋은 집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자신들의 소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된다.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초막절이 출애굽 구원과 관련된 신앙적 의미를 요약하자면 유월절이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칠칠절이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과 율법 수여를 기념하는

절기라면, 초막절은 가나안 입국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다.<sup>56</sup>

바벨론 포로기 시대는 선지자들의 예언 및 당시 고대 근동의 질서 재편에 근거하여 포로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된다는 소망이 팽배해 있었던 때로서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들인다는 초막절의 의미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자연스럽게 연관되었다. 스가라는 초막절과 관련된 예언을 한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슌 14:16, 18~19)라고 말하고 있다.

신약에서 초막절은 요한복음 7:2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에 단 한 번 등장한다. 요한복음 7장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초막절의 일련의 행사들을 ‘축제의 시작’(1~13절), ‘축제의 중간’(14~24절), 그리고 ‘축제의 큰 마지막 날’(37~52절)로 나누어 묘사하고 있으며, 이 때 사람들이 예수가 정말로 그들이 따라야 할 자인지를 결정해야 했을 때 예수에 대해 보인 일련의 ‘반응들’을 묘사해 주고 있다.<sup>57</sup> 이 중 초막절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장면은 ‘축제의 큰 마지막 날’이다. 초막절에 행해졌던 ‘물의 의식’은 풍성한 상징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셨던 것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의 바위로 된 제단으로부터 제사장들에 의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다시 기억하게 된다. 스가라와 에스겔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들의 환상을 보았다. 가뭄이 시작되는 가을에 생명을 주는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56) Ibid., 27.

57) Gary M. Burge, 「요한복음」, 「NIV적용주석」, 김병국 역 (서울: 솔로몬, 2010), 287.

있었을 것이다.<sup>58</sup>

이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37~38절)고 대중들 앞에서 외치신다. 이를 통해 예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물의 근원임과 동시에 성전을 대체할 자이심을 다시 한 번 밝히신다.<sup>59</sup> Gary M. Burge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바울이 예수를 바위와 동일시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전 10:4, 저자의 강조). 초막절에 예수는 자신이 단지 새로운 성전이자 생수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칠(struck) 경우 생명을 주는 물을 쏟아 내는 종말론적 바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십자가 위에서 (모세가 막대기로 바위를 쳤던 것처럼) 창으로 예수를 찔렀을(struck) 때 그의 “배”(belly)에서(요 7:38의 헬라어 κοιλία의 문자적 번역)피와 ‘물’이 나온 것은(요 19:34) 놀랄 일이 아니지 않는가?<sup>60</sup>

### (iii)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초막절

바벨론 포로 이후 초막절 절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는데, 그것은 초막절이 갖고 있는 언약 갱신이라는 성격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각성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 8장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그들의 고향 땅에서 벌이는 초막절 행사를 묘사하고 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는 초막절에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 줌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신앙 개혁을 시도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

58) Ibid., 295.

59) Ibid., 296.

60) Ibid., 297.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느 8:1~3) 이것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칠 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신 31:10~13)의 말씀이 약 천 년 뒤에 다시 이뤄지고 있는 사건이다.

이 초막절 성회에서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으며 레위인들이 말씀을 깨닫게 함(6~8절). 둘째, 말씀을 깨달은 후에 백성들 사이에 애통함이 일어남(8~9절). 셋째, 말씀을 밝히 안 후에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함(12절). 넷째, 큰 기쁨 가운데 초막절의 규례가 회복됨(13~18절).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초막절 절기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역동성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 세워진 신약의 교회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마 16:18~19)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세워진 것이었다. 처음에 이 신약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사도들의 전도와 활동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함께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같지 않은 종교 배경, 같지 않은 인종, 같지 않은 사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룬 특이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약 교회의 유대 교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때 버리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행해왔던 성전 제사 제도를 비롯한 종교 의식의 폐지를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제사 제도와 의식과 결례들은 그들 종교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것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유대 교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되어 제사 제도 의식의 희생제물의 원형과 실체이신 예수께서 실제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므로,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는 무가치한 일이 되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이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러 이루셨음이라”(히 7:27)라고 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있어, 오래전부터 율법의 문화와 가치관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던 ‘다른 복음’(갈 1:7)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아울러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가르침이었다. 그 율법의 내용 안에는 그들이 지켜왔던 절기와 제사 의식, 결례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골 2:16)고 경고한다.

이와 같은 꾸준한 노력들을 통해, 신약 교회 안에서는 점차 유대교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 안식일을 비롯한 여러 절기들을 전통적인 형태로 지켜내지는 않게 되었다. 그러나 절기 및 그와 관련된 규례들이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한층 더 역동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당시의 역사가요,

의사였던 누가는 그가 쓴 사도행전 2:43~47을 통해 신약 교회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양상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행 2:43~47의 문장 구조는 다음과 같다.

43절: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 / 기사와 표적의 발현

44~47a절: ‘믿는 사람들’의 구체적 행동 양식

47b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더하심<sup>61</sup>

특히 이 본문에서 교회의 역동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두번째 부분이다. 이 부분은 3인칭 남성복수형인 ‘모든 믿는 사람들’(πάντες δὲ οἱ πιστεύσαντες)을 주어로 하는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동사와 분사를 중심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44~45절: 모든 동사는 미완료 직설법 능동태 3인칭 복수형으로 쓰임

ἐπὶ τὸ αὐτὸ <καὶ> εἶχον , ἐπίπρασκον καὶ Διμερίζον .

동사                      동사              동사                      동사

함께 있어              가졌고 ,      팔아서                      나누었다 .

46~47a절: 동사는 미완료 직설법 능동태 3인칭 복수형, 분사는 현재분사

능동태주격남성복수형으로 쓰임

προσκατεροῦντες , κλῶντές , μετελάμβανον , αἰνοῦντες , ἔχοντες .

분사                      분사              동사                      분사              분사

힘쓰며                      때며 ,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가지니 .

61) 구문 분석을 위한 헬라이어 성경은 Nestle GNT 1904본을 사용하였다.

본문의 기록자인 누가는 향락과 쾌락을 좇는 생활이 당시 로마 사회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었던 데 반해, 신약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두 문장으로 설명한다. 먼저 44~45절에 기록된 문장은 ‘있다’(εἶμι), ‘가지다’(ἔχω), ‘팔다’(πιδράσκω), ‘나누다’(διαμερίζω)의 네 동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당시의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서 경제 공동체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묘사하는 문장이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4:32~37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헬라이어의 미완료 직설법은 과거의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는 바,<sup>62</sup> 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경제 공동체적 행위들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표현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행 4:33에서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건강하고 강력한 교회였다.<sup>63</sup>

두번째 문장인 46~47a절은 하나의 본동사를 중심으로 앞뒤로 두 개씩의 현재분사가 감싸고 있어 ‘음식을 먹는’ 행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닌, 역동성을 지닌 삶의 변화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앞의 두 분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단순한 회합이 아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이 매번 행해지는 현장이었음을 드러내며<sup>64</sup>, 뒤의 두 분사는 교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변화들을 묘사한다. 특이할만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음식을 먹다’(μετελάμβανον)라는 동사를 배치한 누가의 의도이다. 당시 로마 귀족들의 식사, 특히 저녁식사가 온갖 산해진미를 즐기기 위해 토할 때까지 먹고 즐기던<sup>65</sup>, 탐욕으로 가득한 식사였음을 볼 때, 식사 양식과 태도의 변화는 누가와 당시 로마 사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음이 분명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변화는 로마 사회 전반에 영향을

62) Ajith Fernando, 「사도행전」, 「NIV적용주석」(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1), 212.

63) Ibid., 215.

64) Ibid., 141-2.

65) Albert A. Bell Jr., 「신약 시대의 사회와 문화」(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356.

되는데,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사랑이 넘치고 형제애로서의 자비를 직접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터툴리안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식량을 나눠야 하고 부자들의 무례함과 비열함에 고통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달라진 저녁식사의 풍습을 이렇게 묘사하였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나 먹기 위해 누울 뿐이며, 배고픔에 상응하게 먹으며, 정숙한 사람이 마시는 것만큼 마시며,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 자가 누리는 것만큼 배를 채우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고 있는 자만큼만 이야기한다.”<sup>66</sup>

따라서, 이러한 본문 구조는 신약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던 동시에, 각각의 동사와 분사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순환을 이루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초대교회는 말씀 교육과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공동소유와 이웃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수평적관계 또한 바르게 정립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정립은 결국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자아내게 만들면서 교회를 부흥케 했다.<sup>67</sup> 영적 변화는 일상적 삶의 변화로 나타났고, 오순절의 열정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들의 이런 삶이 하나님께 찬송할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왔다. 이들의 신앙에 합류하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것인데 인간들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회개의 역사를 누가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7)고 분명하게 서술한다.<sup>68</sup>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됨으로서 신약 교회는 특유의 역동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로 설 수 있었고,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교회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다음에서 이 부분을 상세히 다룰 것이다.

66) Jérôme Carcopino, 「고대 로마의 일상생활: 제국 전성기」(서울: 우물이 있는 집, 2003), 459.

67) 김경진, 「성서주석-사도행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08.

68) 허주, 「사도행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3), 137.

### 3) 교회력에 나타난 절기

교회력의 근원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sup>69</sup>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수하도록 명령하신 구약의 절기들은 대부분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 동안 지킬 것을 성경에서 세밀히 밝히고 있다.<sup>70</sup> 이에 정창복은 이렇게 말한다:

교회력은 최근에 이르러 제어된 단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의 교회력은 구약의 유월절을 비롯한 각종 절기에서부터 그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 신약에 와서 이러한 절기는 그리스도교화되는 과정을 거쳤고, 이 절기들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역사는 발생되었다. 유월절에서 성만찬의 제정과 단번에 드리는 희생양으로서의 예수의 희생이라든가 오순절의 성령강림 등은 모두가 전통적인 절기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sup>71</sup>

이성훈은 “기독교 교회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및 죽으심과 부활, 성령강림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의 의미를 해마다 새롭게 다짐하고 그 뜻을 전하려는 데서 기원이 되었다. 이러한 기원이 유대인의 절기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점은 이스라엘 절기와 교회력과의 공통점이라고 본다”고 하였다.<sup>72</sup> 이처럼 이스라엘의 축제인 절기들은 현재 교회력으로 이어져 교회의 역동성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현대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 먼저 교회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교회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교회력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69) 이 교회력이 중세교회때 참뜻을 망쳐 버리는 오류를 범했고,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거의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 왔었다. 하지만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절기와 연관성을 가지는 교회력을 연구하는 것은 연구자가 논의하려는 절기사역에 유익하다.

70) 김은영, 「교회력과 성서일과」(서울: 학교교회음악학회, 2008. 5), 15.

71) 정창복, 「교회력과 성서일과」(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58-9.

72) 이성훈, 「새롭게 보는 이스라엘의 절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22.

### (1) 교회력의 정의

비전성경사전에서는 ‘교회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된 구원 역사를 1년 주기로 재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73</sup> 「기독교대백과사전」은 ‘Christian Year’를 교회력으로 번역하였고, “주의 날(Lord’s Day)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전체 드라마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74</sup>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력은 A.D. 4세기 말에 거의 완성된 것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과 믿음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sup>75</sup>

### (2) 교회력의 유래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생활을 계속 지탱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관심이었다. 그리하여 교회력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신앙생활의 지탱을 위하여 자연스럽게 규칙을 만들게 되었고, 시간의 규칙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에서 그 기준을 착상하여 교회력이 만들어졌다.<sup>76</sup> 교회가 처음부터 교회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교회력은 유대력과 로마의 세속력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전통 속에서 형성되고 중세의 종교적인 제도와 논쟁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온 것이다.<sup>77</sup>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는 매주 안식일을 비롯하여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다. 이러한 절기들은 유대 민족 스스로 제정하여 지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들의 신앙과 생활 속에 수행하여 온 민족의 축제일로 지켜온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73) 하용조, 「비전성경사전」(서울: 두란노, 2001), 62.

74) 「기독교대백과사전」, 제2권(서울: 기독교교문사, 1881), 101.

75) Ibid., 62.

76) 정일용, 「기독교 예배학 개론」(서울: 솔로몬, 1993), 196.

77) Edward T. Horn. 「교회력」, 배한국 역(서울: 컨콜디아사, 1971), 26.

교회력이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기인하여 그 줄기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정착된 것이다. 물론 현대교회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이 유대 민족이 문화와 종교 가운데서 지켜온 절기들을 그대로 답습하여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sup>78</sup>

현재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은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이고, 그 절기들은 모두 다 구약이나 신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sup>79</sup>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미 구약성경을 정경으로 가지고 있었고, 유대교의 예배의식을 따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 교인들은 유대력에 따른 생활 속에 절기와 명절들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었다. 즉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sup>80</sup>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절기는 구약의 절기들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교회에 교회력이 형성되고 교회력으로 받아들여진 배후에 유대교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 (3) 교회력의 의미

제임스 F. 화이트는 “교회력이란 기독교의 예배, 교육 그리고 각종 행사에 초기부터 전래해 온 정통성의 의미를 재인식 시키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sup>81</sup> 한정에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위한 양태로서 구원 역사를 1년을 통한 절기들로 표현한다. 절기들이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론적으로 의미 있는 축제를 중시하며 집회, 말씀과 예전 그리고 그리스도교 교육을 통해 성경 지식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sup>82</sup>

78) 정장복, 「교회력과정서일과」(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19-20.

79) 김건식, “성경에 나타난 절기준수와 사회적 섬김” 「목회와 신학」, 244호 2009년 10월, 52.

80) Michael Green, 「초대교회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141.

81) James F. White, 「기독교 예배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 엠마오, 1992), 50.

82) 한정애, “구약 절기에 관한 고대 교회의 해석과 수용,” 「그말씀」, 271호 2012년 1월, 65.

미치 글라스터는 “교회력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라면, 구약의 축제들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인들의 삶에 새로운 깊이와 차원을 더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고 말한다.<sup>83</sup> 유대인은 축제를 통해 선민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한다. 자녀들을 향한 신앙, 혈통, 축복의 대물림도 축제 속에서 이루어진다.<sup>84</sup>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상당한 축제와 예전적 유산을 이어받으며 비판적으로 고찰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많은 축제들로 전통을 이어 가고 있는 사회를 향해 말씀 선포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원은 교회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상에는 한 해를 날짜별로 짜놓은 세상의 달력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교회력이 있다. 이는 1년 간 살아가야 할 신앙의 달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회력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 역사 속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신앙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교회력에 따라 1년을 살게 되면 그대로 신앙의 순례가 되어 신앙이 자라게 된다. 이 교회력의 숨결에 따른 삶이야말로 제일 좋은 신앙교육의 방법이요, 영성훈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sup>85</sup>

그러므로 교회력은 일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앙적 삶의 모습을 어떤 흐름을 따라 배열한 것을 의미한다. 교회력은 처음부터 행사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 교회력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이기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함이었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 그것이 결국 신앙교육의 통로가 된 것이다.<sup>86</sup>

김운용은 “교회력은 교회의 사역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을 이룬다”라고 하였다.<sup>87</sup> 교회라고 하면 그저 건축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건물이 없는 ‘교회 밖의 교회’ 혹은 ‘삶의 교회’가 주는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잊을 때가 많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드리라’(롬 12:1)고 한다. 우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83) Mitch Glasev, 「레위기의 3대절기」, 송용구 역 (서울: 생명의 서신, 2006), 10.

84) 강정훈, “유대인은 절기교육을 통해 일어난다” 「교사의 벗」, 2011년 4월, 50.

85) 박근원, 「교회력과 목회기획」 (서울: 쿰란출판사, 2003), 36.

86) 양금희, “절기를 통해 열리는 기독교 교육의 새 지평” 「교육교회」, 457호 (2016, 9), 11.

87) 김운용, “절기를 명하시고 그 교육을 명하시다” 「교육목회」, 2014년 3월, 22.

백성이다. 따라서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신앙 순례의 길잡이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의 절기로부터 이어온 교회력의 일부분인 교회절기사역을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였을 때 형식이 아닌 성경의 본질을 가르침으로 교회는 역동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구약의 절기로부터 이어온 교회력의 일부분인 교회절기사역을 통해서 교회성장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 2. 교회성장에 대한 이해

교회는 성경의 본질을 따라 점진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한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성장을 꾀한다면 그 성장의 결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성장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1) 교회성장의 정의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을 “교회성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로 본다. 즉 맥가브란은 ‘교회’와 ‘성장’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시켜서 전문적인 용어인 ‘교회성장’이란 독립적 술어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sup>88</sup> 톰 레이너(Thom S. Rainer)는 그의 저서인 「교회성장교과서」에서 “교회성장이란 용어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도록 하고, 그로 인해 책임 있는 교인이 되도록 만드는 데 관련된 모든 사항”<sup>89</sup>이라고 와그너와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sup>90</sup>

교회 성장학자인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88) C. Peter Wagner, 「교회성장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9-10.

89) Thom S. Rainer, 「교회성장교과서」,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5), 20.

90) Ibid., 9-10.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한다. 또한 “교회성장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며,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내는 일에 충성함을 보이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up>91</sup>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건강한 교회는 마치 건강한 사람이 그러하듯 어떤 살아 있는 표적을 보여준다.<sup>92</sup>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성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비극을 맞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는 기본적 목적에서 실패한 것이다.<sup>93</sup> 그러므로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역사이다. 이처럼 교회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본질적인 것임을 말한다.

교회성장학에서는, 네가지 측면에서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학자들은 내적 성장(**Internal Growth**), 확대 성장(**Expansion Growth**), 증설 성장(**Extension Growth**), 가교 성장(**Bridging Growth**)이라고 한다. 첫째, 내적 성장(**Internal Growth**)은 질적 성장 또한 영적인 면에서의 성장을 말한다. 둘째, 확대 성장(**Expansion Growth**)은 새로운 구성원이 모임에 들어옴으로 그 교회가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증설 성장(**Extension Growth**)은 지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울 때, 개척을 하거나 지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가교 성장(**Bridging Growth**)은 문화적, 언어적, 지리적 장애를 뛰어넘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교회성장의 네 가지 차원 모두를 의미한다.<sup>94</sup>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교회성장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역동적 공동체로서 교회를 회복하라는 성경의 비전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수적 성장이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수적 성장은 교회의 건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일 수는 있어도,

91) 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이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31-2.

92) C. Peter Wagner, 「교회성장원리」, 권달천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0), 35.

93) Alan R. Tippett, 「교회성장과 하나님의 말씀」 (서울: 보이스사, 1978), 46.

94) George G. Hunter III, 「교회성장과 목회전략」, 김선도역 (서울: 광림출판사, 1993), 46-7.

교회의 껍데기 상태를 주로 보여줄 뿐임을 말하고 있다.<sup>95</sup> 또한 그는 교회갱신 운동이 교회에 진정한 역동성과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 되는 이유를 “갱신주의적 교회성장이 강조하는 다섯 가지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는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 검증된 내용으로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회적-영적 몸으로 이해하는 스나이더의 갱신주의적 교회성장이 강조하는 다섯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교회 생활과 성장에 최고 기준이자 답이 된다. 둘째,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 셋째, 교회는 본질적으로 살아 있는 영적, 현실적, 사회적으로 유기체며, 교회의 성장은 반드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넷째, 생명체는 당연히 자라고 재생산한다. 이 점에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다. 다섯째, 역사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갱신해 왔다. 갱신 운동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교회성장 원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sup>96</sup>

교회성장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성장이며, 그것은 곧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오는 역동성이다. 이러한 교회성장의 측면들을 통해 내적 성장이 교회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임을 알 수 있다.<sup>97</sup>

## 2) 성경에 나타난 교회성장의 원리

교회성장 문제를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성장해야 정상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sup>98</sup> 이종윤은 성경적 교회성장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고전 3:6~7)의 구절을 가지고 설명한다.<sup>99</sup> 그는 “이 말씀은 교회 성장이 양적인 성장이든 질적인 성장이든 또는

95) Elmer L. Towns 외 4인, 「교회성장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김석원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1987), 275.

96) Ibid., 276-91.

97) 유수영,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한 교회 부흥과 성장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제주함께하는교회를 중심으로”(박사학위 논문, 리버티대학교 신학대학원, 2017), 71.

98) Elmer L. Towns 외 4인, 「교회성장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1987), 282.

99) 이종윤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원장이다.

지리적, 인종적인 연장 선상이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다”라고 말한다.<sup>100</sup>

알란 R. 티펠(Alan R. Tippett)은 “성장의 성서적 개념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관련되는 한 또한 우리가 그것을 물질적으로 생각하거나 질적으로 생각하거나 간에 최종 목표를 향하는 지속적인 진행인 것이다. 숫적으로 볼 때도 교회는 수효와 인원수에 있어서 대폭적 성장을 하도록 기대되고 있다”라고 한다.<sup>101</sup> 또한 “신약성경의 동사와 명사는 정지상태를 용납할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은 성장에 대한 기대로 차 있음을 다양한 몇 가지 은유의 예로 잘 설명한다.<sup>102</sup> 첫째로 수적 비유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일(막 1:17), 그리고 커지는 겨자씨 비유(마 13:31~32), 부풀어 오르는 누룩의 비유(마 13:33) 등이다. 둘째로 모으시는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추수하게 된 밭 비유(요 4:34~35), 그와 함께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마 9:38, 눅 10:2)고 ‘추수할 주인’이신 주님께서 직접 지시하신다. 또한 잔치 비유(눅 14:16~24)에서 큰 길과 작은 길에 가서 불러 모으라고 명하신다. 셋째, 열매를 맺는 비유를 사용했는데, 포도나무 비유(요 15:5~8)가 그것이다.<sup>103</sup>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는 사도행전은 교회성장에 있어 원초적인 교본이다.<sup>104</sup> 사도행전은 ‘무리’, ‘더해지다’, ‘많은 숫자’ 등의 단어로 가득차 있다.<sup>105</sup> 조지 피터스(George W. Peters)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120명 신도들이(1:15) 3천 명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본다(2:41).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 명이나 더한 사건은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또한 여기에 급성장하여 남녀의 큰 무리가 된 것이다(5:14). 이후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100) 이종윤, 전호진, 나일선, 「교회성장학」(서울: 정은출판사, 1983), 214.

101) Alan R. Tippett,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서울: 보이서사, 1978), 46.

102) Ibid., 20.

103) Ibid., 20-2.

104) George W. Peters, 「교회성장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7.

105) Paul W. Powell, 「교회성장의 실제와 사례」, 천복현 역(서울: 요단출판사, 1988), 17.

많아지고(6:7), 교회의 수가 더 많아졌다(9:31). 사도행전의 중요 구절들은 다음과 같은 교회성장과 확장 기록을 간결하게 알리고 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13:43~44, 48~49), 더베(14:20~21), 갈라디아(16:5), 데살로니가(17:4), 베뢰아(17:12), 고린도(18:8~11), 로마(28:24, 30~31). 양적 증가와 지리적 확장은 신약성서에 나타난 사실로 보아 대단히 중요하다.<sup>106</sup>

성장은 하나님의 실재와 일치한다. 우리는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자라나심을 잃게 된다(눅 2:40, 42).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무로 자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마 13:31~32). 이와 같이 교회도 ‘자라나는데’(엡 4:16) 있어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실 때”(계 5:9)까지 자라야 한다. 성장은 신성함 혹은 온전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sup>107</sup>

이처럼 성경은 교회성장을 찬성하고 있다.<sup>108</sup>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교회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반적인 목적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다.<sup>109</sup>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벧후 3:9) 원하시며, 친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행 2:47) 하신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행 16:5). 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나아오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신다. 즉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역사하심이다.<sup>110</sup>

따라서 교회가 살아 있고 건강하다면 자라는 것, 즉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로 이해되는 성서적 진리는 곧 교회는 성장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한다.<sup>111</sup>

106) Ibid., 35-7.

107) Ibid., 33.

108) C. Peter Wagner,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 역(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25.

109) C. Peter Wagner, 「교회성장원리」, 권달천 역(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39.

110) C. Peter Wagner, 「교회 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 역(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27.

111) 임정훈, “웨슬리의 실천적 교회론 관점에서 본 부친제일감리교회 성장 사례연구”(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신학대학원, 2011), 38.

교회성장은 성경적 근거에 두어야 하며 이것을 토대로 한 성장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딤후 2:4) 교회성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3. 절기와 교회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소결론

지금까지 2장을 통해서 연구자는 절기가 무엇이며, 구약의 절기가 이어져온 교회력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를 통해 절기사역의 필요성과 또한 교회성장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부분임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성장은 방법론적인 부분에 치우치게 되면, 교회성장 자체를 목표로 하는 비본질적 성장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약점이 있다.<sup>112</sup> 이에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표징’으로 이해한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교회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은 신학적 진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 때부터 포함된 내용이다. 하나님은 교회 속에 생명의 원리를 심어 놓았다. 이 때문에 교회 성장의 “열쇠”는 성장 전략이나 방법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인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sup>113</sup>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본질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자가 다루고자 하는 교회절기사역은 신앙의 순례로서 성경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매년 절기사역이 반복 되어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며, 신앙의 본질을 붙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삶의 역동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조지 피터스(George W. Peters)는 “교회가 내향성에서 외향성으로 움직일 때 교회는 성장한다”고 말한다.<sup>114</sup> 이처럼 교회의 성장은 영성이 바탕이 된 성도들의 신앙적 삶에서

112) 연구자는 도날드맥가브란과 피터와그너의 교회성장에 대한 정의를 전통적 정의라고 명명하고, 하워드스나이더의 정의를 갱신주의적관점에서의 정의라고 명명한다.

113) Elmer L. Towns 외 4인, 「교회성장운동어떻게 볼 것인가」,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1987), 282.

114) George W. Peters, 「교회성장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71.

신앙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역동성이 회복되며, 강력한 교회성장이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3장에서 절기사역을 통해 교회성장을 이룬 교회들의 사례를 분석, 종합함으로써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절기가 교회력과 함께 어우러져 어떻게 교회성장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밝힐 것이다.

### 제 3 장

#### 절기사역을 통해 성장한 교회 사례 연구

3장에서 연구자는 교회절기사역을 중심으로 부흥과 성장을 이룬 교회들의 사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기사역의 중요성을 밝히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역동성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성장을 일으키는 것임을 강조할 것이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진지하게 실천하는 교회다(마 6:10)”라고 말한다.<sup>115</sup> 참다운 교회성장은 자연스럽게 자라야 정상이다. 영적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일상적 삶의 변화가 교회의 역동성으로 나타나며, 역동성을 회복하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경의 절기가 있다. 유대인은 이러한 절기중심으로 교육이 되고, 그 절기가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축제이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들에게는 있었다. 지리적으로도 늘 사방의 적들로 긴장된 상태에서 살았다. 축제는 그 동안의 긴장을 모두 떨쳐버리고 선민으로서 춤추며 노래하며 감격을 유감없이 누리는 감사의 시간이었다. 저들은 축제를 통해 선민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심(信心)을 새롭게 한다. 이처럼 절기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개선이며, 교인들 간의 단합이며, 축제를 통해 놀림들을 벗어버리는 기간이다. 축제를 하고 나면 새로운 기운이 일어난다. 죄들을 벗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형제들 간의 반복과 대립에서 단합과 결속으로 나아간다.<sup>116</sup>

115) Elmer L. Towns 외 4인, 「교회 성장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1987), 285.

116) 강정훈, “절기교육을 강화하라,” 「교사의 벗」, 2014년 11월, 37-8.

한국교회도 절기를 통해 성장한 교회이다. 특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통해 교인들의 믿음이 증강되고 이웃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기회가 되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주일학교를 활성화하며, 교인들의 믿음을 성장시켰고, 성탄절은 불거리가 없었던 시절에 다양한 성탄축하의 밤을 통해 이웃들을 불러 모았다.<sup>117</sup> 이처럼 절기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절기사역을 통해서 절기의 의미를 강화하고, 교회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자는 본 장에서 한국교회에서 절기사역을 중심으로 부흥 성장한 교회를 선정하여 사례를 소개하고, 부흥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생명 나눔 절기사역을 통해 성장한 서울광업교회이다. 이 교회는 한국에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 땅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신 16:11, 14)에 나와있는 대로 절기사역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 특징이다. 목회철학인 ‘파이프 행복론’을 따라 절기헌금 전액을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구제의 형태로 흘러 보냄으로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생명 전달 절기사역을 통해 성장한 부산 수영로교회이다. 이 교회는 ‘영혼구원’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사역이 집중된 교회이다. 그래서 그 핵심사역인 사랑방전도축제가 봄과 가을 절기에 맞추어 소그룹과 전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까지 확대하여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약 2:8)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을 따라, 사랑의 실천운동인 절기사역을 교회 안의 사역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할 축제의 현장으로 확대함으로서 한국교회의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소개한 교회들의 공통된 중심 주제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영혼구원’이다. 그것을 생명 나눔인 절기 구제의 형태로, 또한 생명 전달인 전도와 절기사회화의 형태로 특화시켰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제인 절기 사역에 있어서 현재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는 본

---

117) Ibid., 41-4.

연구자의 연구에 있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 1. 생명 나눔 절기사역: 서울광염교회

생명 나눔 절기사역으로 성장한 사례로는 서울광염교회를 예로 들 수 있다. 서울광염교회는 감자탕 교회로도 불린다. 지금 있는 건물로 교회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커다란 감자탕 집 간판에 가려 이름조차 보이지 않는 초라한 모습의 감자탕 교회, 그러나 조현삼 담임목사의 리더십과, 광염교회인들의 사랑과 나눔의 실천으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 1) 교회소개

서울광염교회는 1992년에 서울 상계동에서 개척 멤버도 없이 교회를 개척함으로 시작되었다. 유구한 역사와 아름답게 건축된 유럽의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건물보다 사람에 집중했고, 건물을 남기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목회를 함으로, 2017년 현재, 1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다.<sup>118</sup> 서울광염교회가 이처럼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생명 나눔의 절기사역인 구제사역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서울광염교회에서 섬기는 박현덕 부목사는 “절기헌금을 이웃과 나누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성경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헌금을 하는 성도 입장에서도 집행하는 교회 입장에서도 구제의 기쁨을 맛보고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sup>119</sup>

### 2) 목회철학

조현삼은 이렇게 말한다:

118) 서울광염교회, “INTRODUCTION” [온라인자료] [http://www.sls.or.kr/\\_bbs/president](http://www.sls.or.kr/_bbs/president), 2017년 11월 20일 접속.

119) Ibid., 72. 2017년 11월 20일 접속

구약성경에 따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아달람굴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삼상 22:2). 와서 다윗을 머리로 삼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용사와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다윗의 시대처럼 인생의 무게로 고통당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서울광염교회가 아달람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행복하려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사람들이 잘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하니까요<sup>120</sup>

서울광염교회의 목회철학은 한마디로 ‘파이프 행복론’이다. 조현삼은 서울광염교회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세상에 흘러 보내주는 파이프가 되길 소망한다. 그는 목회철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 가설한 파이프입니다. 서울광염교회는 파이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매주일 드려지는 헌금은 당일 집행하고 잔고를 100여만원만 남깁니다. 이는 1992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한 원칙인데요, 지금도 이 원칙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서울광염교회는 하나님이 흘러 보내시길 원하시는 곳과 사람들을 찾아 흘러보내는 행복을 경험하고 습니다. 해외 선교사들과 국내 미자립교회, 기독교 기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흘러갑니다. 이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통해 헌금한 성도들과 공유되고 다함께 행복을 나눕니다.’<sup>121</sup>

### 3) 교회비전

서울광염교회의 비전은 복음과 생명을 나누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서울광염교회의 10대 비전과 재정집행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서울광염교회의 10대 비전은 전도비를 많이 지출하는 교회, 국내외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일천만 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구제비를 많이 지출하는 교회, 일만 가정 이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교회, 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예수 닮은 인재를 많이 양육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100명

120) Ibid., 2017년 11월 20일 접속.

121) Ibid., 2017년 11월 20일 접속.

이상의 사회 각 분야 최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sup>122</sup> 이를 위해 서울광염교회는 재정집행의 기본원칙을 세웠는데, 모든 재정 입출금은 투명하게 공개하며, 예산의 30% 이상 구제, 선교, 장학금으로 집행하고, 절기헌금 전액은 구제비로 집행하며, 공급하신 하나님께 영광, 헌금한 성도에게 보람, 이웃에게 기쁨이 되게 집행한다는 것이다.<sup>123</sup> 이러한 목회철학과 비전을 기반으로 지금도 서울광염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행복을 나누기 위해 생명 나눔 절기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 4) 생명나눔 절기사역의 예

광염교회는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들어오는 절기헌금 전액을 구제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원칙은 1992년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맞는 맥추감사절 때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두들 매우 큰 기쁨과 보람을 맛보는 것을 보면서 “모든 절기헌금은 구제비로 집행한다”고 선포하여 구제를 제도화했다.<sup>124</sup> 목회와 신학의 김보경은 이렇게 말한다:

광염교회는 1992년 개척 때부터 절기 구제부를 두고 지금까지 절기헌금의 100%를 구제비로 사용하고 있다. 조 목사는 개척 후 첫 절기 헌금인 맥추감사헌금의 용도를 생각하던 중 절기를 지킬 때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신 16:14)는 말씀을 떠올렸다. 다른 때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하지만 절기 때에는 더욱 그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맥추감사주일 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절기 헌금은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의 구제에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유월절 제물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부정한 음식이 되고 만다는 성경 말씀에 착안해 절기헌금 집행은 신속하게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기가 끝나고 늦어도 2주일 이내에 구제비로 집행한다.<sup>125</sup>

이러한 원칙을 집행하는 방법 역시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조현삼은 유대인들의 ‘유월절

122) 서울광염교회, “INTRODUCTION”[온라인자료] [http://www.sls.or.kr/\\_bbs/introduction](http://www.sls.or.kr/_bbs/introduction), 2017년 11월 20일 접속.

123) Ibid., 2017년 11월 20일 접속.

124) 양병무, 「감자탕교회이야기」(서울: 두란노, 1984), 90.

125) 김보경, “절기를 사회적 섬김으로 확대하고 있는 교회들”, 「목회와 신학」, 244호 (2009, 10), 71.

절기 지키는 법'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유월절 제물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부정한 음식이 되고 만다는 성경말씀을 깊이 생각한 끝에 깨달은 것은 '나눔의 속도와 제도화'이다. 구제활동을 생각날 때마다 하는 즉흥적인 행사가 아니라 절기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만든 것이다.<sup>126</sup>

#### (1) 예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랑의 집

'사랑의 집' 사역은 서울광업교회의 절기사역을 실천하는 구제의 한 방식으로서, 어려운 가정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사역이다. 이 사역은 2000년 성탄절을 앞두고 남편과 사별한 후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키우며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한 교인 가정을 도우면서 시작되었다. 이 모녀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8만 원짜리 지하 셋방에서 생존투쟁을 벌이며 어렵사리 살고 있었다. 정부의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어 한 달에 18만 원의 생활비 보조를 받는 게 수입의 전부였다. 이 가정에 성탄절기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1,050만 원짜리 방을 전세로 얻어 사랑의 보증자리를 마련해주기로 한 것이다.<sup>127</sup> 광업교회의 성탄헌금은 교회 안의 어려운 이웃에게 보증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랑의 집' 사업에 쓰인다.<sup>128</sup> 모아진 헌금은 지난 시간 동안 생활형편이 어려운 모녀가정을 위한 '사랑의 집 1호'를 시작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미션 하우스가 '사랑의 집 2호', 알코올 중독증의 부자가정, 인도청년, 지방 학생들을 위한 남자학사, 여자학사까지 총 '사랑의 집 6호'를 완성시켰다.<sup>129</sup> 사랑의 집은 성탄절이 되면 정성껏 모아진 헌금으로 매년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sup>130</sup> 이후 동네에서는 교회가 사랑의 집으로 쓴다고 세 달라고 하면 묻지도 말고 주라고 소문이 났다.<sup>131</sup>

126) 양병무, 「감자탕교회이야기」(서울: 두란노, 1984), 90-1.

127) Ibid., 156-7.

128) 서화동, "감자탕교회를아시나요.. 서울상계동광업교회," 한국경제신문(문화/교양), 2002년 12월 4일.

129) 김경미, "이웃을 사랑하며 '희망'을 전한다 서울광업교회," 원자력문화신문, 2003년 4월 11일.

130) 양병무, 「감자탕교회이야기」(서울: 두란노, 1984), 158.

131) Ibid., 166-7.

조현삼은 사랑의 집을 운영하는 이유를 예수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설명한다. 예수는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지만 태어날 땅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탄생했다. 그런 예수를 생각하는 성탄절기에 이런 절기사역을 통해 감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sup>132</sup> 양병무는 이렇게 말한다:

광염교회의 사람들이 돋보이는 이유는 기독교인의 기본을 잃지 않고 실천하는 데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대로 살고 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사랑하게 된다. 구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가슴에 품고 살면서도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며 진심어린 마음으로 구제활동을 하는 데에서 광염교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sup>133</sup>

## (2) 독립가옥 임대 ‘미션하우스’ 개설

기독교신문에서 이 사역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교회에서 40여m 떨어진 곳에 외국인노동자 숙소인 ‘미션룸’ 개설을 위해 지난 9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빗물에 내려 앉은 천장을 수리하고 벽지도 새로 바르는 등 가옥 내외 수리를 마치고 1차로 필리핀 노동자 5명이 입주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 ‘미션룸’은 올초 ‘자랑스런서울시민상’을 받은 조규석 집사가 부상으로 받은 100만원을 쾌척한 기금이 밑거름이 되어 서울광염교회 성도들의 현금 그리고 맥추감사절 현금 전액 등으로 모아진 1000만원의 보증금에 월세 23만원으로 운영된다. 특히 ‘미션룸’은 입주자들이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인당 매월 3만원씩 비용을 받고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sup>134</sup>

이렇게 교회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랑의 눈길을 돌리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많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나그네를 돌보는 게 기독교인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해외에 나가 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132) Ibid, 157-8.

133) Ibid, 158.

134) 안연용, “외국인 노동자에 숙소 제공,” 「기독교신문」, 2001년 9월 10일.

밭에 근로자로 이민을 갔다. 1960년대에는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갔다. 1970년대에는 베트남과 중동까지 진출한 동병상련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 땅을 찾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셋째는 감사의 표시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피하고 있다. 그 부족한 노동력의 틈새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완해줌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다.<sup>135</sup> 미션 하우스의 최고참인 알프레도는 교회의 이러한 뜨거운 사랑과 열린 마음에 감사하면서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누가 나에게 광염 교인들이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선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솔직하게 말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았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격려, 관심, 친절, 위로 자체라고 말하고 싶다.<sup>136</sup>

### (3) 사랑의 과일 나누기와 사랑의 설빔 운동

‘사랑의 과일 나누기’ 사역은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에 드러진 절기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역으로서, 절기헌금으로 과일을 구매한 뒤, 기증된 과일들을 더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이 기부하는 과일상자들이 연말이면 1000상자 가까이 교회 앞에 쌓인다.<sup>137</sup> 2009년 9월 16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설날과 추석에 어려운 단체와 이웃에게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과일 나누기 행사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상인들이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독교 단체가 주최하는 일이지만 비 기독교인 상인들이 더 많이 참여해 화제가 된 이 행사는 처음 이 일을 계획했을 때 상인들의 큰 호응을 기대하지 않았다. 봉사자들은 일주일 전 시장에 나가 전단을 돌려 행사 취지를 알리고 도움의 손길을 구했다. 그리고 당일 이른 아침 시장에 나가보고는 깜짝 놀랐다. 시장에 내놓고 팔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물건을 한

135) 양병무, 「감자탕교회이야기」(서울: 두란노, 1984), 160-1.

136) Ibid., 162-3.

137) 서정보, “감자탕교회, 광염교회 조현삼목사 ‘사람 키우는 목회,’” 동아일보, 2003년 3월 7일.

상자에서부터 많게는 1톤 트럭 한 대 분량까지 봉사자들에게 아낌없이 내주었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여든 사랑은 800여 상자, 사과, 배, 포도, 감 등 이웃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집안의 명절을 뒤로 하고 달려나온 50여 명의 봉사자들은 받은 물건을 8대의 차량에 나눠 싣고 각자 맡은 구역으로 달려갔다. 영등포 쪽방과 성남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시작으로 마석 신망에 재활원, 양평 은혜의 집, 춘천 산빛기도원, 나사로의 집, 쉼터요양원, 홍파양로원, 맹인대린원, 시립요양원, 새소망의 집, 주나임선교회, 안산 평화의 집 그리고 상계, 중계동의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상인들이 모아준 과일은 모두에게 골고루 분해하고도 2.5톤 트럭의 3분의 2 정도가 남아 중계동 임대주택 장애인과 독거 노인들에게 돌아갔다. 과일 한 봉지를 받기 위해 100미터도 넘게 줄을 선 모습을 보고 봉사자들은 낯날이 시큰해졌다.<sup>138</sup>

‘사랑의 설빔 운동’ 사역은 성탄절에 드러진 절기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역으로서, 절기헌금으로 의류를 구매한 뒤, 기증된 의류들을 더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사랑의 설빔 운동에 대해서 언론사인 기독교신문 기자인 안연용은 이렇게 소개한다:

지난해 겨울 영등포 쪽방 밀집지역에서 이웃을 초청해 사랑의 설빔으로 내복 200벌과 몇 십벌의 겹옷을 나누었던 서울광염교회는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남대문과 동대문시장 일대를 돌며 사랑의 설빔을 모아 1월 1일부터 5일까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같은 행사를 전해들은 청평화시장 H클럽(대표: 박예하)에서 코트 100벌을 선뜻 내놓았고 아트플라자 신우회에서 동참할 뜻을 밝혀 올해에도 많은 재가장애인 고아원 양로원 등에 ‘사랑의 설빔’이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삼 목사는 ‘교회의 구제 예산이나 성탄 헌금으로 사랑의 설빔을 마련해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 예수님이 입혀주는 사랑의 설빔이란 말과 함께 전해준다’고 밝혔다.<sup>139</sup>

##### 5) 사역의 결과

서울광염교회의 모습을 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인 양병무는 이렇게 말한다:

예배당이 작은 큰 교회, 감자탕 교회는 건물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데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외형만을 중시하는 양적 성장을 거부하고 내면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람의 사람을 위한, 사람에게 의한 교회, 사랑과 칭찬과 감사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 모든 사람이 성장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지난 10년간 광염교회를 흔들림 없이 지켜준 모습이다.<sup>140</sup>

138) 양병무, 「감자탕교회이야기」(서울: 두란노, 1984), 128-9.

139) 안연용, “사랑의 설빔 운동,” 「기독교신문」, 2000년 12월 20일.

140) 양병무, 「감자탕교회이야기」(서울: 두란노, 1984), 32.

서울광업교회의 생명 나눔 절기사역은 “절기에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삶으로 잘 실천해낸 사역이었다. 전 교인이 함께 담임목사의 비전인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 가설한 파이프 행복론’에 동참하여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교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교회성장을 이루었다.<sup>141</sup> 이것이 바로 서울광업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비결이다. 한 명의 목회자가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현대에 맞게 적용하여, 그 말씀을 삶으로 살도록 가르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 2. 생명 전달 절기사역: 수영로교회

생명 전달 절기사역을 통한 성장 사례로는 부산 수영로교회를 예로 들 수 있다. 수영로교회의 핵심가치는 ‘영혼구원’이다.<sup>142</sup> 그래서 수영로교회는 연 2회 사랑방전도축제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돌아간다. 사랑방전도축제를 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유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생명 전달’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특화시켜 진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약의 갱신과 함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추수감사와 크리스마스 절기사역인 러브부산운동 사역이 연 1회 진행된다. 이러한 수영로교회 절기사역이 교회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회소개

수영로교회는 1975년 태창목재 구내강당에서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비전을 갖고 정필도를 담임목사로 초빙하여 선교교회로 첫 개척예배를 드렸다.<sup>143</sup> 이후 39년의 세월이

141) 서울광업교회, “INTRODUCTION” [온라인자료] [http://www.sls.or.kr/\\_bbs/president](http://www.sls.or.kr/_bbs/president), 2017년 11월 21일 접속.

142) 정필도,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서울: 두란노, 2005), 41.

143) 수영로교회, “교회연혁” [온라인자료] <http://www.sooyoungro.org/new-layout/syrintro/history.jsp>, 2017년 11월 20일 접속

지나 2011년 정필도의 은퇴와 함께 2대 담임으로 이규현이 부임한 후, 지속적인 성장을 한 수영로교회는 2017년 현재, 4만 명이 넘는 교회에 이르게 되었다.<sup>144</sup> 수영로교회가 이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생명 전달의 절기사역인 사랑방전도축제와 러브부산 사역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 2) 목회철학

정필도의 목회철학은 한 마디로 ‘영혼구원’이다. 그의 저서인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에서 그의 목회 철학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알 수 있다. 그가 초등학교 6학년 예수를 만나 죄를 비워 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을 부어 주시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생각이었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생각만이 자신을 지배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무엇을 하다가 가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쁘게 맞아 주실까?”가 고민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었다.<sup>145</sup> 그것이 바로 수영로교회의 영혼구원을 향한 ‘생명 전달 사역’의 태동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상을 받으리라고 약속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이다. 복음을 위해서 살되 헌신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님은 큰 축복을 약속하셨다. 복음 전파 사역 때문에 내 부모와 자녀가 고행했든, 아내가 힘들었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 살면서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백 배의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다(막 10:29-30). 나는 목회 동역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불드고 살라고 부탁하곤 한다. 목회에서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하느냐?” 이 문제만 확실하게 해결된다면, 우리의 목회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 핍박받아도 괜찮고 초막에 살아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다. 결국은 주님께서 목회의 헨들을 잡고 계시기에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sup>146</sup>

144) Ibid., 2017년 12월 7일 접속

145) 정필도,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서울: 두란노, 2005), 29-31.

146) Ibid., 24.

### 3) 교회비전

수영로교회의 비전은 처음 이름 자체가 ‘선교교회’였을 정도로 복음인 생명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sup>147</sup> 수영로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 일만사랑방 운동본부장이었던 김종균은 이렇게 말한다.

수영로교회는 부산복음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은혜로운 교회이다. 이 일을 위해 500만의 부산, 경남 지역의 영혼에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아파트 라인마다, 골목마다 세워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1만 개의 건강한 사랑방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5천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로 지금도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교회이다.<sup>148</sup>

수영로교회의 4대 비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만 개의 소그룹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400만 부산의 시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500만 영혼을 책임지며, 5,000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여 부산과 세계를 복음화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둘째로, 수영로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일만 개의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고 세워진 일만 개의 소그룹 공동체는 부산의 구석구석까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작은 밀알이 되는 것이다. 셋째, 수영로교회는 부산 성시화를 앞당기고 지역 교회들을 앞장서서 이끌며 하나된 힘으로 어두운 세상을 치유하는 성시화 사역을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 사역의 틀을 확립하는 교회이다.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위한 전문적인 복지프로그램과 봉사사역의 기초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149</sup> 이러한 비전은 수영로교회의 양육훈련에까지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이규현은 이렇게 말한다:

147) 수영로교회, “교회연혁” [온라인자료] <http://www.sooyoungro.org/new-layout/syrintro/history.jsp>, 2017년 11월 20일 접속

148) 김종균, “수영로교회 사랑목자 가이드북”, 「일만 사랑방 운동본부」 2014년, 1.

149) 수영로교회, “교회연혁” [온라인자료] <http://www.sooyoungro.org/new-layout/syrintro/vision.jsp>, 2017년 11월 20일 접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공생애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당신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모아서 그들에게 대사명(The Great Commission)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하라”(마 28:18-20).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아주 명료합니다. 바로 “제자를 삼아라(Make Disciples)”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를 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땅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거듭난 신자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수영로교회 양육훈련의 철학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 사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것입니다.<sup>150</sup>

이러한 목회철학과 비전을 기반으로 수영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 모든사역의 방향을 ‘영혼 구원’으로 집중시킨다. 특별히 생명 전달사역인 ‘사랑방전도축제’를 절기에 맞추어 년 2회, 봄과 가을에 실시하고 있다. 봄(부활절)에는 행복나눔축제로, 가을(맥추감사절)에는 사랑방전도축제란 이름으로 진행된다. 또한 겨울에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러브부산운동을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을 절기적으로 실천함으로 역동성을 가지고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4) 생명 전달 절기사역의 예

##### (1) 사랑방 전도축제

수영로교회의 연중 최대행사인 사랑방전도축제는<sup>151</sup> 혼자하는 전도가 아니라,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접촉하고, 함께 초청하여 수시 등록하는 관계전도의 방법으로 진행된다.<sup>152</sup> 수영로교회는 년 2회 진행되는 사랑방전도축제를 통해서 한 해에 7천 명 이상의 새가족이

150) 수영로교회, “수영로양육훈련철학” [온라인자료] <http://www.sooyoungro.org/new-layout/syrgrowth/newguide.jsp>, 2017년 11월 23일 접속

151) 김병국, “수영로교회 ‘사랑방’ 뜨겁다,” 「기독신문」, 2010년 11월 12일.

152) 강수영, “2008년 사랑방 전도축제”, 크리스천투데이, [온라인자료]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191411>, 2017년 11월 24일 접속

초청되어 등록한다고 한다.<sup>153</sup> 수영로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인 것이다. 이러한 사랑방전도축제의 진행은 ‘작정 →기도 →섬김 →초청’으로 진행된다.<sup>154</sup>

여기에서 첫째로, ‘작정’은 나의 VIP(전도대상자)이름을 작정 카드에 기록하는 것이다. 3월은 사랑방 전도축제의 개막을 알리고, 자신 주위에 있는 전도대상자들을 분류하고 작정하여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sup>155</sup> 둘째로, ‘기도’는 사랑방초청축제 4코스 중에 두 번째 코스로 보통 2주간에 걸쳐 작정한 VIP들을 위해 집중해서 기도하는 주간이다. 사랑방 전도축제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모든 예배와(1, 2, 3부 새벽기도회, 9시기도회, 주일오후찬양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야 등) 모임시간에 전 교인이 사랑방 전도축제의 진행 일정에 맞추어 합심해서 기도한다. 이러한 기도는 성도에게 전도의 능력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동시에 전도축제에 대한 최고의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구별로 핵심 일꾼들이 모여서 사랑방 전도축제 전체 일정과 전도 대상자 작정, 그리고 주일 등록을 위해 매주 시간을 정해서 1시간 이상 집중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56</sup> 셋째로, ‘섬김’은 그 동안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였던 VIP들을 실제적으로 섬기며 만나는 것이다. VIP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다양한 섬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때 사랑원들과 함께 섬기면 더욱 좋다. 그러면 VIP가 사랑방에 초청되었을 때 낯설지 않아 부담을 덜 수 있다. VIP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섬김의 기회를 만들어 보기도 한다. 4월은 기도하며 작정한 VIP를 집중적으로 섬기는 기간이다. 각 주마다 사랑방에서 VIP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랑방에서 VIP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서로 나누고 함께 실천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VIP에게 줄 선물을 대량 구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성도들에게 판매한다. 동시에 3, 4주차에는 사랑방 초청을 위한 준비를

153) 김병국, “수영로교회 ‘사랑방’ 뜨겁다,” 『기독신문』, 2010년 11월 12일.

154) 김종균, “수영로교회 사랑목자 가이드북,” 『일만 사랑방 운동본부』 2014년, 4-5.

155) pastormall, “사랑방 전도축제 12주 진행 메뉴얼”, [온라인자료]  
<http://www.pastormall.net/shop/board/view.php?id=call&page=177&no=1569>, 2017년 11월 24일 접속

156) Ibid., 2017년 11월 24일 접속.

진행하도록 한다.<sup>157</sup> 마지막으로, ‘초청’은 지금까지 작성하여 기도하며 섬겨왔던 VIP를 사랑방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초청에는 전략이 필요한데, 5월은 실질적인 VIP 초청기간이다. 먼저 각 사랑방에서는 두 번의 사랑방 초청 잔치를 열어 VIP를 사랑방으로 초청한다. 이는 교회로 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동시에 VIP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목적에서 진행된다. 매뉴얼에는 초청 잔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사랑방 초청 이후에는 교회 초청행사가 진행된다. 교회 초청행사는 수요일 오전, 오후, 주일저녁 이렇게 3차례 진행되는데, 각 행사 때마다 초청 연령층을 구별하여 게스트, 무대, 조명, 진행순서 메시지를 각각 다르게 진행한다.<sup>158</sup>

## (2) 러브부산 운동

수영로교회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약 2:8)라는 표어를 내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을 따라, 언약의 갱신과 함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절기사역인 러브부산운동 사역을 하고 있다.

### i) 러브부산 운동

이 러브부산 운동은 따뜻한 손길로 서로 닫힌 마음을 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랑 실천운동으로 2009년 시작됐다.<sup>159</sup> 정필도는 이에 대해 “복을 받은 사람은 받은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작은 사랑 실천이 부산을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sup>160</sup> 러브부산 운동본부장인 이규현은 “러브부산 운동”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57) Ibid., 2017년 11월 24일 접속.

158) Ibid., 2017년 11월 24일 접속.

159) 조정호, “이웃돕기 러브상자 나눔 축제”, [온라인자료]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4/0200000000AKR20171104034300051.HTML>, 2017년 11월 04일.

160) 김병국, “수영로교회 부산사랑 큰 나눔”, 『기독신문』, 2010년 11월 29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사랑의 실천운동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161</sup>

이 사랑의 실천은 부산 시민의 아름답고 귀한 특권으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만능주의에 의하여 가치가 전도됨으로써 향락과 퇴폐문화가 만연하고, 핵가족화에 따른 개인주의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웃의 고통 분담에 지극히 인색한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고,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곳이므로 이웃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필요합니다. 러브부산운동본부는 성도와 부산시민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 거룩한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sup>162</sup>

러브부산 행사를 진행한 수영로교회 부목사 전병선은 “1개월에 한정해 실시되는 지역섬김이 사랑방과 마을별로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sup>163</sup>

러브부산 운동은 성도와 시민들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눔으로써 부산을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한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사랑실천 운동, 기독교 문화 운동, 세계관 변화 운동이다.<sup>164</sup>

## ii) 러브부산 운동의 실제

러브부산 운동은 첫째로, 주요사역으로 위드하우스, 무료급식, 이미용, 지역봉사, 문화사역, 자원봉사자관리, 나눔 봉사, 긴급재해구호, 의료봉사, 대외협력사업, 홍보, 부산 리서치로 이루어진다.<sup>165</sup> 둘째로, 모집분야는 노숙인팀, 집수리팀, 이미용팀, 러브부산 실버팀, 러브부산

161) 수영로교회, “러브부산” [온라인자료] [http://lovebusans.cafe24.com/g5/bbs/board.php?bo\\_table=greet](http://lovebusans.cafe24.com/g5/bbs/board.php?bo_table=greet), 2017년 11월 23일 접속.

162) 이규현, “커뮤니티,” 러브부산 [온라인자료] [http://lovebusans.cafe24.com/g5/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http://lovebusans.cafe24.com/g5/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 2017년 11월 23일 접속.

163) 김병국, “수영로교회 부산사랑 큰 나눔,” 『기독신문』, 2010년 11월 29일.

164) 수영로교회, “러브부산, 자원봉사센터,” [온라인자료] [http://lovebusans.cafe24.com/g5/bbs/board.php?bo\\_table=center&sca=%EC%9E%90%EC%9B%90%EB%B4%89%EC%82%AC%EC%84%BC%ED%84%B0](http://lovebusans.cafe24.com/g5/bbs/board.php?bo_table=center&sca=%EC%9E%90%EC%9B%90%EB%B4%89%EC%82%AC%EC%84%BC%ED%84%B0), 2017년 11월 24일 접속

165) 수영로교회, “전문특화영역, 러브부산 사역,” [온라인자료] <http://www.sooyoungro.org/new-layout/syrteam/department8.jsp>, 2017년 11월 23일 접속.

재가봉사팀, 농어촌 일손돕기팀, 환경 정화팀, 방법팀, 교통 안전팀, 인권, 공익팀, 긴급 재해팀, 의료 사역팀, 교육 지원팀, 행사 지원팀, 상담실, 결식아동 지원팀, 독거노인 지원팀, 어린이 가장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66</sup>

러브부산 운동은 20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매년 신도들은 고지대, 무허가 거주지 등 소외된 이웃이 많은 지역을 찾아 집수리, 김장, 의료봉사, 연탄배달, 벽화그리기 같은 봉사활동을 펼쳐나갔다. 특별히 이 러브부산사역의 정점은 ‘러브상자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생필품을 담은 수만 개의 러브상자를 만들어 홀몸노인, 빈민층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고 있다.<sup>167</sup> 김병국은 이렇게 말한다:

‘러브부산 2010’ 행사의 정점은 ‘러브상자 만들기’, ‘러브상자’는 부산지역의 복지관과 차상위계층 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대상에게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는 생필품과 기호품을 ‘러브상자’에 담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영로교회는 11월 20일 교회 앞에 위치한 해운대요트경기장 주차장에서 ‘러브상자’ 만들기 및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기관장, 52개 복지관 관계자 등과 2500여명의 수영로교회 성도들이 가족단위로 참여해 정성껏 러브상자를 제작했다. 수영로교회가 이날 칫솔, 치약, 고무장갑, 비누, 라면, 각종 장류, 식용유, 미역, 참치캔, 기본 반찬류 등을 담은 러브상자 1만개를 만들었다. 러브상자 제작에만 2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실제 러브상자에는 업체의 협찬 등을 포함하면 4만원 상당의 제품들이 담겼다. 이는 지난 첫 행사보다 2배나 늘어난 규모다. 이날 제작된 러브상자의 90퍼센트는 지역의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됐으며, 나머지는 수영로교회 성도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전달됐다.<sup>168</sup>

러브부산운동본부 관계자는 “러브상자만들기는 러브부산운동본부의 상징적인 이벤트로써 올해는 양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러브상자를 준비했다”면서 “러브부산운동을 통해 부산이 조금 더 정이 넘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sup>169</sup>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처장인 이정윤은 “매년 수영로교회의 러브상자를 통해 부산 지역의

166) Ibid., 2017년 11월 23일 접속.

167) 이승륜, “수영로교회 신도들 올해는 남구 감만동서 ‘러브 부산,’” 「국제신문」, 2013년 10월 30일, 29면.

168) 김병국, “수영로교회 부산사랑 큰 나눔,” 「기독신문」, 2010년 11월 29일.

169) 정민규, “러브상자로 이웃사랑 전해요,” 「오마이뉴스」, [온라인 자료] 2013년 11월 09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430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4302), 2017년 11월 23일 접속.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전하고 있다”며 “이번 전달식을 통해 이웃들의 실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sup>170</sup> 사역조건은 부산을 사랑하고 러브부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한다.<sup>171</sup>

<그림 1> 러브부산 진행 프로그램<sup>172</sup>

**LOVE BUSAN**  
러브부산유크  
10.31 ▶ 11.12

“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12:15  
”

<p><b>나눔</b></p> <p>워드하우스 (장수리봉사회연동)          만나하우스 (무유급식봉사연동)          아름다운 손길 (이리왕봉사회연동)          얼마손맛 김장나눔 행사 (11월 말)          교구별 사랑방별 이웃사랑 프로젝트 (10.13 • 12.29)</p>	<p><b>채움</b></p> <p>러브부산 특별연급 (11.06)          러브상자 만들기 (11.12)          사랑의정신병원과 함께 하는          생령사랑 마더박스 (11.14 • 19)          공간 재능 연탄배달 (11.03, 11.24)</p>	<p><b>이름</b></p> <p>러브부산 페스티벌 (11.12)   수영민요공연장          - 러브상자 만들기          - 연탄은행 등기 표기마켓          - 농어촌교회 등기 특산물 직거래장터          - 국제음식문화축제          - 나눔의 이따가 함께하는 한뫼 모으기          - 이룸센터 &amp; 러브상자 전달식</p>
--	--	---

170) 조선영, “부산수영로교회, ‘러브박스’ 1만개 이웃전달,” 「노컷뉴스」, 2015년 11월 14일, [온라인자료] <http://www.nocutnews.co.kr/news/4504058>, 2017년 11월 24일 접속.

171) 수영로교회, “전문특화영역, 러브부산 사역” [온라인자료] <http://www.sooyoungro.org/new-layout/syrteam/department8.jsp>, 2017년 11월 23일 접속.

172) 이규현, “커뮤니티”, 러브부산 [온라인자료] [http://lovebusans.cafe24.com/g5/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http://lovebusans.cafe24.com/g5/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 2017년 11월 23일 접속.

## 5) 사역의 결과

수영로교회의 모습을 언론사인 기독교신문 기자인 김병국은 이렇게 말한다:

수영로교회(정필도 목사)가 큰 사랑 실천으로 부산복음화의 텃밭을 일궜다. 수영로교회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러브부산 2010’ 행사를 개최, 부산 전역에 걸쳐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 ‘러브 부산’이란 1개월의 기간 동안 부산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나눔실천 프로젝트 행사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수영로교회 성도들은 1500개의 사랑방과 마을, 교구를 통해 30일간 부산 전 지역에 아름다운 사람의 손길을 베풀었다. 지난 한 달간 수영로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펼친 봉사활동은 공원청소,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섬김, 교회 주변 청소 및 주차도우미, 황령산 정상 청소, 재활원 봉사, 노숙자 섬김, 선착장 청소,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청소, 사랑의 쌀과 반찬 나누기, 다문화가정 방문, 김치 나눔, 산책로 청소, 고아 돌보기, 시장청소, 소년소녀가장 섬김, 결식아동 결연, 독거노인과 새터민 김장봉사, 도배, 장판교체, 목욕봉사 등,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세밀한 섬김과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로 다채롭게 봉사활동을 펼쳤다. 더욱이 봉사활동에 들어간 비용은 전액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헌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수영로교회 성도들의 지역 사랑과 복음화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에 충분하다.<sup>173</sup>

수영로교회의 생명 전달 절기사역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을 교회적으로 잘 실천해낸 사역이었다. 1대, 2대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전 교인이 함께 영혼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으로 일어서고, 심지어 소그룹(사랑방)조차도 전도소그룹으로 체질화시켜 그것을 절기사역의 형태로 일구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인 성석환은 이렇게 말한다:

절기의 사회화는 간단히 말해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와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가 그저 우리 안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온 세상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과 형식에 얽매인 의식과 절기기념 행위를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sup>174</sup>

행위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핵심적 신앙고백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인데<sup>175</sup>, 성경을 보면,

173) 김병국, “수영로교회 부산사랑 큰 나눔”, 「기독교신문」, 2010년 11월 29일.

174) 성석환,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절기”, 「목회와 신학」, 224권 (2009, 10), 37.

175) Ibid., 39.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신 16:11)는 말씀처럼, 절기 때마다 반복되어 이 땅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 하신다. 정필도에서 이규현으로 이어지는 생명 전달 절기사역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성경 말씀을 개인과 소그룹 별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운동으로 일으킨 사역이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삶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져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와 교회의 역동성이 회복되어,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수영로교회의 부흥과 성장 비결 중 하나이다.

바로 이런 절기의 사회화 혹은 공공화는 구체적으로 교회 구성원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그 의미를 사회적 지평으로 확장하여 실천하는 절기사역이 각 교회마다 회복될 때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과 성장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sup>176</sup>

### 3. 교회절기사역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 서울신도교회

연구자가 담임목사로 사역하는 서울신도교회의 사례를 통해 절기사역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 1) 교회소개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서울신도교회는 연구자가 3대 목사로 위임받아 지금까지 시무하고 있는 교회이다. 서울신도교회는 1968년 11월 10일에 설립되었고,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로써 서울성시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자, 10만 영혼구원, 5천 건강한 사랑방 구축, 3백 명의 선교사 파송의 꿈을 꾸고 있는 교회이다. 대그룹 날개인

---

176) Ibid.

축제예배와 소그룹 날개인 사랑방(마을/목장)모임이 균형을 잡은 두 날개를 가진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를 꿈꾸며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2017년 11월 현재 재적 738명 중 평균적으로 400여명 이상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다.<sup>177</sup>

## 2) 목회철학

서울신도교회의 목회철학은 한 마디로 ‘행복’이다. 그래서 교회이름 앞에 ‘행복을 노래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이 목회철학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10:10)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 3) 교회비전

교회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로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기억하고, 목사는 성도가 기도의 즐거움을 알도록 최선의 모범을 보이며, 모든 리더는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기도하며 사역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민족과 열방을 교구로!”로서 강력한 기도팀의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복음 증거가 계속 되도록 하고, 기존 주거지역과 유동성이 있는 청년들 각각에 대한 전도 전략을 수립하며, 전도대와 단기선교팀은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상설화하는 것이다. 셋째, “교회가 지역사회의 문화를 선도한다.”로서 교회의 성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필요를 연구하고 충족시키며, 나아가 문화를 선도한다. 특히 지역의 리더십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창조적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실시한다. 넷째, “세계적인 리더를 배출한다!”로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리더를 발굴하고 훈련하는 것은 필연적 사역이라는 인식 하에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탁월하게 양육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리더는 꿈꾸는 교회를 통해 배출될 것을 믿는 것이다. 다섯째,

177) 서울신도교회 디모데 교적관리 프로그램에 올라가 있는 숫자이다. 재적 738명 중 성인은 586명이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152명이다.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함을 증명한다!”로서, 복음의 능력이 모든 가정과 일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영과 육체와 물질과 모든 관계에서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복음의 능력이 모든 성도의 일상에서 매일 경험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약한 자와 함께하는 교회가 된다!”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복음으로 이 땅의 모든 편견으로부터 성도를 자유롭게 하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섬김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신도교회는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슬로건으로 “3Bigs”를 내세우는데, 첫째, “크게 생각하라”(“Think Big”), 둘째, “크게 기대하라”(“Expect Big”), 셋째, “크게 사랑하라”(“Love Big”)가 그것이다.

이러한 목회철학과 비전을 기반으로 서울신도교회는 모든 사역의 방향을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교회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집중시킨다. 절기사역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그 변화로 인해 생겨난 역동성을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절기사역은 한국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유월절과 부활절, 오순절과 맥추감사절, 그리고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에 집중적으로 실행하고 있다.<sup>178</sup>

#### 4) 절기사역의 예

서울신도교회의 절기사역은 교회의 비전과 함께 구약의 절기로부터 교회력으로 이어온 것을 사역에 적용함으로 진행된다. 이에 권혁승은 이렇게 말한다:

교회력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중심을 두고 형성된 것이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구성은 이스라엘 절기에서 근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활절과 성령강림절은 이스라엘의 삼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sup>179</sup>

178) 성석환, “교회의 공공성과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교회절기의 사회화,” 「목회와신학」, 244호 (2009, 10), 40.

179) Ibid, 19.

이러한 교회력에 따라 유월절과 연관된 부활절, 오순절과 연관된 성령강림절, 초막절과 연관된 추수감사절에 이뤄진 절기사역을 통해 서울신도교회는 매년 평균 201명의 새가족이 교회에 초청되고, 평균125명이 등록하므로, 부흥과 성장을 맞보았다.<sup>180</sup>

<표 1> 서울신도교회 새가족 초청 및 등록 현황

구분	참여 새가족	등록 새가족	등록율(%)
2012	256	157	61.33
2013	207	118	57.00
2014	168	99	58.92
계	631	374	
평균	201.3	124.7	59.08

#### (1) 부활절 생명축제

서울신도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구원사건인 유월절의 현대적 의미인 부활절에 부활절 생명축제를 가진다.<sup>181</sup>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 꾸미기, 계란 찾기, 계란 나누기 사역을 통해 축제를 가진다.

먼저 각 교육부서별로 진행되는 계란 꾸미기는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정성스럽게 꾸민 계란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생명 전달의 의미를 몸소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성구를 넣은 계란모형을 교회 곳곳에 숨겨두고 찾는 행사는 모두가 즐거워하는 프로그램이다. 계란모형을 찾기 위해 교인들이 교회 전체를 돌아보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돌아보게 하며, 찾은 계란모형 안에 들어 있는 성구를 보면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란 나누기 사역을 노방전도 형태의 외침전도를 하면서 진행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복음의 담대함을 길러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180) 2012-4년까지의 절기사역을 통해서 초청 및 등록된 상황. 단, 2015-7년에는 교회 사정상 절기사역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기에 통계에 넣지 않았다.

181) Ibid., 15-6.

## (2) 행복콘서트(봄 사랑방전도축제)

연 2회 실시하는 사랑방전도축제의 봄 절기프로그램으로, 구원의 출발과 완성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되었다는 역사적-신앙적 의미를 지닌 오순절의 현대적 의미인 성령강림절에 이웃을 초청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되게 하는 행복콘서트를 진행한다.<sup>182</sup>

작정(2주) →기도(2주) →섬김(2주) →초청(2주)의 형태로 진행되는 이 사역은 1년 동안 복음을 전할 VIP를 작정하고, 기도와 섬김을 통해 초청함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이다. 매년 특별한 게스트를 불러 교인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전도대상자인 VIP를 쉽게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매년 150-200명 정도의 새가족이 교회로 초청되어 온다.

## (3) 예감 축제(가을 사랑방전도축제)

연 2회 실시하는 사랑방전도축제의 가을 절기프로그램으로, 1년의 모든 추수를 마친 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 성격의 절기인 초막절의 현대적 의미인 추수감사절에는 예감축제로 교인들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절기사역을 진행한다.<sup>183</sup> 한 해 동안 주신 풍성함에 감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이 사역은 특별게스트를 불러 교인 모두가 행복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부서별로 기관별로 온 교우들이 참여하여 축제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절기의 참된 의미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땅에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말씀과(신 16:11),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명령을 따라, 사랑의 쌀 나누기와 사랑의 과일 나누기를 실시한다.

사랑의 쌀 나누기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전 약 한달 전부터 온 교우들에게 공지하고 기증을 받아 진행하는데, 소그룹인 사랑방과 전도회 별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파악하고,

---

182) Ibid.,16.

183) Ibid,16-7.

교우중에도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선별하여 사랑의 쌀을 먼저 나눈다. 모인 쌀이 많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구청과 연계하여 차상위 계층까지 나누기도 한다. 또한 사랑의 과일 나누기는 전 교우들(성인들과 아이들)에게 공지하여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온 가족예배 시 과일을 가져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함으로 교육의 의미가 깊다. 뿐만 아니라 가져온 과일을 독거노인이나 혼자 된 과부나 이웃들과 나눔으로 풍성함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 5) 사역의 결과

서울신도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교회이다. 2011년 교회 부임 당시 100여명의 교회에서 2017년 11월 현재 재적 738명 중 400여명이 주일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출석하는 교인의 95%(매우 그렇다 32%, 그렇다 40%, 보통이다 23%)가 절기사역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부활절 생명축제는 87.5%, 행복콘서트(봄 사랑방전도축제)는 67.5%, 예감축제(가을 사랑방전도축제)는 62.5% 같이 동참을 하고 있으며, 교회절기사역이 숫자적으로 성장하는데 90% (크게 영향을 주었다 45%, 보통으로 영향을 주었다 45%)로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sup>184</sup>

이처럼 절기사역은 교회의 역동성을 일으키며, 부흥과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물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요인이 다른 것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절기사역이 서울신도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다. 구체적인 것은 4장 설문조사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 4. 소결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과 빛’(마 5:13~14)이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동떨어져 지낼 수 없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처럼 우리는 지역과 사회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184) 본 내용은 4장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떤다’(행 2:42) 복음의 생명 안에 거했다. 또한 ‘흠여지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였다. 그로 인해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난 것이다. 교회성장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신앙적 삶에서 신앙의 실천을 통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실천할 때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교회성장의 동력이다.<sup>185</sup> 교회의 구성원 하나 하나가 신앙의 실천을 이루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이 전해지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다(마 5:16).

연구자는 본 장에서 한국교회에서 절기사역을 중심으로 부흥 성장한 교회를 선정하여 사례를 소개하고, 부흥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기초로 연구자도 서울신도교회의 핵심을 절기사역으로 하였고, 6년 동안 이 사역에 집중함으로써 교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숫자적인 성장도 가져왔다. 절기사역은 그냥 교회의 숫자만 불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해마다 절기를 지키므로써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의미를 순환성의 삶 속에서 새롭게 재현시켰던 것처럼, 신앙의 역동성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교회의 절기사역을 의미에 맞도록 적용함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 성장케 하는 하나의 실례가 될 것이다.

---

185) 임정훈, “웨슬리의 실천적 교회론 관점에서 본 부천제일감리교회 성장사례 연구”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신학대학원, 2011), 38.

## 제 4 장

### 교회 절기사역을 위한 설문 연구

#### 1. 설문조사의 목적과 절차

##### 1) 설문의 목적

본 설문의 목적은 한국교회의 절기사역 운영방안을 만들기 위해 절기사역 참가자들의 현실태를 파악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6년간 서울신도교회에서 시행된 절기사역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보완한 결과를 앞으로의 사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회절기사역을 하려는 교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운영방안을 만들려는 것이 본 설문이 지향하는 방향이다.

##### 2) 참가자

본 설문에는 총 40명이 참가하였다.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서울신도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며, 연령은 다양하며, 교회절기사역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평신도들과 사역자들이다.

##### 3) 설문절차 및 방법

설문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15분 이내로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설문 전에 리버티 대학교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거친 설문동의서를 이메일로 참가자에게 보냈고, 직접적으로 만나 참가자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에, 볼펜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4) 설문의 구성 및 내용

설문은 총 24개의 질문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주요 질문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부 질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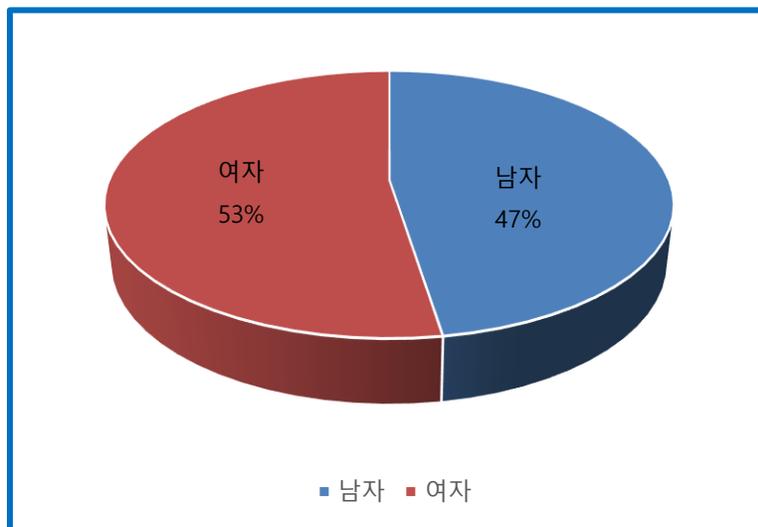
덧붙였기 때문에, 설문지의 질문 번호는 18번으로 마무리된다. 질문의 형식은 객관식  
 사지선다형과 해당사항 모두를 복수로 선택하는 복수기재형과 필요 시에 자기의 생각을  
 기입하는 기타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지의 내용은 ‘특징적 절기사역을 위한 설문’이고, 개인적인 질문은 1~4번,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질문은 5~8번, 교회절기사역이 교회에 숫자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개선점에 대한  
 질문 9~14번, 교회절기사역에 대한 질문 15~18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내용은  
 개인적인 질문과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질문, 그리고 교회 절기사역이 미치는 영향과 개선점에  
 대한 질문과 교회 절기 사역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설문결과(빈도결과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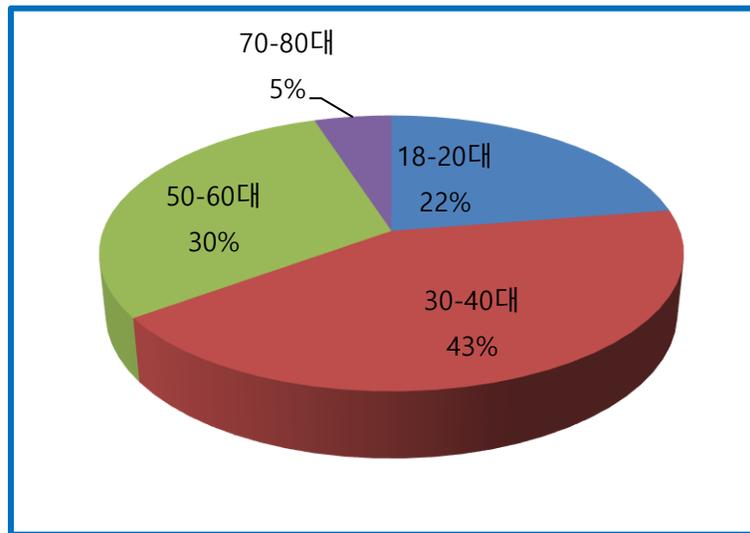
연구자는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모든 자료를 표로 나타내었고,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원형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퍼센트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그림 2>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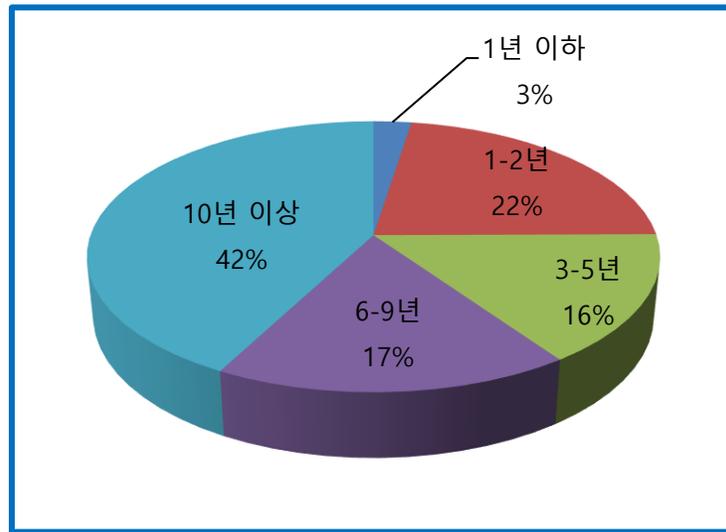
1번 문항은 설문 참가자의 성별에 대한 것으로, 참가자의 47%는 남자, 53%는 여자이다. 본 교회 디모데교적 상으로 18세 이상의 교인 558명 중 남자가 234명(41.9%) 여자가 324명(58.1%)인 것을 볼 때, 전체 교인의 성비와 설문 참가자의 성비가 5% 내외의 차이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설문 응답자의 성비가 전체 교인의 성비를 대표할 수 있다.

<그림 3>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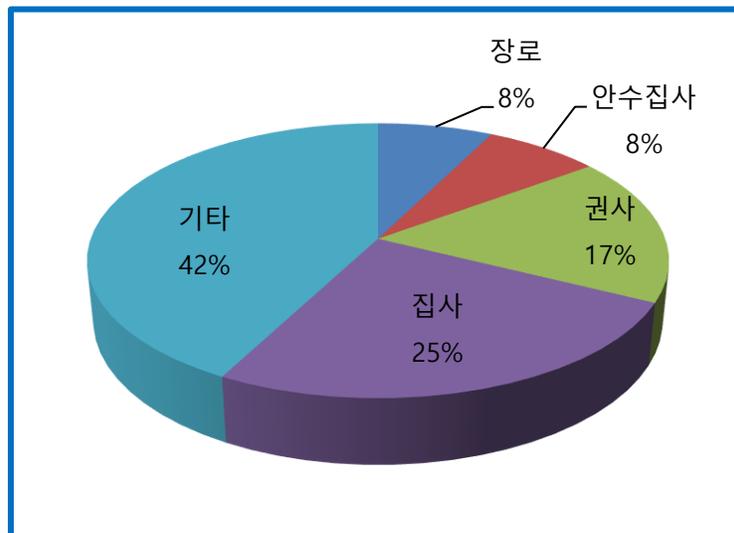
2번 문항은 설문 참가자의 나이에 대한 것이다. 참가자의 연령 비율은 18~20대 22%, 30~40대 43%, 50~60대 30%, 70~80대 5%이며, 본 교회 18세 이상 교인의 연령 분포는 전체 558명 중 18~20대 117명(21%), 30~40대 192명(34.4%), 50~60대 193명(34.6%), 70대 이상 56명(10%)이다. 이 결과로 보아 40대 이하의 교인들이 50대 이상의 교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설문 조사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4%의 오차를 보이는 30~40대를 제외하고는 각 연령대별로 5% 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서울신도교회 출석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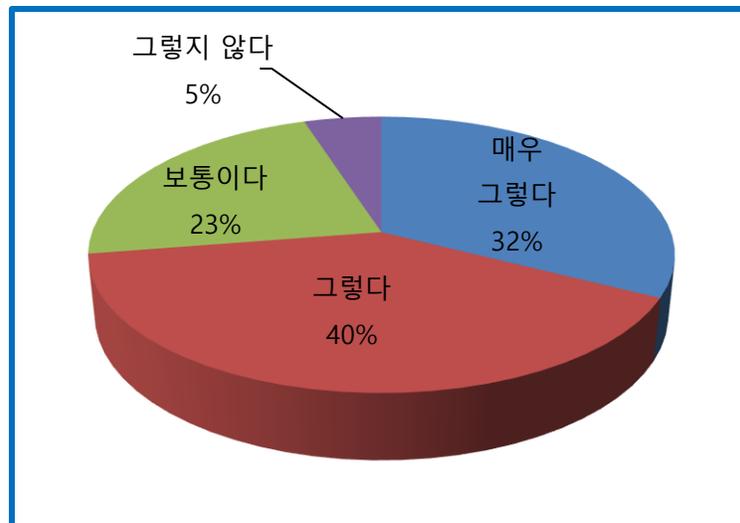
3번 문항은 참가자의 서울신도교회 출석 기간에 대한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자들의 59%가 6년 이상 서울신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절기 사역이 진행된 기간이 6년이었기 때문에 설문 참가자의 과반수가 본 교회에서 절기사역을 시행해 보지 않은 것과 시행해 본 것에 대한 차이점을 경험한 성도들이다.

〈그림 5〉 교회내에서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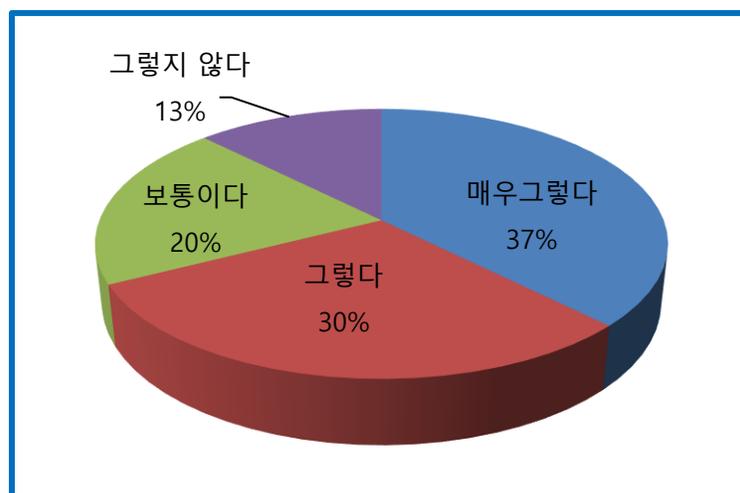
4번 문항은 참가자의 교회 내에서의 위치에 대한 것이다. 다양한 위치의 참가자들이 참여했다. 특별한 것은 직분자들이 58% 비직분자들이 42% 참여함으로 절기사역에 대한 데이터를 균형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그림 6〉 교회에서 진행되는 절기사역 진행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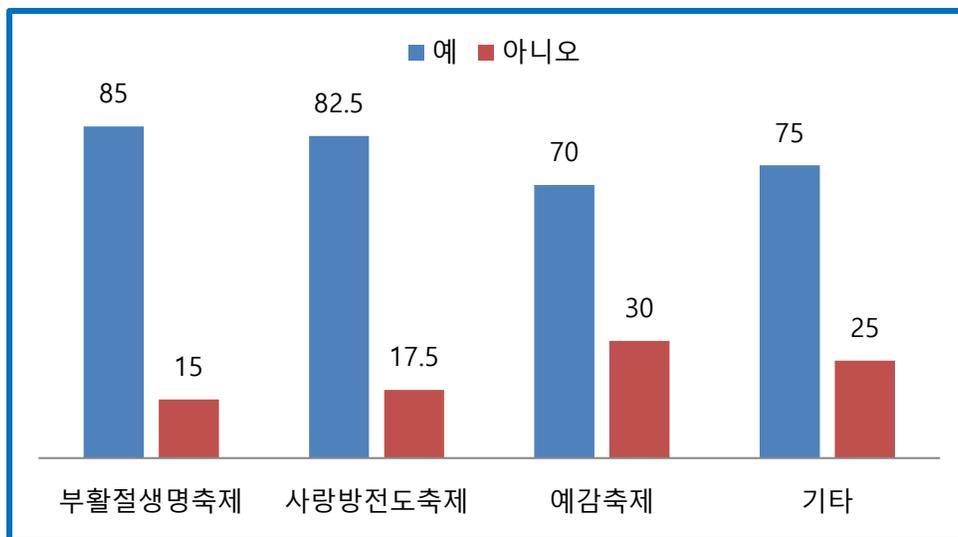
5번 문항은 참가자가 교회에서 절기사역이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9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으로 절기사역의 진행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았다.

〈그림 7〉 절기사역 세부내용 파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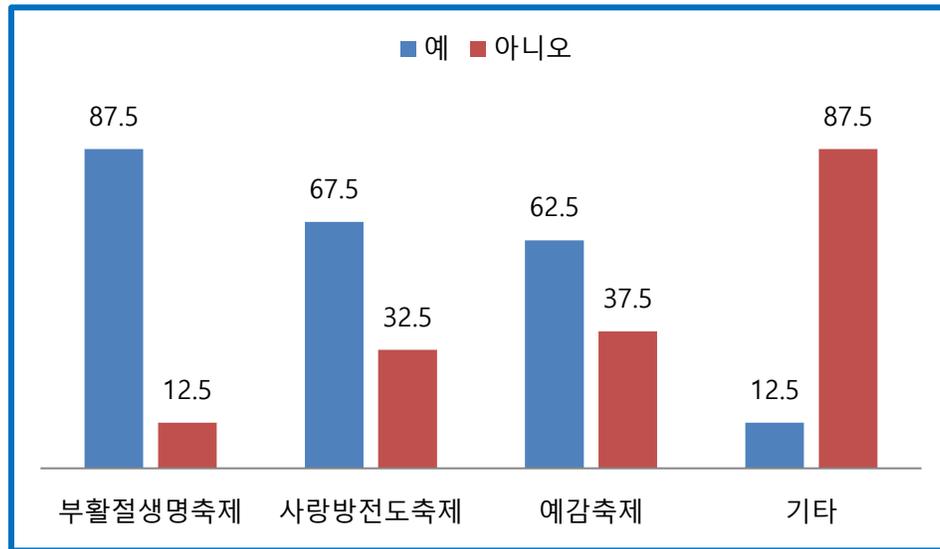
6번 문항은 참가자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절기사역의 세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묻는 것이다. 87%가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함으로 절기사역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림 8> 출석교회에서 진행되는 절기사역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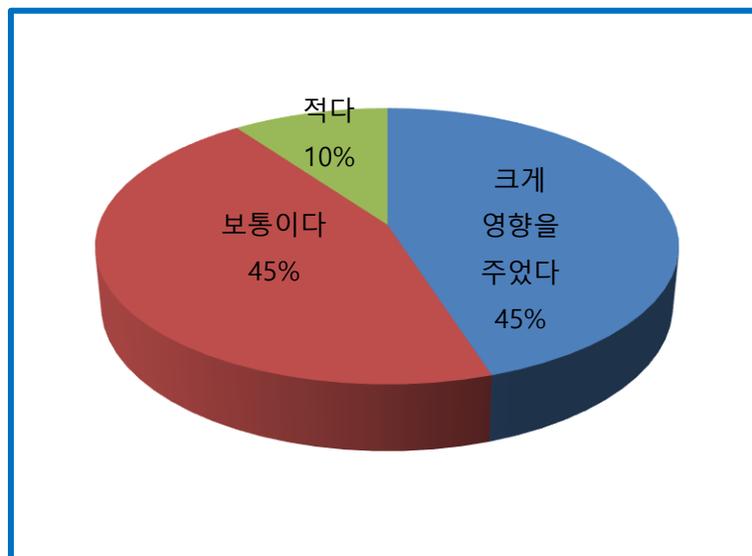
7번 문항은 참가자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절기사역에 대한 것이다. 부활절생명축제 85%, 사랑방진도축제 82.5%, 예감축제 70%로 대체로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절기사역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타 75%로 설문지에 소개되어 있는 항목 외에도 다른 절기사역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이 알고 있었다.

〈그림 9〉 절기사역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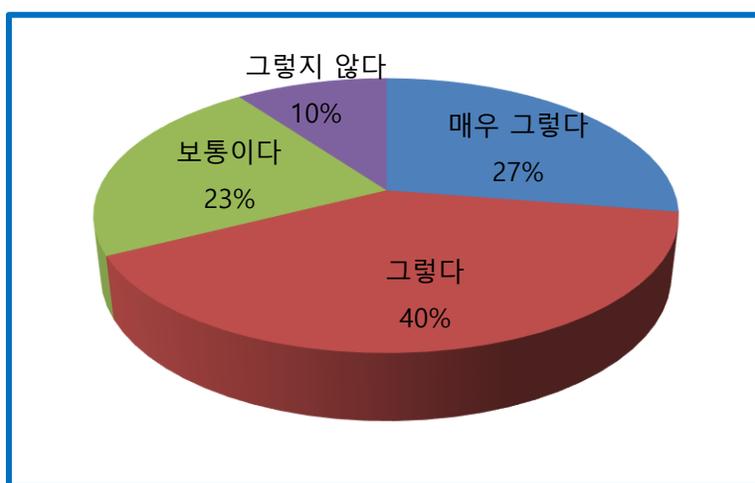
8번 문항은 참가자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절기사역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부활절생명축제 87.5%, 사랑방전도축제 67.5%, 예감축제 62.5%이다. 또한 기타가 12.5% 인데, 교회에서 진행되는 절기사역 외에는 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

〈그림 10〉 교회절기사역의 숫자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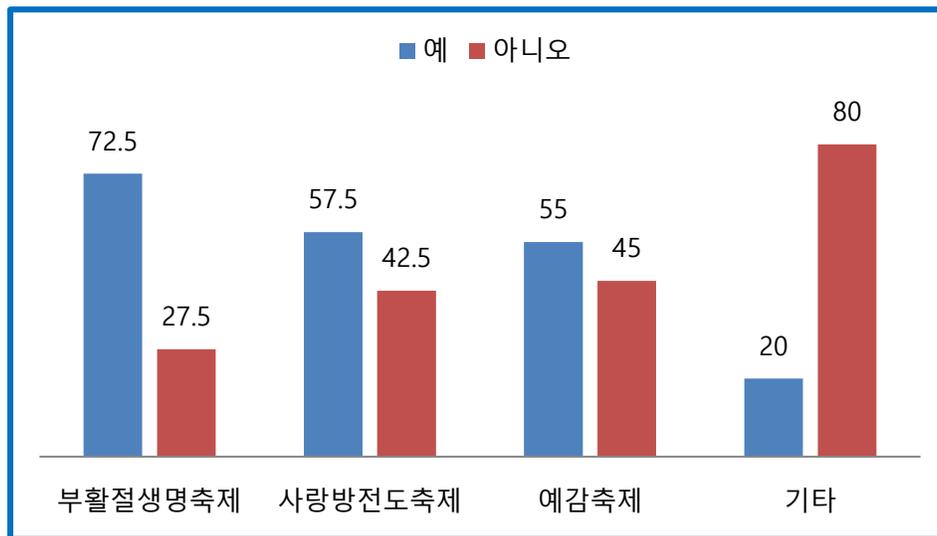
9번 문항은 절기사역이 숫자적인 성장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문항에서 ‘숫자적인 성장’이란 장기결석자와 새신자를 함께 포함한 개념이다. ‘크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과 ‘(영향이)적다’라는 부정적인 답변 사이에는 35%의 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설문 참석자들은 교회절기사역이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지했다.

〈그림 11〉 교회절기사역의 새신자 증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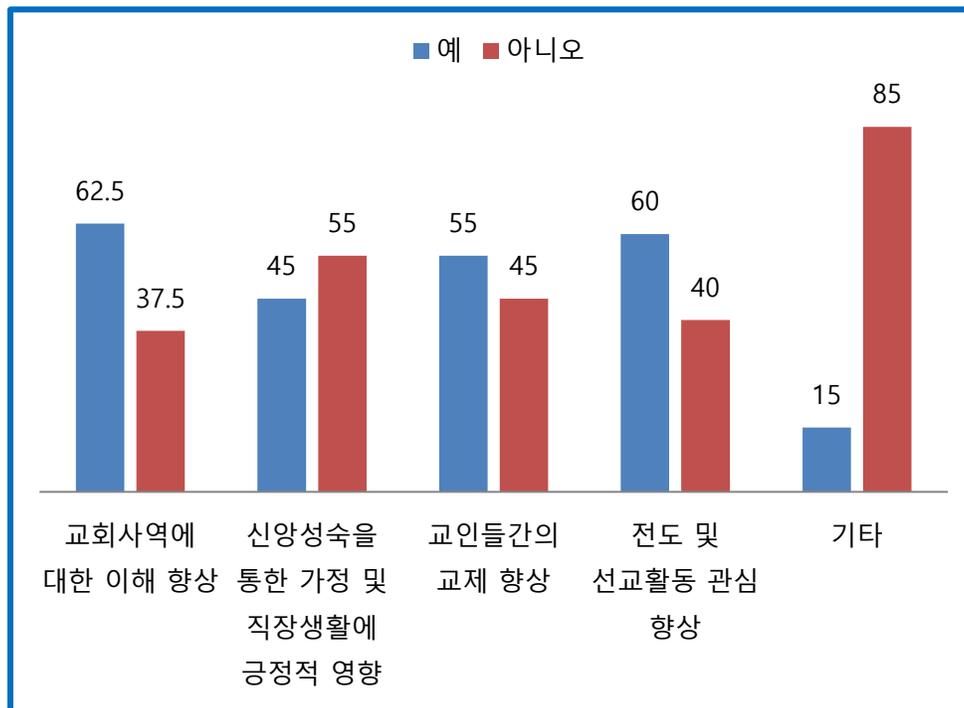
10번 문항은 9번 문항의 내용 중 교회절기사역이 특별히 ‘새신자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의 편차는 57%로서 설문 참가자들은 교회절기사역이 장기결석자들의 교회 복귀보다는 새신자의 교회 전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림 12〉 영향을 주었던 교회절기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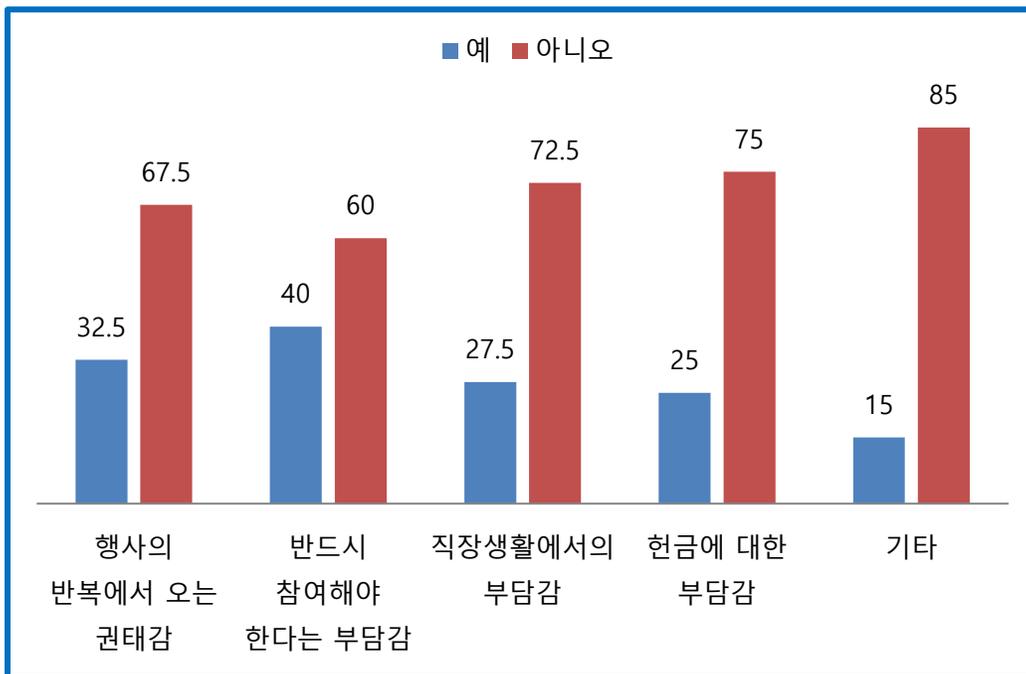
11번 문항은 참가자에게 어떤 절기사역이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부활절생명축제 72.5%, 사랑방전도축제 57.7, 예감축제 55%로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절기에 시행된 절기사역이 설문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절기인 부활절과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3> 부활절생명축제가 미친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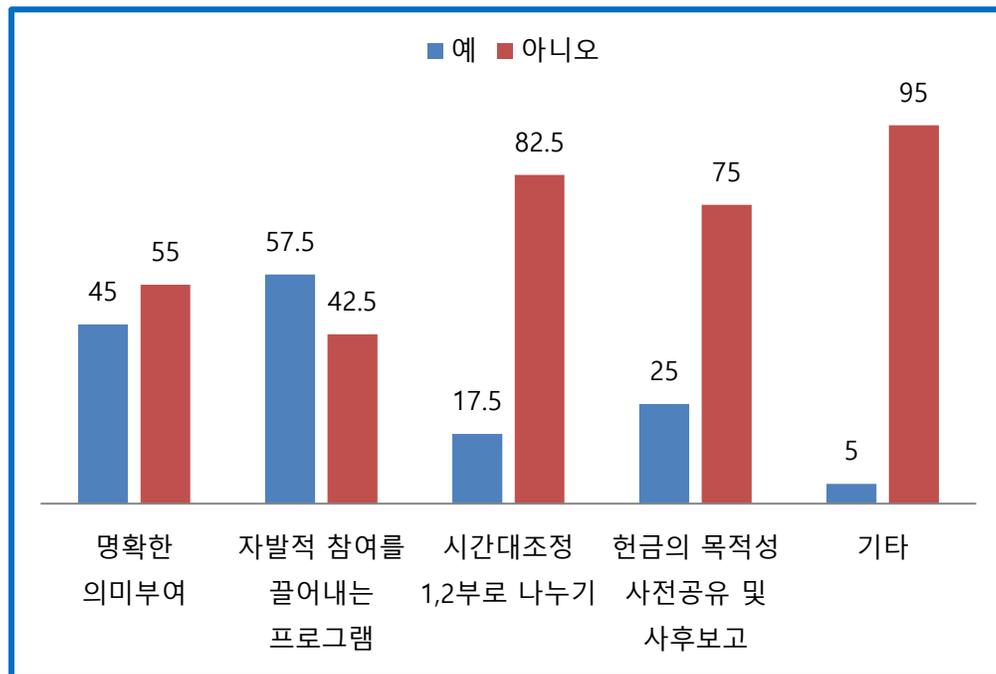
12-1번 문항은 부활절생명축제의 긍정적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교회사역에 대한 이해 향상 62.5%, 교인들간의 교제 향상 55%, 전도 및 선교활동에 대한 관심 향상이 60%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부활절생명축제가 교회 내 사역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앙성숙을 통한 가정 및 직장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답변이 45%에 그쳐, 아직은 교회절기사역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미흡했다.

〈그림 14〉 부활절생명축제가 미친 부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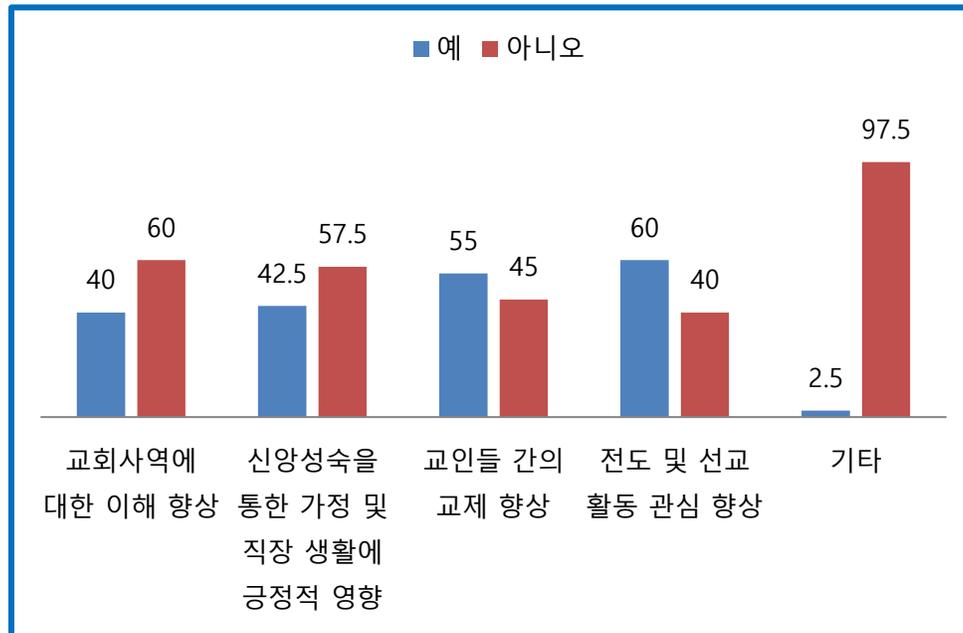
12-2번 문항은 부활절생명축제의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부정적인 영향은 대체로 20~30%에 미쳐 그 영향력이 높진 않지만, 권태감과 부담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행사의 반복에서 오는 권태감과 참여 및 헌금, 그리고 직장생활에까지 미치는 부담감을 줄이고, 교회절기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5〉 부활절생명축제가 영향력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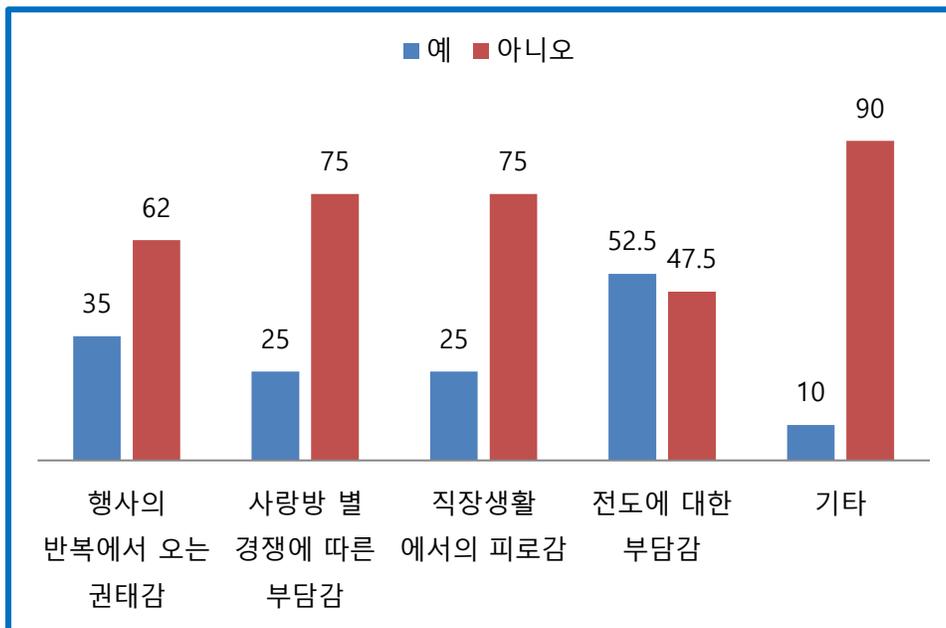
12-3번 문항은 부활절생명축제가 보다 영향력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특별히 명확한 의미부여 45%,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프로그램 57.5%로 교회절기사역이 여전히 자발적 참여보다는 의무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명확한 의미부여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그림 16〉 사랑방전도축제가 미친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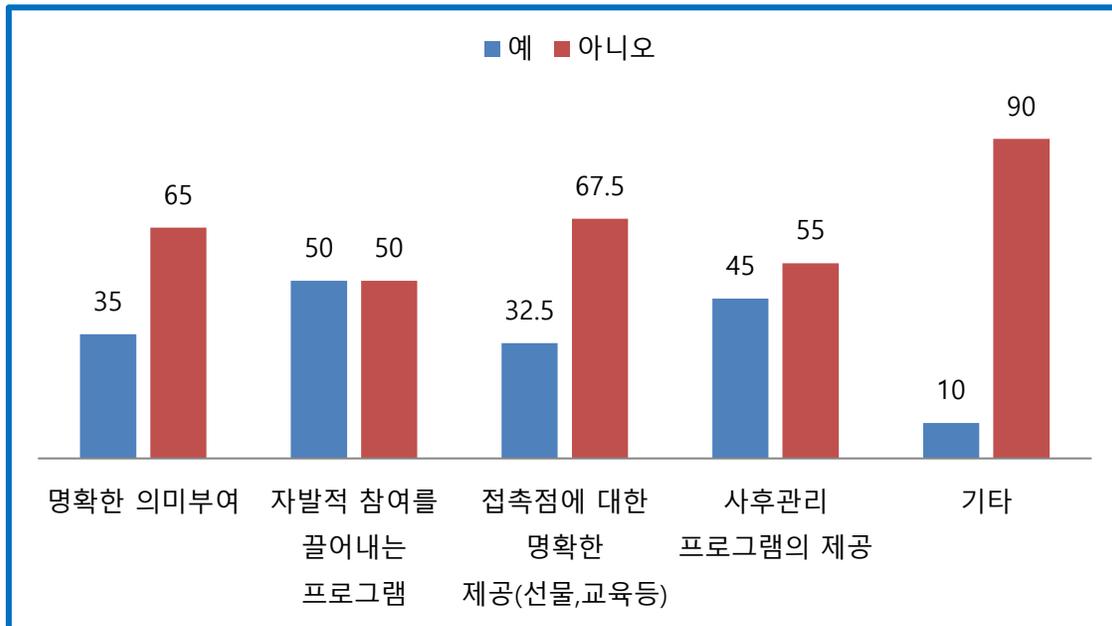
13-1번 문항은 사랑방전도축제의 긍정적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교회사역에 대한 이해 향상 40%, 신앙성숙을 통한 가정 및 직장생활에 긍정적 영향 42.5%, 교인들간의 교제 향상 55%, 전도 및 선교활동에 대한 관심 향상이 60%로 나타난다. 이는 사랑방전도축제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교인들간의 교제 및 신앙성숙에도 영향을 미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림 17〉 사랑방전도축제가 미친 부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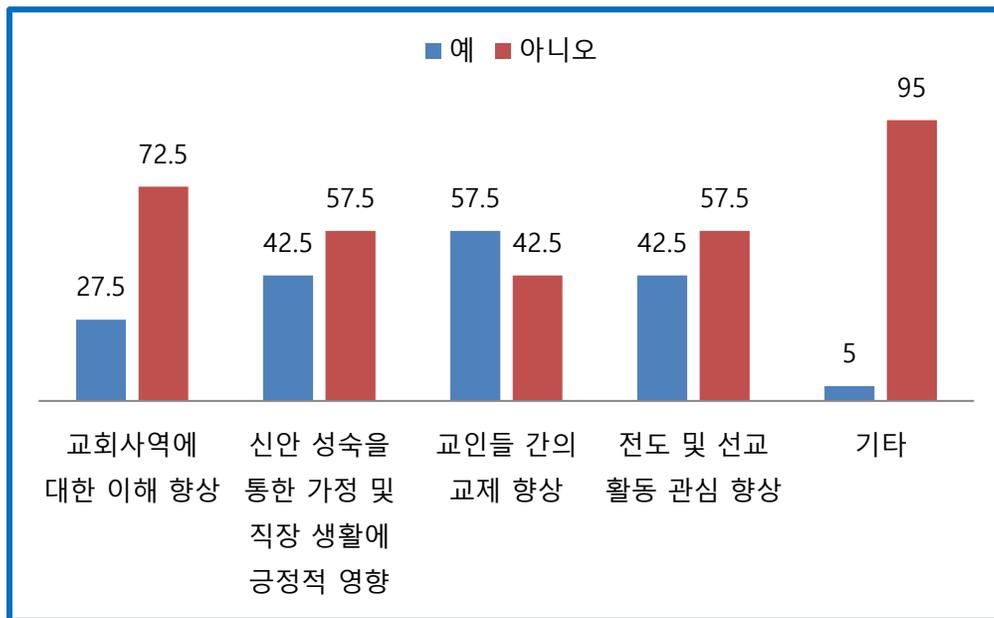
13-2번 문항은 사랑방전도축제의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부정적인 영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52.5%로 여전히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높았다.

〈그림 18〉 사랑방전도축제가 영향력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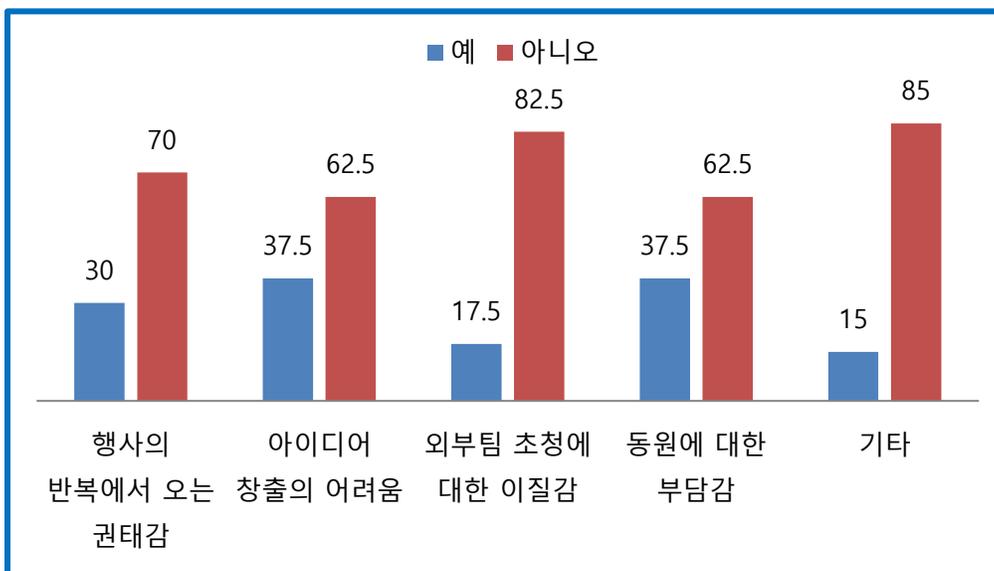
13-3번 문항은 사랑방전도축제가 영향력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명확한 의미부여 35%,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프로그램 50%, 접촉점에 대한 명확한 제공(선물, 교육 등) 32.5%,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제공 45%로 나타난다.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과 전도 이후에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9〉 예감축제가 미친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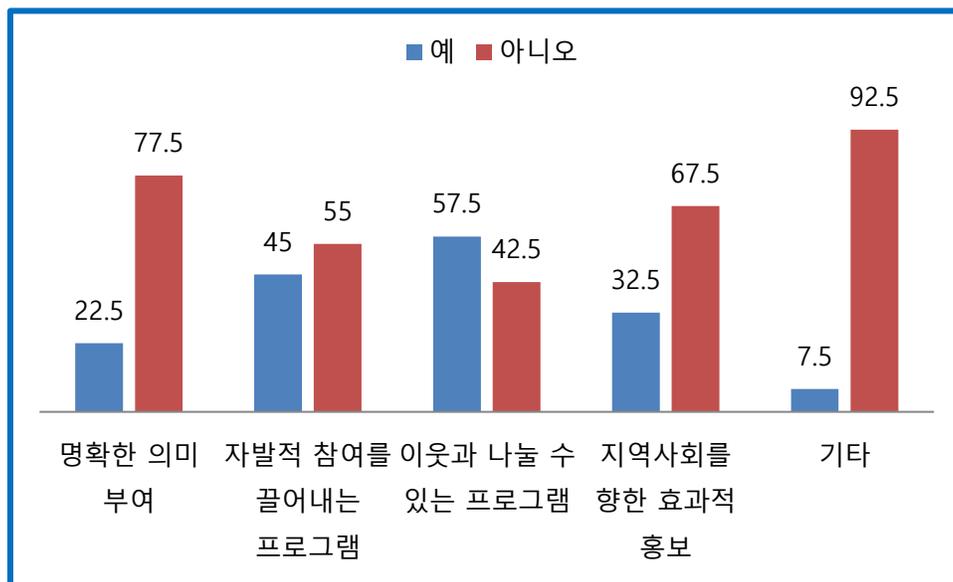
14-1번 문항은 예감축제의 긍정적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교인들 간의 교제 전도 향상이 57.5%로 예감축제 절기사역이 교인들 간의 교제 향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림 20〉 예감축제가 미친 부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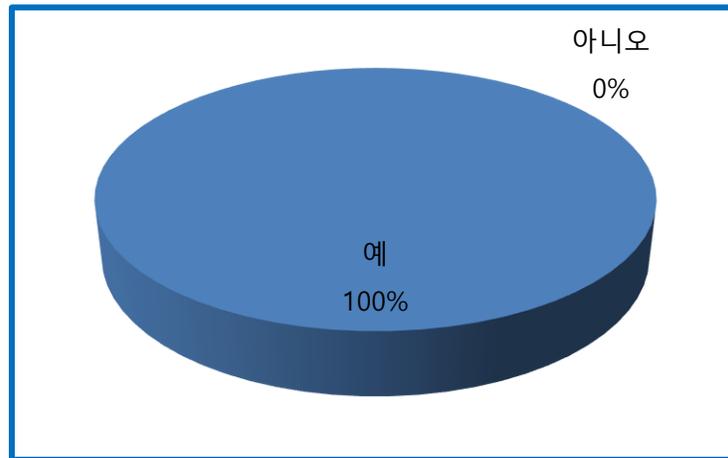
14-2번 문항은 예감축제의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교인들의 참여 발표가 주를 이루는 절기사역이므로, 매년 마다 진행하는데 아이디어 창출의 어려움과 동원에 대한 부담감이 37.5%로 나온다. 또한 행사의 반복에서 오는 권태감은 30%이상이 느끼는 것을 봐서 매년 새로운 형식의 축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1> 예감축제가 영향력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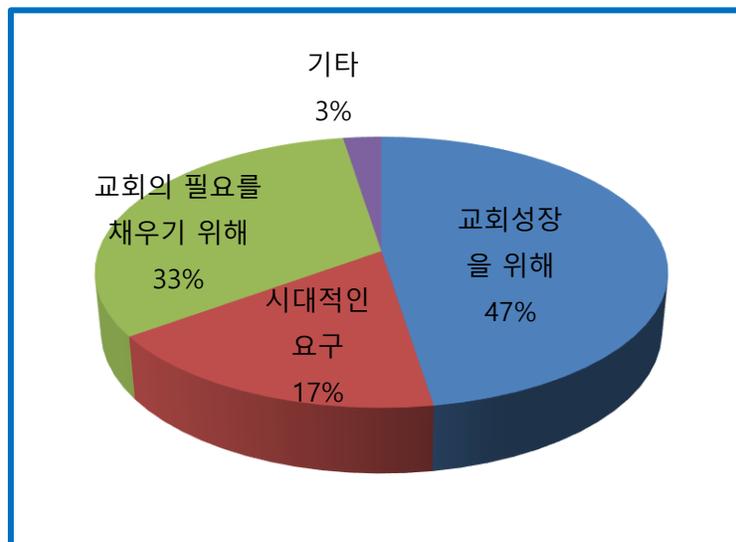
14-3번 문항은 예감축제가 영향력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명확한 의미부여 22.5%,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프로그램 45%,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57.5%, 지역사회를 향한 효과적 홍보 32.5%로 나타난다. 다른 절기사역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 또한 진정한 축제로서의 절기사역이 되려면 이웃과 나눌 수 있게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22〉 교회절기사역의 필요 유무



15번 문항은 교회절기사역이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이다. 참가자의 100%가 교회절기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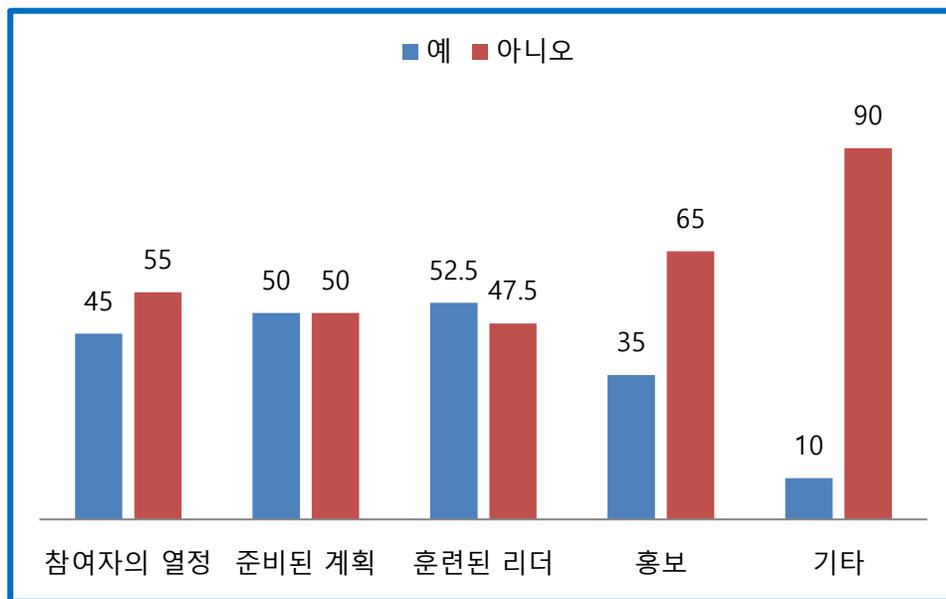
〈그림 23〉 필요에 대한 이유



16번 문항은 교회절기사역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 물음이다. 교회성장을 위해 47%,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33%, 시대적인 요구 17%, 기타 3% 순으로 답을 한다. 설문 참가자들은 교회의 필요 및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절기사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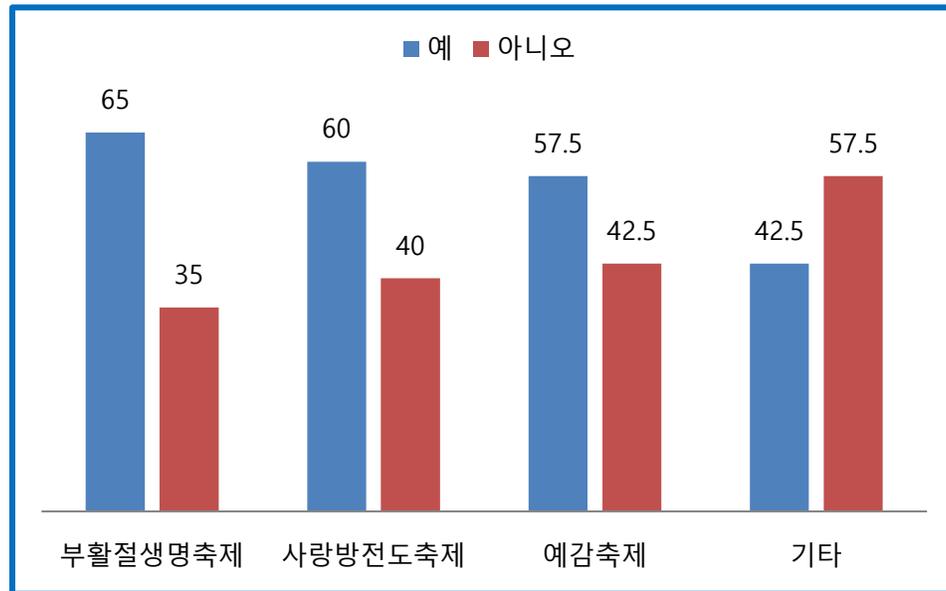
이는 서울신도교회가 몇 년간 진행한 교회절기사역에 참여했던 설문 참가자들이 교회의 목회 방향성 및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지표이다. 교회의 필요 및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함과 동시에, 여전히 참가자들의 관심사가 교회 내부에 머물러있다는 점에서 성도들의 삶의 영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절기사역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개선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림 24> 교회절기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



17번 문항은 교회절기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참가자들은 교회절기사역의 발전을 위해 훈련된 리더 52.5%, 준비된 계획 50%, 참여자의 열정 45%, 홍보 35%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교회절기 사역에 준비된 계획과 함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25〉 서울신도교회가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사역



18번 문항은 당신은 앞으로 서울신도교회가 어떤 사역을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는가 대한 물음이다. 참가자들은 부활절생명축제 65%, 사랑방전도축제 60%, 예감축제 57.5% 기타 42.5%로 모든 절기사역의 발전에 균형 잡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

#### 1) 긍정적 요소

본 설문조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6년 간 진행된 교회절기사역의 효율성 및 한계를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먼저 절기사역을 경험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분석 결과에 의하면, 본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 중 100%가 교회절기사역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그림 22〉) 특별히 교회절기사역이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45%가, (〈그림 10〉) 또한 교회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새신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67%가 응답을 하였다(〈그림 11〉). 이로 인해 교인들은 교회절기사역이 교회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특별히 새신자를 교회로 이끄는 데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들이 교회절기사역을 통해 받은 긍정적인 영향은 교인들의 전반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데, 특별히 모든 교회절기사역을 통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영향은 ‘교인들간의 교제 향상’과 ‘전도 및 선교활동 관심 향상’이었다. 교인들 간의 교제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나타난 신약 교회의 특징인 바,<sup>186</sup> 교인들 간의 기존 교제 방법이었던 소그룹 모임 등이 교회절기사역과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본 설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결론이다. 또한 교회절기사역이 교인들에게 전도 및 선교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교회의 목적 중 하나인 구령 사업에 교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 또한 본 설문을 통해 드러난 결론이라 하겠다.

## 2) 개선 방향

교회절기사역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 결과는 기존에 행했던 교회절기사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교회절기사역 자체가 교회사역에 대한 이해로 온전하게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절기사역에 대한 교인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과 상관없이, 그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 및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명한 형태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가정 및 직장생활로 대표되는 ‘삶의 영역’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절기사역 자체가 교인들의 삶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요소는 아니며, 본 논문 2장에서 언급한 선 순환의 과정 가운데서 다른 많은 요소들과 결합하여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로 인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절기사역은 단순한 이벤트들의 모임이 아닌 성경공부, 심화된 소그룹 모임, 지역사회로의 봉사 등 교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형태로

---

186) 본 논문 2장 참조.

나타나야 한다.

셋째는 교회절기사역으로 인해 받는 부정적 영향은 ‘부담감’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은 교회절기사역이 교인들의 신앙을 고양시키는 본래적 목적에서 은연중에 벗어나, 교인 개인 또는 소그룹 공동체를 평가하고 경쟁시키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사역을 진행하는 교회 리더 그룹은 교회절기사역의 본래적 목적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교회절기사역이 평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3) 소결론

본 설문의 분석 결과 교회절기사역은 침체된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다음 장에 결론으로서 현재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실정에 맞게 진행되는 절기사역을 소개하고,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각 교회에 적용 가능한 운영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제 5 장

### 절기사역 운영 방안

본 장은 연구자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서울신도교회 절기사역’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3장에서 살펴본 성경적, 신학적 내용들과 생명나눔 절기사역의 서울광염교회, 그리고 생명 전달 절기사역의 수영로교회에 대한 자료들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서울신도교회 절기사역에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장의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신도교회 절기사역 운영방안을 재점검하고 수정 및 보완된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이 운영방안은 신도교회 절기사역에 실제로 적용될 모델이다. 둘째, 교회성장을 위해 절기사역에 맞추어 진행하려는 개교회의 사역자들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 특별히 본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새맞특새’(새해맞이 특별새벽기도회)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절기사역은 서울신도교회 사역을 소개하는 3장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 1년 전체의 절기의 리듬에 따라, 건강한 신앙의 삶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완하여 넣었다.

#### 1. 새맞특새(새해맞이 특별새벽기도회)

##### 1) 개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사람이다. 교회 성장(**Church Growth**)보다 교회의 역동성 회복(**Restoring Church Dynamics**)이 먼저이다. 역동성을 회복하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동성을 일으키기 위하여 연말과 연초 두 주간 동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부흥을 부어 달라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는 새벽부흥회이다.

## 2) 명칭과 목표

본 프로그램의 명칭은 ‘새맞특새(새해맞이 특별새벽기도회)’로, 첫째, ‘새맞’이다. 이는 ‘새해맞이’라는 말의 준말인데, 연말 지나고 연초에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를 말한다. 둘째, ‘특새’이다. 이는 ‘특별새벽기도회’를 말하는데, 3주간의 특별한 기간을 특별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고, 다시 신앙 안에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다.

이 절기사역은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7대 절기 중 ‘나팔절’과 ‘속죄일’에서 착안해온 것이다. 이 절기는 일 년에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을 맞음으로써 택한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회복하는 날이다.<sup>187</sup> 나팔절에 울리는 나팔소리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기억케 하는 매개가 되었다. 나팔절의 중요한 규례는 ‘노동을 멈추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것’(레 23:25)으로,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해 행하는 노동을 멈추고 자기 백성의 삶에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즉 참여자로 하여금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나팔절의 바른 의미를 회복하게 한다. 따라서 새맞특새의 목표는 나팔절의 바른 의미를 회복함으로 인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 3) 주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부흥”

## 4) 성구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187) 「레위기 제18-27장」,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서울: 제자원, 2003), 379.

바라리이다”(시 5:3)

5) 프로그램

<표 2> 새맞특새 실행 프로그램

구분	주간/요일	내용	비고
1주차	1일차(월)	본문: 느헤미야 1장 1-5절 제목: 기도로 성벽을 재건하라	
	2일차(화)	본문: 느헤미야 1장 6-11절 제목: 응답 받은 기도	
	3일차(수)	본문: 느헤미야 2장 1-10절 제목: 비전을 품고 기도하라	
	4일차(목)	본문: 느헤미야 2장 11-20절 제목: 비전을 나누라.	
	5일차(금)	본문: 느헤미야 3장 1-5절 제목: 함께 세우는 성벽.	
	6일차(토)	본문: 느헤미야 3장 6-11절 제목: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세워가라	
2주차	7일차(주일)	본문: 느헤미야 4:1-6절 제목: 선한 일에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8일차(월)	본문: 느헤미야 4장 7-14절 제목: 좌절을 이기는 믿음으로 일어서라	
	9일차(화)	본문: 느헤미야 4장 15-23절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일어서라	
	10일차(수)	본문: 느헤미야 5장 1-13절 제목: 서로를 돌아봄으로 일어서라	
	11일차(목)	본문: 느헤미야 5장 14-23절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	
	12일차(금)	본문: 느헤미야 6장 1-9절 제목: 어려움을 이기는 힘	
	13일차(토)	본문: 느헤미야 6장 10-19절 제목: 참된 승리	

3주차	14일차(주일)	본문: 느헤미야 7장 1-4절 제목: 재건 보다 중요한 것은 수성이다	
	15일차(월)	본문: 느헤미야 8장 1-12절 제목: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라	
	16일차(화)	본문: 느헤미야 8장 13-18절 제목: 부흥이 삶이 되게 하라	
	17일차(수)	본문: 느헤미야 9장 1-6절 제목: 부흥은 회개이다.	
	18일차(목)	본문: 느헤미야 9장 33-38절 제목: 여호와께 순종하라	
	19일차(금)	본문: 느헤미야 10장 28-31절 제목: 신앙의 매듭	
	20일차(토)	본문: 느헤미야 13장 4-9절 제목: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매 해마다 주제를 바꾸어서 진행한다.			

## 6) 세부 계획

### (1) 아침식사 제공

매일 새벽기도 후 간단한 빵, 우유, 과일 종류로 준비한다. 아침 준비는 사랑방과 전도회 별로 돌아가면서 담당한다. 그 외에는 자원하는 자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한다.

### (2) 담임목사 안수/축복 기도

매일 환우를 위한 치유기도를 실시한다. 매일 사랑방과 전도회 별로 돌아가면서 가정별로 안수기도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전 성도를 대상으로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실시한다.

## (3) 특새 책자

특새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자를 제공한다. 교재는 특새 시작 전 주일에 전 교인에게 배부한다. 빠짐없이 교재를 지참하며 매일 새벽말씀을 기록하며, 실천과제를 실시한다.

## (4) 현금기도

현금기도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준비하고 봉투를 준비한다. 현금 봉투에 기도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제작한다. 현금 봉투에 적힌 기도제목을 특새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전 교역자가 기도한다.

## (5) 모닝콜

사랑방과 전도회 별로 리더들이 모닝콜을 하여 깨운다. 모닝콜(Morning Call)을 원하는 분을 위한 신청서 별지를 만들고, 정확한 시간에 봉사하도록 한다.

## (6) 순서담당

20일 동안 20명의 대표기도자, 특송, 반주자, 안내자, 찬양팀을 세운다. 특송은 사랑방과 전도회 별로 돌아가며, 성가대는 첫날과 마지막 날 필수로 세운다. 매일 순서 담당자는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진다.

## (7) 차량 봉사 및카풀 운영

교회를 중심으로 단, 중, 장거리별로 지역의 책임자를 세워 서로 도와주며 미리 차량을 배치하고, 시간표는 주보에 별도로 실어준다. 또한 인원과약과 교회 차량 운행에 대해 게시판과 홈페이지와 주보를 통해 홍보를 한다. 시간과 차량 팀장을 거리와 지역에 맞추어 세운다.

## (8) 출석 확인스티커

출석확인표는 교재와 게시판을 활용한다. 출석 확인 담당자는 30분 전에 대기 완료한다. 전 기간 동안 빠짐없이 출석하는 자에게 선물을 증정한다.

## (9) 개인 기도카드

기도요청카드를 자발적으로 내도록 한다. 전체의 참여를 위하여 주일예배 시 기도카드를 기록하도록 한다. 개인 기도카드는 매일 합심기도 시간에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한다. 매일 새벽 기도카드를 가지고 전 교역자가 기도한다.

## (10) 실천원리

첫째, 특새 기간 동안 가족들과 경건하게 기도하며 지내라. 둘째, 매일 새벽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라. 셋째, 하루에 한 번, 온전한 금식을 하라. 넷째, 혈기를 내거나 험담을 하지 말라. 다섯째,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삼가라. 여섯째, 사치스러운 쇼핑을 하지 말라. 일곱째, 외식을 하지 말라.

## 2. 부활절 생명축제

## 1) 개요

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이다. 예로부터 서양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고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켰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부활절은 교회 자체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그러므로 행사는 예배와 단순한 흥미 위주의 자체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부활이 단순히 믿는 자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과 승리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주어진 참 소망의 사건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쁜 명절인 부활절기는 축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축제는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첫째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축제이며, 둘째는 공동체 및 이웃과 함께 그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축제이다. 한마디로 부활절은 교회와 지역공동체를 포함하는 전도축제 또는 생명축제가 되어야 한다.

## 2) 명칭과 목표

본 프로그램의 명칭은 ‘부활절생명축제’로, 세 개의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성된 것이다. 첫째, ‘부활절’이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진다는 의미이다. 둘째, ‘생명’이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연합한 성도들이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을 기뻐하는 날이다. 셋째, ‘축제’이다. 축제는 교회에만 국한된 용어가 아니며, 형태 또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쉽게 접근하고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참여자로 하여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유월절(무교절, 아빕월)’의 바른 의미를 회복하게 한다.<sup>188</sup> 그로 인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삶을 살도록 하며, 그 기쁨의 복된 소식인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교회 안과 밖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나누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 3) 주제

“기쁨의 시작, 생명 나눔”

## 4) 성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

188) 유월절(무교절, 아빕월)의 의미는 2장을 참조하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 5) 프로그램

##### (1) 황금알을 찾아라

이 프로그램은 부활절생명축제 중 교회 내부적 행사로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을 전 세대가 함께 즐거워하며 특별히 다음세대로 하여금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로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가르치는 행사이다.

<표 3> 황금알을 찾아라 실행 프로그램

시간	순서내용	진행과정	비고
11:30 ~12:40	계란 준비 & 계란 숨기기	1) 계란 속에 색으로 구분한 쪽지 넣기 2) 계란 준비 교회실내 전층에 계란숨기기	모형계란 500개 색지 7종
12:40 ~13:00	황금알을 찾아라	1) 예배 후, 황금알을 찾아라! 광고후 행사 진행 (1인 1선물, 선물은 1층 로비에서 증정)	모형계란 &쪽지 샘플
13:00 이후	선물증정	1) 장소: 1층 로비(책상 4개, 담당자 6명) 2) 계란과 쪽지를 모두 받고, 해당되는 색상 선물을 바로 증정	식탁 4개 선물(7종) 6명 담당자
사전 준비	선물구입	1) 기증자들에게 받음 선물 개수 파악, 2) 모자란 부분을 파악하여 토요일까지 선물 구입	색지 7종류 선물 7종류

##### i) 세부 계획

필요한 플라스틱 계란의 수를 확인하고, 말씀이 들어 있는 색지를 넣는다. 준비된 모형 계란을 교회 전체에 골고루 숨겨 둬서 교회로 돌아보도록 하여 교회에 대한 애착을 높인다. 성도들 모두에게 선물이 돌아가도록 작지만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한다.

## ii) 준비

선물을 각 기관이나 부서, 개인별로 기부를 받는다. 모형 계란을 교회 구석구석 숨겨둘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한다. 7종류의 색지와 7종류의 선물을 준비하여 시각화 한다. 1층 로비에 선물을 준비해서 찾는 즉시 선물교환이 가능하도록 셋팅한다.

## (2) 부활절 축제예배(온 가족이 함께 하는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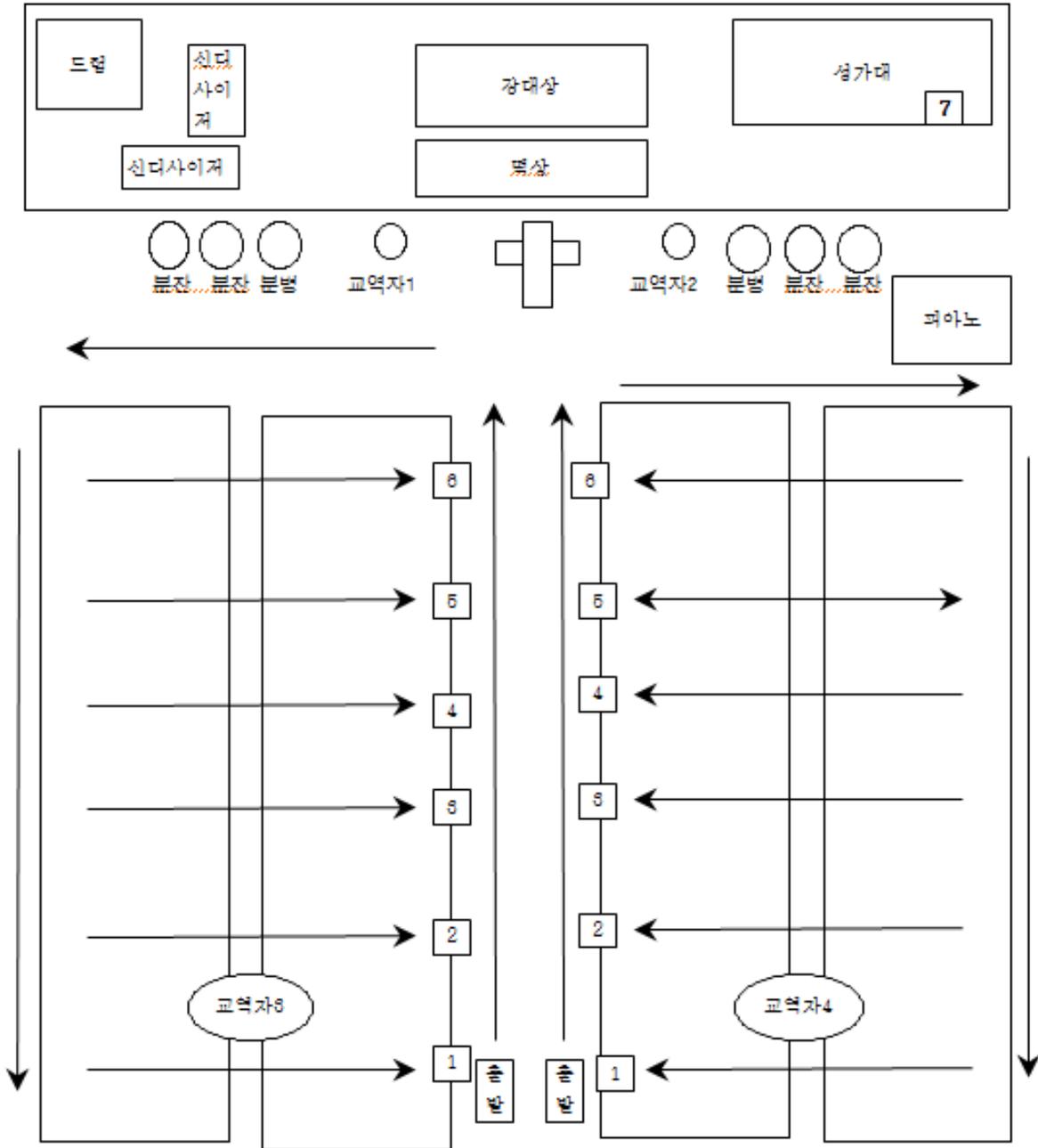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므로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행사이다.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서는 시간을 가진다.

<표 4> 부활절 축제예배 실행 프로그램

시간	순서내용	진행과정	조명 /음향
11:00 ~11:15	경배와찬양 (리조이스 찬양팀)	1) 환영과 축복의 찬양으로 시작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 찬양 후 회중 기도 인도 후 찬양팀 OUT	ALL ON
11:15 ~11:20	영상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감동 인터뷰 영상	ALL OFF
11:20 ~11:35	스킷 드라마	“부활의 증인들” 1) 부활절 영상 중 스킷 드라마 자리 위치 2) 영상이 끝남과 동시에 진행 3) 끝나면 박수 받으며 퇴장하고 목사님 등단	무대 조명 MR확인 PIN 1,2 회중 OFF
11:35 ~11:50	설교	부활 메시지로 설교 진행 제목: 부활의 증인들 본문: 요한복음 20:1-10절	ALL ON

11:50 ~12:25	성찬	<p>다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을 부른 후 반주가 바뀌면서 목사님이 성찬 진행에 대한 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나누어 드린 회개의 카드에 우리의 죄를 기록합니다.</li> <li>2) 그리고 회개의 카드를 놓고 모두가 함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li> <li>3) 기도 후 찢어 비닐에 봉하도록 합니다.</li> <li>4) 성찬을 시작하면 각자의 회개카드를 가지고 앞으로 나와 십자가에 붙이도록 합니다.</li> <li>5) 성찬은 교역자들의 안내에 따라 맨 뒷줄부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li> <li>6) 먼저 떡을 드시고 잔을 받으려 하겠습니까.</li> </ol> <p>&lt;준비사항&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역자들을 유리테이프 준비하여 회개카드를 사람들이 직접 붙일 수 있도록 나누어 준다.</li> <li>2) 진행되는 동안 성도들은 기도하며 기다린다.</li> <li>3) 음향/반주자로 보혈송을 계속 연주하게 한다</li> <li>4) 영상/소리를 죽이고 영상만 방영되도록 한다</li> </ol>	<p>무빙 십자가 집중 무대 조명 ON 회중 OFF</p>
12:25 ~12:30	찬송 및 축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멘트: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생명 주께 있네”를 부르시겠습니다.</li> <li>2)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마무리한다.</li> </ol>	ALL ON

<그림 26> 부활절 축제예배 성찬식 진행도표



## (3) 외침전도 및 계란나누기

이 프로그램은 부활절생명축제 중 교회 외부적 행사로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고, 부활의 상징인 계란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직접으로 전하는 행사이다.

&lt;표 5&gt; 외침전도 및 계란나누기 실행 프로그램

시간	순서내용	진행과정	비고
13:30 ~14:00	사랑방 모임	계란 분류 및 전도지 접기	계란, 포장팩 교회로고 스티커
14:00 ~14:15	분당 집결	1) 마을별 좌석 배치 (포장한 계란과 전도지 들고) 2) 전도 방법 및 구역 설명 3) 거리 선포 예행연습 4) 기도 5) 단체사진촬영 후 출발	무선 마이크
14:15 ~14:35	장소 이동 및 거리 선포	1) 선창자 선포 2) 횡단보도 마다 이동 도우미 배치 (2명씩) - 빠르게 이동하도록 인도	이동식 앰프 경광봉, 띠
14:35 ~14:45	집결지 찬양	악보 없이 모두가 아는 찬양으로 준비	
14:45 ~15:00	집결지 선포	1) 선포 2) 합심기도	
15:00 ~	계란 나누기	1) 마을에 해당된 구역으로 전도 (행인 보다는 상점 중심으로 나누기) 2) 나눔 후 개별적으로 복귀	

## i) 세부 계획

필요한 계란의 수의 확인과 포장을 한다. 전도용 홍보 책자나 안내지, 물티슈, 띠 등을 배부한다. 특별히 지역의 약한 교회를 도울 경우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ii) 준비

각 기관별이나 부서, 개인별로 기부를 받는다. 지역의 방문 대상을 미리 파악하고, 방문자의 수와 퍼포먼스를 준비한다. 방문 시 주는 전도용 패키지를 준비한다.

## (4) 실천원리

첫째,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라. 둘째, 부활절 축하감사헌금을 정성껏 준비하라. 셋째, 초청 및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초대하라. 넷째, 계란을 잘 꾸며서 교회로 가져오라. 다섯째, 황금알을 찾아라 및 외침전도에 참석하라. 여섯째,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한 가지 이상을 실천하라. 일곱째, 이웃들에게 부활을 소식을 알리는 계란과 부활절 카드를 보내라.

## 6) 개선점

4장의 설문조사에 보면, 부활절생명축제가 미친 긍정적인 영향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교회사역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다’가 62.5%, 그 다음이 ‘전도 및 선교활동 관심이 향상되었다’가 60%였다.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프로그램’이 57.5%로 가장 높았다. 그래서 각자가 나누는 계란 나누기에서 온 성도가 함께 나가 신앙을 고백하는 형태의 ‘외침전도’ 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그로 인해 교회사역에 직접 동참함으로 전도(선교)에 대한 경험을 가지게 하고, 교회사역을 더 잘 이해하게 함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행사의 반복’에서 오는 ‘부담감’이 40%와 ‘권태감’이 32.5% 였다. 그래서 먼저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성찬까지 이어지는 부활절 축제예배를 기획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가운데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였다. 또한 ‘권태감’을 줄이기 위해 ‘황금알을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으로 흥미를 유발시키고, 재미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 관련된 성경구절을 각자에게 줌으로서 매너리즘을 극복하게 하였다.

### 3. 행복콘서트

#### 1) 개요

신약교회 절기인 오순절은 큰 명절의 하나이다. 구약의 칠칠절(레 23:15~21)은 유월절로부터 7주 후에 오는 날(출 34:22, 신16:10, 레 23:15~22)로 이것은 율법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로 제정되었고(출 19:1),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처음 시작되며 주일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날(행 20:7, 고전 16:2)이기도 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 절기를 지키며 회복해야 될 이유가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 2) 명칭과 목표

본 프로그램의 명칭은 ‘행복콘서트(Happy Concert)’로, 두 개의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성된 것이다. 첫째, ‘행복(Happy)’이다. 이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가 행복으로의 길(요 14:6)이므로 그 행복인 예수를 전하고 소개하는데 있다. 둘째는 ‘콘서트(Concert)’로, 두 사람 이상이 음악을 연주하여 청중에게 들려주는 모임<sup>189</sup>으로 행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주회를 뜻한다. 즉 행복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함께 노래한다는 뜻이다.

또한 참여자로 하여금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칠칠절(오순절, 초실절, 맥추절)의 바른 의미<sup>190</sup>를 회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영적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표이다.

18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콘서트”, [온라인 자료]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7년 11월 30일 접속.

190) 칠칠절(오순절, 초실절, 맥추절)의 의미는 2장을 참조하라.

## 3) 주제

“행복한 만남, 아름다운 동행”

## 4) 성구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신 10:13)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신 33:29)

## 5) 세부계획

## (1) 전체 진행

<표 6> 행복콘서트 실행 프로그램

구분	주간	내용	비고
작성	1주	발대식 (VIP작성 주간 1주차 - 전체)	작성카드 배부
	2주	전도간증집회 (VIP작성 주간 2주차 - 사랑방)	VIP(작성자) 명단 작성
기도	3주	드림식 (사랑방 기도 주간 1주차)	기도제목 배부
	4주	전교인 산상기도회 (사랑방 기도 주간 2주차)	기도카드 배부
섬김	5주	행복세미나(Ⅰ) / 가정세미나 (섬김 주간 1주차)	접촉 선물 배부 어린이주일
	6주	행복운동회 (섬김 주간 2주차)	교회 초청장 발송 아버지주일
초청	7주	행복세미나(Ⅱ) / 교사세미나 (초청 주간 1주차)	사랑방 초청 준비 교사격려주일
	8주	행복콘서트 (초청 주간 2주차)	교회 방문자 선물 증정 새가족 만찬의 날

(2) 진행 내용

전반기 사랑방전도축제로서 행복콘서트 진행 프로그램은 사랑방을 중심으로 작성 →기도  
 →섬김 →초청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사랑방 모임을 위한 안내지가 한 주전 리더들에게 먼저  
 숙지되고, 그 숙지된 안내지를 통해 주차별로 진행된다.

(3) 발대식

<표 7> 발대식 실행 프로그램

시간	제목	내용	조명/음향
14:20 14:50	리허설	1) 각 사랑방리더 자리 배치 및 특송 점검 2) 배치	
		정기마을      정식마을      귀옥마을      피아노	
		경자마을      경숙마을      영조마을      청년부	
		청소년부      유초등부      영유치부      영어예배부	
		3) 특송: “주의 진리위해 십자가군기” 4) 음향: “광과레” (담임목사 선포 시 사용) 5) 영상: “팽귤” 6) 사진촬영: 2명 (무대 앞, 전체) 7) 구호 배너를 무대 단상에 배치	
14:55 15:15	예배 찬양	20분 찬양 후 회중 기도 인도 후 OUT	ALL ON
5초	스팟 영상	사랑방전도축제 소개영상	ALL OFF

15:15 15:20	오프닝 선포식	<p>1) 기도 중에 사회자 강단에 등단 / 회중 조명 Off</p> <p>2) 사회자 멘트: “지금으로부터 0000년 상반기 사랑방 전도축제인&lt;행복콘서트&gt;를 위한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사랑방전도축제의 시작을 선포하시겠습니다.”</p> <p>3) 담임목사선포: “0000년 0월 0일자로 0000년 상반기 사랑방전도축제의 시작을 선포합니다!”</p> <p>-선포와 함께 “광파레(BGM)” 무대 조명을 화려하게 회전한다.</p> <p>-광파레 후 전체 조명 / 무대 조명은 기본 색으로 하여 강단을 비추게 한다.</p> <p>-모든 성도들의 박수와 환호</p>	ALL OFF PIN1 집중 MIC 2개
15:20 15:25	선서식	<p>1) 사회자 멘트: “선서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성도들은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을 대표하고 섬기는 마을장들과 사랑장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BGM, 행진곡 또는 경쾌한 곡)</p> <p>-강단 중앙으로 입장한다. 입장할 때 성도들 기립</p> <p>-강대상 계단에 마을장 기립, 계단 밑에 사랑장들 기립하 선다.</p> <p>-강단을 향해 보도록 한다. 선서자 대표가 강대상 앞으로 나와 선서한다.</p> <p>-선서자가 오른손을 올릴 때 모두가 회중의 모두가 오른손을 올려 선서한다.</p> <p>-선서자가 선서를 마칠 때 “아멘”을 외치고 함께 내린다.</p> <p>2) 선서문 낭독 (프리젠테이션에 빨간색 글씨 부분을 회중이 따라한다. 선서는 선서자 대표가 선창)</p> <p>-우리는 0000년 상반기 사랑방전도축제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여 서울의 십만 영혼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p> <p>하나, 나는 지금부터 사랑방전도축제를 위해 매일“기도하겠습니다”.</p> <p>하나, 나는 주님의 심정으로 매일 VIP를 위해“기도하겠습니다”.</p> <p>하나, 나는 VIP를 주님의 사랑으로“섬기겠습니다”.</p> <p>하나, 나는 VIP를 사랑방과 교회에“초청하겠습니다”.</p> <p>하나, 나는 5천의 사랑방과 3백의 선교사 세움을 위한 교회 비전을 위해“헌신하겠습니다”</p> <p>0000년 0월 0일 선서자대표 000 (회중들은 이름이 끝나면 아멘을 외치고 손을 내린다.)</p> <p>선서문 낭독 후 선서문을 담임목사님께 드린 후 자리로 돌아간다.</p>	BGM

15:25 15:30	구호제창	<p>1) 사회자 멘트: “구호 제창이 있습니다. 선창하면 모두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2번씩 외치도록 한다.)</p> <p>-대표(1) -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하자  -대표(2) - 내가 전한 복음/ 생명되어 돌아온다.  -대표(3) - 하면된다. 할수있다. / 전도하자. 전도하자.  -대표(4) - 내가족 내이웃 / 사랑하면 전도하자  -대표(5) - 너도나도 영혼구원 / 나도너도 복음증거  -대표(6) - 사랑하면 전도하자 / 복음만이 살길이다.</p>	PPT
15:30 15:35	목자 특송 및 영상	<p>1) 사회자 멘트: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사랑방 리더들이 하나님께 준비한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p> <p>-특송: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군기”  (찬송가 358장, 1절 후 2절은 개사 곡)  -개사곡을 할 때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자가 인도한다.  “영혼 구원위해 신도의 성도 / 모두 함께 일어나  주의 명령따라 가는 곳마다 / 구원 역사 나타나  일어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온 세상에 전하세”  “주여 주여 우리 신도교회를 / 구원방주 삼으사  여기 저기 주의 말씀의 능력 / 구원의빛 비추네  일어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온세상에 전하세”</p> <p>2) 사회자 멘트: “할렐루야. 모두가 한마음되어 영혼 구원을 위한 최고의 노력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들 퇴장하겠습니다.”</p>	ALL ON
15:35 15:40	영상	“행권” - 퇴장과 회중 착석과 더불어 영상을 보도록 한다.	ALL OFF
15:40 16:00	설교	<p>1) 영상 엔딩 부분에서 목사님 등단  2) 말씀 봉독 및 설교</p>	무선마이크 무대 ON
16:00 16:05	작정멘트와 작정	<p>1) 설교 후 바로 작정 시작  2) 작정 멘트</p> <p>-이번 시간은 사랑방전도축제에 초청할 VIP를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다같이 후보에 삽지되어 있는 작정카드를 꺼내서 이름과 마을, 사랑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볼펜과 작정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5초).  -제출용 뒷면의 효과적인 전도대상자를 찾는 법을 보며, 작정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설명: 1분 30초)  -이제, 그동안 기도해왔던 전도대상자, VIP의 이름을 작정카드에 옮겨 적으시겠습니다.</p>	무선마이크 무대 ON ALL OFF BGM

		<p>= 사랑방에서 이미 작성하신 분들은 추가되는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p> <p>= 생각나는 VIP의 이름을 카드에 적으시기 바랍니다.</p> <p>= 한 분이 7명 이상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작성은 믿음의 씨뿌림입니다.”</p> <p>“이름을 적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p> <p>“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p> <p>“작성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새가족위원들은 작성카드 및 볼펜을 준비하여 없는 성도들에게 전달한다.</p>	
16:05 16:10	작성 및 마무리	<p>-다 적으신 분은 절취선을 따라 분리하시기 바랍니다.</p> <p>-보관용 카드는 가지고 계시면서 사랑방전도축제 기간 동안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p> <p>-VIP 이름이 적힌 제출용 카드는 헌금시간에 헌금과 함께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p> <p>-미처 제출하지 못한 카드는 나가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p> <p>이제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과 함께, 사랑하는 영혼의 이름이 적힌 작성카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p> <p>*특송: 예정된 청년(누군가 널위해 기도하네)</p> <p>-특송자는 피아노 뒷자석에 앉아서 준비할 것.</p>	무선마이크 무대 ON
16:10 16:20	작성 마무리	<p>1) 기도와 축도</p> <p>2) 축도 중에 찬양팀 나와서 준비하고 축도 후 바로 찬양으로 마무리한다.</p>	무선마이크 무대 ON

#### (4) 작성 주간 (1~2주차)

##### i) 작성 주간 1주차

사랑방 모임에서 “효과적인 전도대상자 찾는 법”을 통해 VIP를 작성한다. VIP를 작성할 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사랑방방에 초청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삼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도대상자이지, VIP는 아니기 때문이다.

첫째 기도하기(10분)이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많은 VIP가 초청되어 오도록 기도한다. 또한 작성한 자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한다. 둘째는 VIP찾기(10분)이다.

작성카드의 ‘효과적인 전도대상자 찾는 법’을 참고하여 사랑방 리더가 인도한다. 언제든지

만나서 교체할 수 있는 매우 절친한 관계 (핵심 관계망), 가끔 만나서 교체하는 어느 정도 아는 관계 (일상 관계망), 그냥 안면이 있는 정도의 관계 (주변 관계망),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 (지역 가족 관계망), 같은 직종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직종 관계망)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VIP를 작성한다.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돌아본다. 이후에 지금까지 찾은 사람들 중에서 이번 사랑방 전도축제 기간 중 사랑방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7명을 작성카드에 기록한다. 그 후에 VIP를 작성한 이유와 상황에 대해 함께 나눈 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부른 후 사랑방전도축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고 마무리한다.

<그림 27> 효과적인 전도 대상자 찾는 법<sup>191</sup>

### VIP 작성 이렇게 합시다.



191) 김종균, “수영로교회 사랑목자 가이드북”, 「일만 사랑방 운동본부」 2014년, 12.

## ii) 걱정 주간 2주차

이 주간은 지난 주 1차 걱정했던 VIP 외에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VIP를 걱정하는 시간이다. 행복세미나 I, II, 행복운동회 및 행복콘서트에 데려온 VIP도 함께 걱정한다.

첫째 기도하기(10분)이다. 지난 주와 오늘 추가된 각각의 VIP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지난 주 걱정했던 VIP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로 나오는데 어떠한 방해물이 없도록 기도한다. 둘째는 VIP찾기(10분)이다. 1차 걱정 때 기록하였던 VIP이름을 함께 나누고, 새롭게 발견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돌아본다 (배우자 사별, 이혼, 별거, 질병, 사업부도, 실직, 결혼, 출산, 결혼생활 불화, 사업시작, 진학, 졸업, 재정적 고통, 이사, 취업, 습관의 변화, 생활의 변화 등). 셋째는 초청할 VIP발견하기(10분)이다. 지난 주에 걱정한 사람들 외에 추가할 사람들을 나누고 걱정자 중 행복세미나 I, II, 행복운동회 및 행복콘서트에 초청하길 원하는 VIP명단을 나눈다. 그 후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부른 후 사랑방전도축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고 마무리한다.

## (5) 기도 주간 (3~4주차)

## i) 기도 주간 1주차

이 주간은 걱정된 VIP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VIP는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누고 VIP를 위한 가장 최선은 바로 기도임을 사랑방 리더가 강조하는 시간이다.

첫째, 기도하기(10분)이다. 지금까지 걱정된 VIP를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VIP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간섭과 억압에서 자유케 되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기도한다. 또한 VIP의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도구로서 자신과 사랑방을 사용하시도록 기도한다. 성령께서 모든 행동과 말을 인도해 주셔서 적당한 때에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한다. 둘째는 기도 계획 세우기(10분)이다. 먼저 지난 주에 걱정된 모든 VIP명단을 각자 노트에 기록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며 접촉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그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부른 후 사랑방전도축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고 마무리한다.

#### ii) 기도 주간 2주차

이 주간은 관계전도는 소그룹 합심기도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이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 기도하고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동력을 얻도록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첫째, 기도하기(10분)이다. 소그룹 전체가 VIP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후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한 주간 함께 기도할 2, 3명의 기도 짝을 만든다. 둘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합심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확인한 대로 ‘함께’ 기도하는 것의 능력을 서로 나눔으로 확신을 가진다. 셋째 사랑방 초청을 계획하기(10분)이다. 사랑방 초청을 위한 담당자 및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간식, 장식, 찬양, 마음열기, 간증, 기타 등) 그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부른 후 사랑방전도축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고 마무리한다.

### (6) 섬김 주간 (5~6주차)

#### i) 섬김 주간 1주차

이 주간은 그 동안 기도로 섬겨온 VIP를 이제 실제적으로 섬기는 시간이다. 2주 후에 사랑방에 초청할 수 있도록 몇 번의 만남을 가져야 한다. 이때 함께 했던 기도 짝과 함께 섬기면 더욱 좋다. 그러면 사랑방에 초청되었을 때 낯설지 않고,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 점에서 2주간의 VIP섬김은 성공적인 사랑방 초청과 행복콘서트 초청을 위해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첫째, 필요를 채워줄 VIP를 찾는 시간(10분)이다. VIP중에서 축하할 일(생일, 기념일, 결혼,

승진, 졸업, 취업, 환갑, 개업 등), 위로가 필요한 사람(사망, 사고, 질병, 이혼 등으로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아기 봐주기, 병간호, 이사 돕기, 청소해주기, 시장 같이 가기, 음식 같이 만들기 등),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는 사람(음식 나눠먹기, 꽃씨 나눠주기, 식사 대접하기, 영화보기, 장난감 빌려주기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VIP의 필요를 채워주는 계획을 세우는 시간(10분)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함께 계획을 세운다. 셋째, 사랑방과 행복콘서트에 어떻게 초청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운다(10분). 그 후에 성공적인 행복콘서트와 사랑방 초청이 이루어지도록 VIP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기도한 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부른 후 사랑방 전도축제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고 마무리한다.

#### ii) 섬김 주간 2주차

이 주간은 계속해서 관계를 통해 실제적인 섬김을 실천하는 시간이다. 다음주에 사랑방에 초청할 수 있도록 몇 번의 만남을 가져야 한다. 교회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마련한 접촉선물이나 엽서로 VIP와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진다. VIP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사랑방원들과 공유한다.

첫째, 관계는 복음이 흐르는 통로임을 주지시킨다(10분). 성경은 친구, 동료, 사랑하는 자에게 영향을 주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다른 실례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한 성경의 실례를 나눔으로 관계 전도를 독려한다. 둘째, 지난 주에 계획을 세운 VIP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줬는지 나눈다(10분). 셋째, VIP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개인적인 간증을 준비한다. 그 후에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부른 후 사랑방전도축제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고 마무리한다.

## (7) 초청 주간 (7~8주차)

## i) 초청 주간 1주차

이 주간은 실제적인 사랑방 초청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선별하여 기도하고, 관계전도를 통해서 접촉을 한 VIP를 준비된 사랑방에 초청한다. 첫째, “마음열기”(아이스브레이크, 다과 등)를 통해 초청된 VIP가 어색하거나 거부감이 없도록 한다. 둘째,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행복한 간증을 나눈다. 셋째,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란 사랑방 초청 메시지를 전함으로 VIP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곡을 통해 축복함으로 만남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

## ii) 초청 주간 2주차

이 주간은 실제적인 행복콘서트로 초청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선별하여 기도하고, 관계전도를 통해서 접촉을 한 VIP를 준비된 행사인 행복콘서트에 초청한다. 행복콘서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ii) 행복콘서트(축제예배)

<표 8> 행복콘서트 축제예배 실행 프로그램 (I) - 당일행사

시간	제목	내용	조명 / 음향
1	환영송	1) 환영과 축복의 찬양으로 시작 2) 예배로 이어지도록 준비 3) 찬양후 회중 기도 인도후 찬양팀 OUT	ALL ON
2	소개 영상	교회 홍보 영상	ALL OFF
3	빌리버	1) 영상 중에 나와서 자리 준비한다. 2) 끝남과 동시에 무대 정리를 위한 MR곡 ON	객석 OFF 무대 집중
4	피아노 독주	1) 피아노 무대 중앙으로 위치 이동 2) 이준병 군에게 조명 하나 집중	ALL OFF PIN1 집중

5	환영 영상	개인 인터뷰 영상, 환영과 교회 자랑	ALL OFF
6	무언극	1) 환영 영상 중 무언극 자리 위치한다. 2) 영상이 끝남과 동시에 진행 3) 끝나면 박수 받으며 퇴장하고 목사님 등단	MR확인 PIN 1,2
7	설교	복음 메시지로 설교 진행	무선 마이크
8	게스트 소개	마르셀 정 소개 영상	ALL OFF
9	마르셀 정 토크쇼	마르셀 정 나와서 진행한다.	무선 마이크 무대 ON
10	환영의 시간	1) 새로오신 분 환영 2) 행운권 추첨	ALL ON

## iv) 세부계획

〈표 9〉 행복콘서트 축제예배 실행 프로그램 (II) - 준비사항

NO	내용	준비사항	비고
1	선물	1) 모든 선물은 행복콘서트가 마치는 오후에 나누어 준다. 2) 등록 선물은 교환권으로 행사 후에 받아가도록 한다. 3) 스티커 작업할 것 4) 사회자 진행을 위한 선물과 추첨을 통한 상품 준비한다.	등록선물/리본 행주(200개) 경품, 진행선물상품권 준비
2	무대 세팅	1) 행사 전날 오후 2시 무대 세팅 - 안수집사회 요청 2) 그랜드 피아노를 강단 위로 올려 무대식으로 셋팅한다. 3) 조명을무대에 집중되도록 셋팅한다. 4) 무대에 쇼파 셋팅하고 토크쇼 분위기를 연출한다	
3	행사 진행자	1) 빌리버(울동찬양팀) 의상 점검 2) 피아노 연주복 확인 3) 무언극 내용 확인 후 설교에 접목 여부 확인 4) 게스트(마르셀 정) (1) MR확인 (2) 리허설 시간 확인 (3) 홍보 영상 확인 (4) 순서 진행 조율	

4	음향 및 조명	1) 찬양팀 마이크, 악기 세팅(후에 마이크 정리) 2) 게스트 MR 및 마이크 확인 3) 무선 마이크 준비 및 음향 세팅	무선마이크 피아노 음향
5	접수처	1) 행사 전날 토요일 준비할 것 2) 일자형 테이블에 테이블 보를 입혀서 준비 3) 등록자 컴퓨터로 바로 입력 4) 등록자에게는 선물 교환권을 드리고 행사 후 찾아 갈 수 있도록 한다(1층 사무실). 5) 전도하신 분과 함께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 (원하지 않을 경우는 하지 않는다.) 6) 우천시 2층 소예배실로 세팅 7) 접수자1,2부 3명 / 3부 5명	테이블보, 등록카드, 선물교환권, 볼펜, 행운권추첨박스, 노트북 2대, 셋팅된선물가방
6	행사 후 모임	1) 2층 소예배실에서 새가족 모임을 가진다. 2) 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둔다. 3) 담임목사님의 환영 인사와 더불어 부교역자, 장로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4) 1층 로비에서는 음반 판매 및 싸인회(?) 준비	조각케익 커피 각종 다과
7	안내	1층 로비 2명 / 2층 계단 2명./ 소예배실2명 / 본당입구2명 / 1,2,3 통로 2명	복장 통일해서 입을 것
8	1,2층 세팅	1) 1,2층은 다과와 함께 카페로 운영 2) 1층은 기존의 방법대로 운영(내린 커피, 맥심) 3) 목양실 커피 제조기 밀으로 2층으로 내려서 사용 4) 2층에는 간단한 비스킷을 각 테이블에 셋팅한다.	커피머신, 맥심 주전자, 물, 컵
9	의전실 운영	1) 게스트 의전실당회실에 준비 2) 청년팀 연습실영유치부실 3) 피아노 연습실성가대실 4) 각 장소마다 간단한 차와 다과를 셋팅해 둔다.	물, 다과, 차
10	키즈 랜드	1) 행사 시간 동안 유초등부실에서 운영한다. 2) 어린 아이들을 향한 프로그램 및 간식 준비	물, 다과 등
11	차량	1) 주위 주차 공간 확보 2) 새가족 차량부터 주차장에 입차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회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힌 A4용지 붙혀 놓을 것	주차위원회

## 6) 개선점

4장에 보면, 사랑방전도축제인 ‘행복콘서트’가 당신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 중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52.5%로 가장 큰 것이었다. 이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밭대식’을 기획했다. 그로 인해 전도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선서와 구호제창을 통해 공동체만 아니라 각 개인이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서게 한다.

#### 4. 예감축제 (예수님 감사해요)

##### 1) 개요

추수감사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며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의 교회가 실천하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추수감사절에 해야 할 것은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신 16:13~15) 하는 것이다.

##### 2) 명칭과 목표

본 프로그램의 명칭은 ‘예감축제’로, 두 개의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성된 것이다. 첫째, ‘예감’이다. 이는 ‘예수님 감사해요’라는 말의 준말인데, 구약의 초막절에 한 해 농사의 결과를 가지고 ‘감사’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절기를 지키려는 것이다. 둘째, ‘축제’인데 이것은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또한 참여자로 하여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초막절(수장절, 여호와의 절기)’의 바른 의미를 회복하게 한다.<sup>192</sup> 그로 인해 한 해를 지켜주신 이 땅의 열매에 대한 감사를 넘어,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영적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신 16:13~15)을 따라,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2차적 목표이다.

---

192) 초막절(수장절, 여호와의 절기)의 의미는 2장을 참조하라.

## 3) 주제

“나눔, 거룩한 감사”

## 4) 성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

## 5) 프로그램

## (1) 예감축제예배

이 프로그램은 예감축제의 내부 행사로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반응함으로 진 세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다. 또한 참여자로 하여금 감사의 과일 가져오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해서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게까지 감사의 의미를 교육시킨다. 또한 모은 과일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초막절(수장절, 여호와의 절기)의 바른 의미를 실천하게 하는 행사이다.

<표 10> 예감축제예배 실행 프로그램 (I) - 당일행사

시간	제목	내용	조명 / 음향
1	환영송	1) 환영과 축복의 찬양으로 시작 2) 예배로 이어지도록 준비 3) 찬양후 회중 기도 인도후 찬양팀 OUT	ALL ON
2	오픈 영상	교회 홍보 영상	ALL OFF
3	임마누엘 성가대	1) 영상 중에 나와서 자리 준비한다. 2) 추수감사절 찬양곡 1-2곡	ALL ON
4	피아노 독주	1) 피아노 무대 중앙으로 위치 이동 2) 이명지양에게 조명 하나 집중 3) 추수감사절 연주곡 2곡 4) 끝나면 박수 받으며 퇴장하고 동영상 상영	ALL OFF PIN1 집중

5	절기 영상	추수감사절 영상	ALL OFF
6	호른 연주	1) 추수감사절 영상이 끝날 무렵 자리 위치한다. 2) 영상이 끝남과 동시에 진행 3) 끝나면 박수 받으며 퇴장하고 율동팀 등단	MR확인 PIN1집중
7	빌리버 감사의 율동	1) 음악과 함께 등단 2)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MR 3) 끝나면 박수 받으며 퇴장하고 목사님 등단	MR확인 PIN 1,2
8	설교	감사절기 메시지로 설교 진행	무선 마이크
10	찬양과 기도 그리고 축도	1) 설교를 듣고 감사절기에 해당되는 찬양을 함께 부른 후 합심기도 2) 축도로 마무리한다.	ALL ON

## i) 세부계획

&lt;표 11&gt; 예감축제예배 실행 프로그램 (II) - 준비사항

NO	내용	준비사항	비고
1	선물	1) 모든 선물은 예감축제예배가 마치고 난 후 나누어 준다. 2) 등록 선물은 교환권으로 행사 후에 받아가도록 한다. 3) 스티커 작업할 것 4) 사회자 진행을 위한 선물과 추첨을 통한 상품 준비한다.	등록선물/리본 행주(200개) 경품, 진행선물상품권 준비
2	무대 세팅	1) 행사 전날 저녁6시 무대 세팅 - 청년부 요청 2) 그랜드 피아노를 강단 위로 올려 무대식으로 셋팅한다. 3) 조명을무대에 집중되도록 셋팅한다.	
3	행사 진행자	1)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곡 자막 확인 2) 피아노(이명지) 연주복 및 악보(자막) 확인 3) 호른(김정철)연주복 및 악보(자막), 피아노연주자 확인 4) 빌리버 의상 및 MR 점검 5) 오픈 영상 및 추수감사절 영상 확인	
4	음향 및 조명	1) 찬양팀 마이크, 악기 세팅(후에 마이크 정리) 2) 게스트MR및 마이크 확인 3) 무선 마이크 준비 및 음향 세팅	무선마이크 피아노 음향

5	접수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사 전날 토요일 준비할 것</li> <li>2) 일자형 테이블에 테이블 보를 입혀서 준비</li> <li>3) 등록자 컴퓨터로 바로 입력</li> <li>4) 등록자에게는 선물 교환권을 드리고 행사 후 찾아 갈 수 있도록 한다(1층 사무실).</li> <li>5) 전도하신 분과 함께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 (원하지 않을 경우는 하지 않는다.)</li> <li>6) 우천시 / 2층 소예배실로 세팅</li> <li>7) 접수자 / 1,2부 3명 / 3부 5명</li> </ol>	테이블보, 등록카드, 선물교환권, 볼펜, 행운권추첨박스, 노트북 2대,, 셋팅된선물가방
6	행사 후 모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층 소예배실에서 새가족 모임을 가진다.</li> <li>2) 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둔다.</li> <li>3) 담임목사님의 환영 인사와 더불어 부교역자, 장로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li> <li>4) 1층 로비에서는 등록 선물 준비</li> </ol>	조각케익 커피 각종 다과
7	안내	1층 로비 2명 / 2층 계단 2명/ 소예배실2명 / 본당입구 2명 / 1,2,3 통로 2명	복장 통일해서 입을 것
8	1,2층 세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2층은 다과와 함께 카페로 운영</li> <li>2) 1층은 기존의 방법대로 운영(내린 커피, 맥심)</li> <li>3) 목양실 커피 제조기 밑으로 2층으로 내려서 사용</li> <li>4) 2층에는 간단한 비스킷을 각 테이블에 셋팅 한다.</li> </ol>	커피머신, 맥심 주전자, 물, 컵
9	의전실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마누엘성가대 연습실성가대실</li> <li>2) 피아노 연습실SEM실</li> <li>3) 호른연습실 소그룹 1실</li> <li>4) 빌리버 율동찬양팀연습실 중고등부실</li> <li>4) 각 장소마다 간단한 차와 다과를 셋팅해 둔다.</li> </ol>	물, 다과, 차
10	키즈 랜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사 시간 동안 유초등부 실에서 운영한다.</li> <li>2) 어린 아이들을 향한 프로그램 및 간식 준비</li> </ol>	물, 다과 등
11	차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위 주차 공간 확보</li> <li>2) 새가족 차량부터 주차장에 입차할 수 있도록 한다.</li> <li>3) 교회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힌 A4 용지 붙혀 놓을 것</li> </ol>	주차위원회

## (2) 사랑의 쌀 나누기 / 사랑의 과일 나누기

이 프로그램은 예감축제의 교회 외부 행사로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에 따라 절기의 의미를 바르게 실천하는 행사이다. 한 달 전부터 공지가 된 ‘사랑의 쌀 나누기’를 통해 모은 쌀을, 당일 모은 과일과 함께 이 땅의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사이다.

## i) 대상

대상은 신도교회 가난한 교우들과 환우들 및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불우한 지역 주민들이다.

## ii) 실행방안

첫째, 기증받은 쌀들은 먼저 신도교회 성도들 중 가난하고 아픈 환우들이 선별되고, 또한 사랑방과 전도회를 통해 추천되고 선정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불우한 지역 주민들에게 쌀 20kg씩을 전달한다. 둘째, 목적현금으로 모인 재정을 동사무소와 구청과 연계하여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한다. 셋째, 당일 예배 때 가져온 과일들은 주변 관공서와 독거노인, 요양원, 지체 장애우들이 있는 시설로 나누어준다.

## 6) 개선점

4장의 설문조사에 보면, 부정적인 영향 중에 ‘아이디어 창출의 어려움’과 동원에 대한 부담감이 37.5%였고, 또한 ‘행사의 반복에서 오는 권태감’이 30%로 매년 새로운 형식의 새로운 형식의 축제를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이에 격년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한 해는 ‘가을음악회’ 형식으로, 또 다른 한 해는 사랑방별(혹은 전도회별)로 찬양경연대회를 가짐으로 ‘교인들 간의 교제’를 더 강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끌어낸다. 또한 ‘영향력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 보완할 점으로는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57.5%로 이미 소개한 사랑의 쌀나누기, 과일나누기를 넘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 5.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 1) 개요

성탄절은 부활절과 더불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이다. 동시에, 종교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는 절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성탄절은 그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고 일제 강점기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 풍조가 만연한 변질된 크리스마스로 남아있게 되었다.<sup>193</sup>

그러나 성탄절의 본래적 의미는 이사야 61:1-3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뻐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계시게 되었다(요 1:14). 따라서 성탄절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의미가 새롭게 새겨지는 날이 되어야 한다.

## 2) 명칭과 목표

본 프로그램의 명칭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로, 두 개의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성된 것이다. 첫째, ‘기다리는’이다. 이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의미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이들을 향한 사역의 의미가 있다. 둘째, ‘크리스마스’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의 고대 영어 **Cristes maesse**에서 유래하였으며<sup>194</sup>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종교적인 예식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오신 목적대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참여자로 하여금,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회복하여,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마 1:23)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193)EBS, “조선의 크리스마스,” [온라인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KyBgBQxinVY>, 2017년 11월 30일 접속

194)브리태니커온라인, “크리스마스,” [온라인 자료] [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2k0537a](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2k0537a), 2017년 11월 30일 접속..

## 3) 주제

“기다림의 시간 속으로 오신 예수님”

## 4) 성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롬 8:19-21)

## 5) 세부계획

## (1) 크리스마스 전야 예배

이 프로그램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의 내부 행사로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서울신도교회 부설 어린이집과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발표형식의 예배 프로그램이다. 신원어린이집 아이들의 발표를 통해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들이 초청되어 옴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준비된 푸짐한 선물을 통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하는 영향력 있는 행사이다.

<표 12> 크리스마스 전야 예배 실행 프로그램

NO	제목	내용	조명/음향
1	경배와 찬양 (리조이스 찬양팀)	1) 환영과 축복의 찬양으로 시작 2) 찬양후 회중 기도 인도후 찬양팀 OUT	ALL ON 마이크 6
2	신원어린이집 음악활동반	“악기연주”	ALL ON MR확인

3	사랑반	“딩동딩동 선물왔어요”	ALL ON MR 확인
4	신원어린이집 체육활동반	“태보”	ALL ON MR 확인
6	유초등부	“북치는 소년”, “함께 축하해요”	ALL ON 신디 반주
7	믿음반	“갑돌이와 갑순이”.	ALL ON 신디 반주
8	믿음반, 사랑반, 온유반 합창	“반짝 반짝 성탄별”	ALL OFF PIN 1,2 MR 확인
9	영유치부	“예수님 찬양”	ALL ON MR 확인
10	청년부	“The Real Party”	MR 확인 PIN 1,2
11	절기 영상	성탄절 감동 영상 (설교와 연관된 영상)	ALL OFF
12	성탄 메시지	1) 성탄절 감동 영상이 끝날 무렵등단한다. 2) 영상이 끝남과 동시에 성탄절 메시지를 전한다.	ALL ON 무선 마이크
13	축복의 시간	1) 성탄 메시지가 끝나고 리조이스 찬양팀이 등단하여 축복송을 부르며 오신 분들을 축복한다. 2) 이후에 담임목사님이 모두를 향한 축복기도를 한 후에 마무리한다.	ALL ON

## (2) 크리스마스 축제예배

이 프로그램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의 내부 행사로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전 세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이다. 성탄절기 메시지를 통해 아기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여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진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결심하는 행사이다.

〈표 13〉 크리스마스 축제예배 실행 프로그램

NO	제목	내용	조명 / 음향
1	경배와 찬양 (리조이스 찬양팀)	1) 환영과 축복의 찬양으로 시작 2) 찬양후 회중 기도 인도후 찬양팀 OUT	ALL ON
2	대표기도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	ALL ON
3	임마누엘 성가대	성탄절 칸타타 / 찬양곡 5-6곡	ALL ON
4	절기 영상	성탄절 감동 영상	ALL OFF
6	성경봉독 및 설교	1) 추수감사절 영상이 끝날 무렵등단한다. 2) 영상이 끝남과 동시에 성경봉독 3) 성경봉독 후 성탄절 메시지를 전한다.	ALL ON 무선 마이크
7	결단의 찬송	설교와 관련된 찬양곡을 함께 부르므로 하나님께결단을 올려 드린다.	신디 반주
8	헌금	특송을 통해 헌금의 의미를 다시금 다진다.	MR 확인 무선 마이크
9	생일케익 커팅	1)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생일케익 등단 2) 성도들 모두가 하나, 둘, 셋을 외친 후 케익 커팅 3) 커팅이 되는 순간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성도들 모두가 함께 외친다.	MR 확인 무선 마이크
10	생신축하 공연	빌리버의 “Happy Christmas + 라라라라”	MR 확인 PIN 1,2
11	찬양과 기도 그리고 축도	1) 빌리버의 공연이 끝나고 박수와 함께 퇴장 2) 리조이스 찬양팀의 마무리 찬양 이후에 축도로 마무리한다.	ALL ON

## 6. 소결론

본 절기사역 프로그램의 특징은 첫째, 성경의 중요한 절기에 맞추어 1년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사역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흔히 지키고 있는 절기들을 중심으로, 성경적 의미를 접목시켜 프로그램화 했기에 별로 거부감이 없다. 또한 개요 및 명칭, 목표, 주제, 성구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도표화하여 누구든지

적용하기 쉽게 했다.

둘째, 절기사역에 참석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의미를 더욱 알게 되고, 절기를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교훈을 삶으로 실천하도록 도와준다. 실제 절기사역의 목적은 교회성장과 부흥을 이루는 것이다. 절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힘이 근원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절기축제이다. 즉 부흥과 성장의 주체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교회력에 맞추어 사역을 함으로 교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셋째, 교회절기사역에 참여하면서 교회사역에 대한 이해와 교인들간의 교제가 향상되며, 전도와 선교활동에 관심이 일어나 교회사역이 활성화되게 한다. 목표가 분명하며 성경적이기에 교회사역에 대한 이해가 잘 되고, 또한 절기프로그램 자체가 성도 개개인이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 소그룹이나교회 전체가 움직이도록 짜여져, 절기사역에 참여만 해도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일어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교회의 역동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넷째,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흐름과 같이 절기사역이 진행되는 것이다. 보통 교회의 사역이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다 보니, 획일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을 따라 1년 절기에 맞게 사역이 진행됨으로 획일성을 가지게 되고, 매년 반복되는 사역을 통해 성경의 절기에 따른 교회사역의 열매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닌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가진 사역을 통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기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 초대교회와 같이 영적 변화가 일상적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교회의 역동성이 회복될 것이다. 본 연구자의 절기사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행 2:47)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 제 6 장

### 결론

본 절기사역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것을 총 정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가운데 진행된 프로그램들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사역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며, 사역을 하는 목적이 성경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구자의 관심이 조금 멀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 절기사역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절기사역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또한 율법에 제시된 절기가 어떻게 현 시대의 교회에 이어졌으며, 그것을 통해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것인지를 보게 되었다.

연구자가 지금까지 절기사역을 진행하면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고, 교회의 역동성이 회복됨으로 침체되어 있던 교회가 활기차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절기를 통해 모이는 것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결과이다. 물론 모이는 것만으로 교회의 역동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모이기에 힘씀으로써 이러한 일이 진행됨을 부인할 수 없다. 절기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한다는 것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의 절기사역의 내용과 방향성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성도들 개인적인 삶의 영역까지 적용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절기사역으로 인해 회복된 교회의 역동성을 선순환의 원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고 약속하신다. 여기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율법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것으로, 안정적인 자기 삶의 자리를 벗어나 순례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절기들이 신약교회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절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본질적인 뜻이 담겨 있다.

교회에 행사가 많은데 그 행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른바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경적인 행사, 사역을 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고 싶어서 교회절기사역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말씀에 기초한 절기사역을 실행해 봄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남을 보았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을 통해 모든 절기사역에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영향은 ‘교인들간의 교제 향상’과 ‘전도 및 선교활동 관심 향상’이었다. 성경에 기초한 절기사역이 매년 때마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진다. 또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인들간의 교제 향상’과 ‘전도 및 선교활동 관심 향상’이 일어나 초대교회 같은 역동성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순환을 이룬다면, 교회는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교회절기사역은 하나의 제안이다. 이 절기 사역의 한 실례가 교회의 역동성을 불러 일으켜 지속적으로 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발판이 되어 교회마다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 APPENDIX A

### 부록 A

#### Survey (Korean)

##### 설문지(한글)

#### 특징적 절기 사역을 위한 설문

(해당 문항에 √해 주세요.)

#### [개인적인 질문]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당신의 나이는 무엇입니까?

- ① 18-20대 ② 30-40대 ③ 50-60대 ④ 70-80대

3. 서울신도교회에 다닌 연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3년-5년 ④ 6년-9년 ⑤ 10년 이상

4. 현재 교회 내에서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 ① 장로 ② 안수집사 ③ 권사 ④ 집사 ⑤ 기타( )

####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질문]

5. 당신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절기 사역에 대해서 아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어느 정도 아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당신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기 사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부활절생명축제 ② 사랑방전도축제 ③ 예감축제

- ④ 기타 ( )

8. 당신이 참여하였던 절기 사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부활절생명축제 ② 사랑방전도축제 ③ 예감축제  
④ 기타 ( )

[교회 절기 사역이 미치는 영향과 개선점에 대한 질문]

9. 당신은 교회 절기 사역이 교회에 숫자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십니까?

- ① 크게 영향을 주었다 ② 보통이다 ③ 적다.

10. 당신은 교회 절기 사역이 새신자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1. 당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교회 절기 사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부활절생명축제 ② 사랑방전도축제 ③ 예감축제  
④ 기타 ( )

12-1. 부활절생명축제가 당신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교회 사역에 대한 이해 향상 ② 신앙 성숙을 통한 가정 및 직장 생활에 긍정적 영향  
③ 교인들 간의 교제 향상 ④ 전도 및 선교 활동 관심 향상  
⑤ 기타 ( )

12-2. 부활절생명축제가 당신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행사의 반복에서 오는 권태감 ②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감  
③ 직장생활(학교생활)에서의 피로감 ④ 헌금에 대한 부담감  
⑤ 기타 ( )





## APPENDIX B

## 부록 B

## 사용허가서

2016 Love Busan Week

자료 인용 및 사용 요청서

## 1. 요청자 인적 사항 :

성 명	김 인 환	교 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 신도교회
직 분	담임목사	연락처	010 - 6301 - 9106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동 1577-27번지		

## 2. 요청 내용 :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서울신도교회 담임목사 김인환입니다. 현재 "특징적 절기 사역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 신도교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미국 리버티 대학교(Liberty University, www.liberty.edu)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러브부산 Cafe(<http://lovebusans.cafe24.com>)에 게재된 "2016년 러브부산워크"라는 그림을 논문에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허락하여 주시면 논문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인허

리버티 대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논문을 위하여 요청하신 우리교회 자료 사용을 허락합니다.

일 시 : 2018년 4월 30일

성 명 : \_

직 분 : \_

## BIBLIOGRAPHY

### 참고자료

#### 1. 단행본 및 번역서

- 강사문. 「구약의 역사 이해」. 서울: 한국성서학, 2002.
- 권성수, 양창삼, 이만열. 「3인 3색 교회성장 진단과 전망」. 서울: 처음, 2004.
- 권혁승. 「구약 절기에 대한 유대교의 해석과 절기 준수」. 주제별 설교 시리즈 『구약 절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서원, 2012.
- 김경진. 「성서주석-사도행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김은영. 「교회력과 성서일과」. 서울: 학교교회음악학회, 2008.
- 김진홍. 「여호와와 절기」. 서울: 두레시대, 1996.
- 박근원. 「교회력과 목회기획」. 서울: 콤팩출판사, 2003.
- 양병무. 「감자탕 교회 이야기」. 서울: 김영사, 2003.
- 이상만. 「총동원 집중전도(오이코스 절기축제로 살린다)」. 서울: 기독신문사, 2002.
- 이성훈. 「새롭게 보는 이스라엘 절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이종윤, 전호진, 나일선. 「교회성장학」. 서울: 정은출판사, 1983.
- 이진우.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 크리스찬신문사, 2002.
- 장희근. 「한국장로교회사」. 성루: 아성출판사, 1970.
- 정장복. 「교회력과 성서일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정필도.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서울: 두란노, 2005.
- 조석민. 「요한복음에 나타난 구약 절기와 요한의 신학」. 서울: 두란노, 2012.
-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1」.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_\_\_\_\_.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5.
- 하용조. 「비전성경사전」. 서울: 두란노, 2001.

- 허주. 「사도행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3.
- Beasley-Murray, George R. *John 1~21. Word Biblical Commentary*. 이덕신 역. 서울: 솔로몬, 2012).
- Bell, Albert A.Jr. 「신약시대의 사회와 문화」.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 Burge, Gary M. 「NIV 적용주석-요한복음」. 김병국 역. 서울: 솔로몬, 2010.
- Carcopino, Jérôme. 「고대 로마의 일상생활: 제국 전성기」. 서울: 우물이 있는 집, 2003.
- Fernando, Ajith. 「사도행전」. 「NIV적용주석」. 서울: 솔로몬, 2011.
- Glasev, Mitch. 「레위기의 3대절기」, 송용구 역. 서울: 생명의 서신, 2006
- Green, Michael. 「초대교회 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 Horn, Edward T. 「교회력」. 배한국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71.
- Hunter, George G. 「교회성장과 목회전략」. 김선도 역. 서울: 광림출판사, 1993.
- McGavran, Donald A. 「교회성장학」. 고원용 역. 대구: 보문출판사, 1987.
- \_\_\_\_\_. 「교회성장이해」. 이요한, 김종일, 전재옥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 Peters, George W. 「교회성장 신학」. 임홍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Powell, Paul W. 「교회성장의 실제와 사례」. 천복현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9.
- Rainer, Thom S. 교회성장교과서」.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5.
- Tippett, Alan R.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 서울: 보이스사, 1978.
- Towns, Elmer L.의 4인 공저. 「교회성장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김석원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1987.
- Wagner, C. Peter. 「교회성장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 \_\_\_\_\_.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 Wenham, Gordon J. 「NICOT 레위기」. 김기탁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4.
- White, James F. 「기독교 예배학 입문」. 정창복 역. 서울: 엠마오, 1992.

## 2. 정기간행물

- 강정훈, “유대인은 절기교육을 통해 일어난다,” 「교사의 벗」. 2011년 4월, 50.
- \_\_\_\_\_. “절기교육을 강화하라,” 「교사의 벗」. 2014년 11월, 37-8, 41-4.
- 권혁승, “이스라엘 절기로 보는 교회력 이해,” 「교육교회」, 2014년 3월, 14, 16, 19-20,
- \_\_\_\_\_. “구약의 절기(레 23장), 무교절(6-8절),” 「그말씀」 319호, 2016년 1월, 16-7.
- \_\_\_\_\_. “구약 절기에 대한 유대교의 해석과 절기 준수,” 「그말씀」, 2012년 1월, 22, 25-9.
- 김건식, “성경에 나타난 절기준수와 사회적 섬김,” 「목회와 신학」, 244호. 2009년 10월, 52.
- 김보경, “절기를 사회적 섬김으로 확대하고 있는 교회들,” 「목회와 신학」, 244호. 2000년 10월, 71.
- 김운용, “절기를 명하시고 그 교육을 명하시다,” 「교육목회」, 2014년 3월, 22.
- 성석환,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절기,” 「목회와 신학」, 224호, 2009년 10월, 37, 39.
- \_\_\_\_\_. “교회의 공공성과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교회절기의 사회화,” 「목회와 신학」, 244호. 2009년 10월, 15-7, 19, 40.
- 양금희, “절기를 통해 열리는 기독교 교육의 새 지평,” 「교육교회」, 457호. 2016년 9월, 11.
- 오덕교, “한국교회는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신학정론 22 (2)」, 2004년 11월, 291-3.
- 이성훈, “이스라엘 절기는 기독교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말씀」 319호, 2007년 12월, 171.
- 조석민, “요한복음에 나타난 구약 절기와 요한의 신학,” 「그말씀」, 2012년 1월, 57.
- 한정애, “구약 절기에 관한 교회의 해석과 수용,” 「그말씀」, 271호. 2012년 1월, 65.
- 황순환, “한국교회의 성장과 정체에 대한 연구,” 「선교신학」, 2011년 11월, 300.
- 「국제신문」. 2013년 10월 30일.
- 「기독신문」. 2000년 12월 20일.
- \_\_\_\_\_. 2001년 9월 10일.
- \_\_\_\_\_. 2010년 11월 12일.
- \_\_\_\_\_. 2010년 11월 29일.

「동아일보」. 2003년 3월 7일.

「원자력문화신문」. 2003년 4월 11일.

「한국경제신문」. 2002년 12월 4일.

### 3. 주석류

강병도 편. 「카리스 종합주석」. 서울: 기독지혜사, 2003.

나용화, 김의원 번역. 「새성경사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손병현. 「엑스포지벤테리 레위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존 윌튼 외 2명. 「성경배경주석, 구약」. 서울: IVP, 1998.

「기독교 대백과사전」. 제13권 서울: 기독교교문사, 1984, 827.

### 4. 학위논문

유수영,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한 교회 부흥과 성장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제주함께하는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리버티대학교 신학대학원, 2017), 71.

임정훈, “웨슬리의 실천적 교회론 관점에서 본 부친제일감리교회 성장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신학대학원, 2011), 38.

### 5. 온라인 자료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4150.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4150.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2287.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2138.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7200.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6944.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6452.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6453.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4711.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4682.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24.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2일접속.
-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greek/3957.htm>, THAYER'S GREEK LEXICON,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2011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6일접속.
-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7620.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6일접속.
-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greek/4005.htm>, HELPS Word-studies. copyright © 1987, 2011 by Helps Ministries, Inc., 2017년 10월 16일접속.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7105.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6일 접속.

[온라인 자료] <http://biblehub.com/hebrew/5521.htm>,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Unabridged, Electronic Database. Copyright © 2002, 2003, 2006 by Biblesoft, Inc., 2017년 10월 19일 접속.

서울광염교회, “INTRODUCTION” [온라인 자료] [http://www.sls.or.kr/\\_bbs/president](http://www.sls.or.kr/_bbs/president), 2017년 11월 20일 접속.

\_\_\_\_\_, “INTRODUCTION” [온라인자료] [http://www.sls.or.kr/\\_bbs/introduction](http://www.sls.or.kr/_bbs/introduction), 2017년 11월 20일 접속.

수영로교회, “교회연혁” [온라인자료] <http://www.sooyoungro.org/new-layout/syrintro/history.jsp>, 2017년 11월 20일 접속

\_\_\_\_\_, “교회연혁” [온라인자료] <http://www.sooyoungro.org/new-layout/syrintro/history.jsp>, 2017년 11월 20일 접속

\_\_\_\_\_, “교회연혁” [온라인자료] <http://www.sooyoungro.org/new-layout/syrintro/vision.jsp>, 2017년 11월 20일 접속

\_\_\_\_\_, “수영로양육훈련철학” [온라인자료] <http://www.sooyoungro.org/new-layout/syrgrowth/newguide.jsp>, 2017년 11월 23일 접속

\_\_\_\_\_, “사랑방 전도축제 12주 진행 메뉴얼”, [온라인자료] <http://www.pastormall.net/shop/board/view.php?id=call&page=177&no=1569>, 2017년 11월 24일 접속

\_\_\_\_\_, “러브부산” [온라인자료] [http://lovebusans.cafe24.com/g5/bbs/board.php?bo\\_table=greet](http://lovebusans.cafe24.com/g5/bbs/board.php?bo_table=greet), 2017년 11월 23일 접속.

\_\_\_\_\_, “러브부산, 자원봉사센터,” [온라인자료] <http://lovebusans.cafe24.com/g5/bbs/board.php?botable=center&sca=%EC%9E%90%EC%9B%90%EB%B4%89%EC%82%AC%EC%84%BC%ED%84%B0>, 2017년 11월 24일 접속

\_\_\_\_\_, “전문특화영역, 러브부산 사역,” [온라인자료] <http://www.sooyoungro.org/new-layout/syrteam/department8.jsp>, 2017년 11월 23일 접속.

\_\_\_\_\_, “커뮤니티,” 러브부산 [온라인자료] [http://lovebusans.cafe24.com/g5/bbs/board.php?botable=notice&wr\\_id=3](http://lovebusans.cafe24.com/g5/bbs/board.php?botable=notice&wr_id=3), 2017년 11월 23일 접속.

\_\_\_\_\_, “전문특화영역, 러브부산 사역” [온라인자료] <http://www.sooyoungro.org/new-layout/syrteam/department8.jsp>, 2017년 11월 23일 접속

\_\_\_\_\_, “커뮤니티”, 러브부산 [온라인자료]

[http://lovebusans.cafe24.com/g5/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http://lovebusans.cafe24.com/g5/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 2017년 11월 23일 접속.

크리스천투데이, “2008년 사랑방 전도축제”, [온라인자료]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191411>, 2017년 11월 24일 접속

연합뉴스, “이웃돕기 러브상자 나눔 축제”, [온라인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4/0200000000AKR20171104034300051.HTML>, 2017년 11월 04일.

오마이뉴스, “러브상자로 이웃사랑 전해요”, [온라인 자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430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4302), 2017년 11월 23일 접속.

노컷뉴스, “부산수영로교회, ‘러브박스’ 1만개 이웃전달”, [온라인 자료] <http://www.nocutnews.co.kr/news/4504058>, 2017년 11월 24일 접속.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콘서트”, [온라인 자료]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7년 11월 30일 접속.

EBS, “조선의 크리스마스,” [온라인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KyBgBQxinVY>,

2017년 11월 30일 접속.

브리태니커온라인, “크리스마스,” [온라인 자료]

[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2k0537a](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2k0537a), 2017년 11월 30일 접속.

## IRB APPROVAL

IRB 승인



# LIBERTY UNIVERSITY.

## INSTITUTIONAL REVIEW BOARD

November 10, 2017

In Hwan Kim

IRB Exemption 3012.111017: A Study of Church Growth through the Special Events Ministry of the Korean Church: A Case Study of Seoul Sin-Do Church Korea

Dear In Hwan Kim,

The Liberty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has reviewed your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OHRP)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gulations and finds your study to be exempt from further IRB review. This means you may begin your research with the data safeguarding methods mentioned in your approved application, and no further IRB oversight is required.

Your study falls under exemption category 46.101(b)(2), which identifies specific situations in which human participants research is exempt from the policy set forth in 45 CFR 46:101(b):

- (2) Research involving the use of educational tests (cognitive, diagnostic, aptitude, achievement), survey procedures, interview procedures or observation of public behavior, unless:
- (i) information obtained is recorded in such a manner that human subjects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through identifiers linked to the subjects; and
  - (ii) any disclosure of the human subjects' responses outside the research could reasonably place the subjects at risk of criminal or civil liability or be damaging to the subjects' financial standing, employability, or reputation.

Please note that this exemption only applies to your current research application, and any changes to your protocol must be reported to the Liberty IRB for verification of continued exemption status. You may report these changes by submitting a change in protocol form or a new application to the IRB and referencing the above IRB Exemption number.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exemption or need assistance in determining whether possible changes to your protocol would change your exemption status, please email us at [irb@liberty.edu](mailto:irb@liberty.edu).

Sincerely,

**G. Michele Baker, MA, CIP**  
*Administrative Chair of Institutional Research*  
 The Graduate School

**LIBERTY**  
 UNIVERSITY.

*Liberty University | Training Champions for Christ since 1971*

